[네번째 설교집]

환난 날의 신앙

임 동 선

쿰란출판사

추천사

평소에 존경하는 임동선 목사님의 원고를 교정을 보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읽는 중에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 책을 통하여 임 목사님의 삶을 엿볼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오늘의 동양선교교회로 성장하기까지의 제일 큰 요인은 임 목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강하고, 당신이 먼저 모든 생활에 모범이 되며, 희생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메시지는 생생하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970년 7월 29일에 30여 명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30년이 가까운 시점에서 세계적인 동양선교교회가 된 데에는 먼저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하셨고, 또 임 목사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동선 목사님에게는 다섯 가지 목회철학이 있습니다.

첫째, 2세 교육에 대한 정열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에 많은 재정을 투자했으며 본당을 건축하기 전에 교육관을 먼저 신축하여 LA 지역에서 교육 내용이 제일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있기에 수십 번이나 세계 각 지역 선교여행을 하셨고 선교비를 지원했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 40여 개의 지교회를 설립하셨으며, 미국의 월드미션대학교를 비롯하여 모스크바 신학교와 레잔 신학교 등 세 개의 신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셋째, 늘 기도에 힘쓰십니다. 아무리 분주하여도 기도생활에 게으르지 않고 힘씀으로 인해 능력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비약적인 교회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넷째, 모든 생활에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생활 속에서도 이웃을 돕는 데는 앞장을 서셨습니다. 또한 신학생, 교역자, 선교사들을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도우셨기에 어떤 때는 은행 잔고가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섯째,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평소에는 부드럽고 겸손하신 분이 일단 강단 위에 서시면 사자후를 토하듯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격려, 위로, 소망이 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금번에 출간되는 임동선 목사님의 설교집 「환난 날의 신앙」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집을 읽는 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째로 메시지가 성서적이고 복음적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말씀 선포를 통하여 다양한 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 목사님의 설교는 성서적이고 복음적입니다. 한 설교에도 많은 성경구절이 인용되고 있으며, 신학에는 웨슬레 사상이 있습니다.

둘째로 지식이 풍부합니다. 임 목사님은 매일 성경을 읽는 동시에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하십니다. 메시지에 필요한 학자, 철인, 정치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

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체험과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50년 이상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깨달은 진리와 깊은 신비의 체험 그리고 역경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기에 살아 있는 간증이 여러 말씀 속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좋은 예화로써 알찬 설교가 되게 합니다. 적절한 예화는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많은 예화가 각 설교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그들의 설교에 인용해도 좋은 예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섯째로 체계적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설교가 하나의 예술작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많은 설교집을 읽어 보았지만 임동선 목사님같이 간결하고도 내용이 알찬 설교는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설교집을 읽는 분들에게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크신 복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999년 11월 10일
사우스베이 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 **이기홍**

머리말

드디어 21세기가 다가왔습니다. 인류 문명은 너무나도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21세기는 혼돈의 시대요, 위기의 시대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각 방면에 급진적인 발전과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21세기에는 유물주의, 향락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이성주의, 과학만능주의, 인터넷의 부작용, 인구 폭발, 식량부족, 대기 오염, 자연 훼손, 가정 파괴, 청소년 범죄, 마약, 에이즈, 신비주의, 이단 사설 등이 더욱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보다도 더 파괴적이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놀랄 만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세에 나타날 현상이 세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 : 1~5).

이러한 부도덕, 무질서와 혼돈한 세대에서의 개인, 가정, 사회, 나라를 살리는 길은 정치, 경제, 교육, 군사, 과학, 예술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

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 : 16).

사람들은 인류 전쟁의 역사가 무력전에서 사상전으로, 사상전에서 경제전으로, 그리고 경제전에서 정보전으로 변화했다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단에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자기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겨 개인, 가정, 사회, 나라를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전해질 때 교회는 부흥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50년 이상 목회를 하며 설교를 해온 저이지만 막상 제가 전한 설교를 책으로 출판하려니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동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권유로 용기를 얻어 제3집에 이어 제4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펴내는 저의 설교집들은 지금까지 제가 미국 LA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에서 약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민목회 강단에서 외친 말씀들입니다.

금번 제4집에 이어 나머지의 원고들도 정리되는 대로 계속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 속에는 "절기설교"와 "이민교회 목회자 지침서" 및 "성경공부 교재"도 포함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삶과 목소리를 통하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으며, 지친 이민생활 속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

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언어가 활자화되어 더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전달될 때, 강단에서 선포될 때와 똑같은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께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여러 동역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읽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전도용으로 불신 이웃들에게 전해져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히 이 책을 내놓습니다.

이 설교집을 내도록 도와 주시고 용기를 주신 동양선교교회 정문섭 장로님과 설교를 글로 잘 정리해 주신 남진주 사모님, 교정을 보아 주신 이기홍 목사님, 이정근 목사님, 그리고 최선호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성껏 출판을 해주신 쿰란출판사의 이형규 장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온 성도님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 11월 10일

LA 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 **임동선**

목차

추천사 • 이기홍 목사 2
머리말 • 임동선 목사 5

복된 삶

복 있는 사람(시 1 : 1~6) 12
후히 주시는 하나님(약 1 : 4~5) 28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가지 복(계 1 : 1~3) 42
인간 혁명(눅 8 : 26~39) 58

성령 충만의 삶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행 2 : 41~47) 74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신앙(행 2 : 1~4) 87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 : 15~21) 103
고넬료의 가정성회(행 10 : 1~8, 44~48) 118
크리스천의 용기(행 4 : 13~22) 135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안(요 20 : 19~23) 150
우리의 피난처(시 46 : 1~11) 167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자(요 14 : 25~27) 180
정신적 불황을 극복하자(왕상 19 : 1~8) 195

역경 속의 기쁨

역경의 은총(롬 5 : 1~6) 210
환난 날의 신앙(시 27 : 1~6) 227
희망의 하나님(출 13 : 18~22, 고후 1 : 8~11) 243
시련 속에서 얻는 기쁨(벧전 1 : 3~7) 259

더불어 사는 삶

만남의 중요성(마 4 : 18~22) 276
물질에서의 자유(딤전 6 : 17~19) 292
복을 사명으로 알자(에 4 : 4~17) 308
하나가 되라(요 17 : 11, 21~22) 321

사명의 재인식

법궤를 메고 가는 두 암소(삼상 6 : 10~16) 338
한 번만 주신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유 1 : 1~4) 351
흩어진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약 4 : 13~14) 367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라(행 3 : 1~15) 386

복된 삶

복 있는 사람(시 1 : 1~6)

후히 주시는 하나님(약 1 : 4~5)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가지 복(계 1 : 1~3)

인간 혁명(눅 8 : 26~39)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복 받고 사는 것인데, 이는 오대양 육대주에 사는 모든 인류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 받은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온 우리 교포들도 한국에 살 때보다 미국에서 더 복 받고 살기를 원하고, 또 '나는 미국에 온 초기 이민 1세이기 때문에, 개척자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복 받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부모님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사는지에 대해,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간단하면서도 명백하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고, 복을 받기 위해 꼭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우리가 잘 실천하면 누구나 복을 받는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확약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첫째로 복을 받기 위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세 가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고, 둘째로 복을 받기 위해 꼭 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입니다

(1) 악인의 꾀를 좇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악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스탈린이 악인입니까? 마오쩌둥이 악인입니까? 김일성이 악인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성경 원어를 살펴볼 때 민첩한 사람, 활동이 예민한 사람, 혼란한 사람,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꾀도 많고, 말도 잘하고, 행동도 민첩하고, 기동성이 있는 사람, 즉 선에 대해서가 아니라 악에 대해서 이렇게 꾀가 많고, 활동적이고, 민첩하고, 기동성 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악인은 특수한 개인 한 사람을 꼭 집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 의인의 생활을 경시하고, 그것에 대립하는 사람을 총칭해서 악인이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탈선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총칭해서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밀접하게 지내면 우리 신앙에 유익보다는 많은 손해가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옛말 가운데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훌륭한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칠 때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말아라, 창파에 고이 씻은 몸 더러워질까 하노라."했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처럼 친구를 잘 사귀어야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사상과 인격과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를 가지면 죽을 곳에서도 살아나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죽지 않을 곳에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십대 청소년들 가운데 좋은 친구를 사귄 사람들 중에 좋은 생각, 좋은 습관, 좋은 책, 좋은 음식, 좋은 생활, 좋은 뜻을 가지고 공부해서 결국 좋은 학교에 들어가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친구를 사귄 사람들 중에는 거기에 어울려 나쁜 행동을 하다가 잡혀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또, 나쁜 친구를 사귀었다가 죽은 젊은이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친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잠 18 : 24).

참 친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하천풍언 선생이 인도를 방문하여 간디를 만났을 때, 간디가 그에게 "당신은 일본에 친구가 몇 사람 있소?" 하고 물었더

니, "셋입니다."라고 대답하니 간디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한 사람, 실업가 한 사람, 대학 교수 한 사람이오."라고 대답하자 간디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방에서 나가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간디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내가 알기는 당신의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알았는데 무슨 친구가 그렇게 서넛이나 된단 말이요?" 하였답니다.

참 친구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그에게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어주는 친구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60이 넘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에는 소꿉친구가 있고 커가면서 학교 친구, 사회 친구가 있지만 참 친구는 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 아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제 생의 산 간증입니다. 세상 친구는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밝을 때는 그림자가 있지만 어두울 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내가 배웠고 건강하고 직업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즉 내 인생이 환할 때는 친구가 있지만, 내가 실패하고 늙고 병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는 친구가 없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발람은 모압 나라 왕 발락이라는 좋지 못한 왕을 친구로 사귀어서 그의 꾀, 간교, 뇌물에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에는 축복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가는 결국 멸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2)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는 악인의 꾀를 좇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통 세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반역자' '불법자' '과녁을 맞추지 못한 자' 를 가리킵니다.

첫째로 '반역자' 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성령을 반역하고 예수의 교훈과 진리, 양심을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사 43 : 27).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법자' 는 '구부러지다' '법에 어긋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 : 22~23).

위의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즉 권능을 행한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처자나 자기를 위해, 또는 물질과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세금을 신고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세금은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거짓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은

제대로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살려면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부통령도 세금을 잘못 내서 쫓겨나고, 이번에 여성 부통령으로 출마했던 사람도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은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조금 덜 먹고, 새 옷을 조금 덜 사더라도 세금은 정확하게 내야 합니다.

세금은 어디에 쓰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방을 위해, 도로를 고치기 위해, 교육을 위해 쓰이고 또한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매달 300달러, 400달러, 500달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세금은 좋은 데 쓰이는 것이고, 노인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도 늙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테니까 세금을 잘 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과녁을 맞추지 못한 자' 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빗나간 생활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도둑질하고, 살인죄와 간음하는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말은 그런 사람과 같이 의논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의리를 지키고 평화스럽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소유물이 많아지자 한 곳에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가축의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자 아브라함이 따로 살기를 제안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롯은 보기 좋은 환경을 선택하여 소돔 땅에서 잘 살았

지만,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성은 간음과 죄악이 성행한 곳이라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성 사람들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 유황불 심판은 무겁고 큰 심판이기에 그 자리가 패여 물이 고여서 지금의 사해, 소금바다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때의 그릇조각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섰기 때문에 그의 소유를 모두 잃었던 것입니다. 가구와 육축도 잃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눈에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물질만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영적인 것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좇지 말아야 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아야 합니다.

(3)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는 자기를 절대시하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낫게 생각하며 그 누구보다도 자기를 제일로 여겨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 '오만' 은 거룩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양심적인 것, 진실한 것을 비웃는 태도입니다. 즉 오만한 자는 자기 절대화가 신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에게 굽힐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 성도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그대로 행동해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고, 단체생활과 사회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야 하고, 일부러 져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성격이 아주 고약하고, 남들에게 지는 것을 싫어해서 키가 크고 아주 기운이 센 형님에게까지 이기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둘이 마당에서 씨름을 했는데 열 번을 지면 열 번을 일어나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형님은 나중에 해가 지면 일부러 저에게 져 주곤 하셨습니다. 그 형님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세 살 위인데, 인품도 아주 좋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학벌이나 문벌이 없고, 돈 버는 것이 시원찮아도 남자는 남자라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남자라면 누구든지 남자로서의 역할이나 구실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아내가 지혜롭고 학식 있는 여자라면 "당신 말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만약 그 반대로 "여보, '공자님도 불치하문'이라고, 공자님도 모르는 것은 아랫사람에게라도 물어보라고 했는데, 내 말 좀 들어. 알았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한 사람은 형제의 마음에 피나는 상처를 주고도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고, 싸매 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잠언에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1 : 22),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3 : 34),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19 : 29).

또한 시편 5편 5절에는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평복을 입고 어떤 주막집에 가서 앉았는데, 어

떤 사람이 오만불손하게 앉아 있기에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니, "왜 물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왕은 알고 싶어서 물어본다고 했더니, 그는 "나는 군인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군인이면 하사관입니까?" "조금 더."

"그러면, 상사입니까?" "조금 더."

"그러면, 중위입니까?" "조금 더."

"그러면, 대위입니까?" "그래."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별것도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사람이 "너는 직업이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도 군인이야."라고 대답했습니다.

"계급이 뭐냐?" "맞춰 봐라."

"대위냐?" "조금 더."

"그러면, 소령입니까?" "조금 더."

"중령입니까?" "조금 더."

"대령입니까?" "조금 더."

"소장입니까?" "조금 더."

"중장입니까?" "조금 더."

"대장입니까?" "조금 더."

"그럼 뭡니까?" "나는 알렉산더 왕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좌석, 거주지, 회중을 말함)에 앉지 말라는 것은 오만한 자가 있는 좌석에 섞이거나, 얘기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거나, 그들의 가치관을 본받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에 어떤 파티에 오라고 해서 가면 사람들이 저에게 술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제가 술을 먹으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미안하지만 다른

것을 마시겠다고 한 뒤 슬그머니 빠져나오곤 합니다. 우리 성도는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모세를 따르던 사람인데 천성적으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명예심이 강했습니다. 그는 모세를 못마땅하게 여겨 반역하기 위해 당을 조직해서 250명을 간부회로 모아 17,400명을 부하로 거느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땅을 갈라 고라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에녹이고, 죽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은 고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라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재산, 그에 속한 사람, 250명이 다 땅에 들어갔고, 그를 따르던 17,400명이 다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감옥에 넣고 죽였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히틀러를 따르던 사람들은 한때는 폴란드, 유고슬로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멀리는 러시아까지,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아프리카까지 진군하더니, 종국에는 오만한 히틀러를 하나님이 한번 치시니까 그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수많은 청년들과 비전투원까지도 독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한 사도가 한번은 대중탕으로 목욕을 하러 갔는데, 이단자 한 명이 거기 앉아서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요한은 나오면서 "벼락이 떨어질까 무섭다." 하며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복을 받으려면 악한 자와 더불어 의논하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

습니다. 여기서 죄는 성도를 유혹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성도를 유혹해서 따라오라고 하고, 그 자리에 서라고 하고, 앉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의에 동의하라, 불의에 동행하라, 불의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불의에 동의, 동행, 동참하라고 할 때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하 영웅인 삼손은 질질 끌려가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두 눈이 뽑히고,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성도는 불의에 대해 과감히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영국 웨슬레의 어머니인 수산나는 훌륭한 여성입니다. 아이를 열아홉 명이나 낳아 넷은 죽고, 열다섯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여 아이들을 학교에 못 보내고, 자신이 직접 아이들 시간표를 짜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고집이 센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수산나가 교육을 시키려고 숯불 꽂은 것을 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싫다고 했습니다. 수산나는 이제 숯불이 다 식었으니 안으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손과 가슴이 더러워져서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수산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 네 몸은 타지 않지만 네 손과 가슴에는 때가 묻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음을 느슨하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재판장인 것처럼, '이것쯤은 괜찮을 거야.' 하고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금을 긋지 않고 사는 신앙생활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디가 죽은 지 이미 오래 되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를 존

경하는 이유는, 그는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대영제국의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인도에서 개업을 하면 돈방석에 앉았을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여러 번 좋은 조건의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중과 함께 고난받고, 인도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감옥에서 2,338일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돈, 명예, 지위, 안일도 중요하지만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과 성도는 선을 긋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동양선교교회의 담임목사로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돈을 줄 테니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돈을 탐냈다면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정은 딱하지만 돈 받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인회에 출마하는 데 밀어달라고 하면서 돈을 한 뭉치 가지고 온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주면서 목사는 그런 돈 받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금을 긋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 복을 받기 위해 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1)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 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즉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는 말은 좋아한다는 것이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말씀대로 살려고 소원에 불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소원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8장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겨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심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사 1 : 10).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 6 : 6).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112 : 1).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시 119 : 72).

이 시편 기자는 참 위대합니다. 우리는 미국생활을 하면서 달러를 더 좋아합니까, 성경을 더 좋아합니까? 솔직히 달러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천천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므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여름철에 개가 목이 말라 혓바닥을 내놓고 헐떡이는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헐떡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 명인들의 명언이 있습니다. 워싱턴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세상을 바로 다스릴 자가 없

다."라고 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성경은 인류에게 말해진 가장 진실한 발언이다."라고 했습니다. 페드릭 핸리는 "성경은 지금까지 인쇄된 서적 전체에 대응된다."라고 했습니다. 뉴턴은 "성경은 가장 확실한 진리의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스튜어트는 "인류 진보의 희망과 부단한 성장은 성경의 감화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슈바이처에 대한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는데, 그의 저서 「나의 생애」라는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덟 살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내 소원을 들어주어 성경책 한 권을 주셨다. 나는 성경을 매일 열심히 읽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 놓았다면 그것은 성경의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슈바이처가 인류와 평화를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여덟 살 때 성경을 읽은 까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에이브러햄 링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너무나 가난하여 링컨에게 남긴 것이 단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성경 한 권입니다. 링컨은 그 성경을 열심히 읽어 닳고, 너무 줄을 많이 쳐서 성경이 새까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민주사상, 고결한 인격, 용기, 위대한 일의 성취는 이 성경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면 이 성경을 좋아해야 합니다. 자꾸 읽어야 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호수아, 남전도회, 장년주일학교, 또 뒤에서 베델성서, 장년공부 등을 통해 참 유능한 분들이 많이 준비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끝나고 성경을 배우고 돌아가셨으면 하

는 점입니다. 부득이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돌아가셔야 한다면 다른 날 성경공부를 하시고, 또 집에서도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밤낮 그 생각을 하듯이 성경을 밤낮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고, 또 자다가 깨어서도 성경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보니까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담배를 피웁니다. 얼마나 담배 피우는 일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담배처럼 사랑한다면 효자비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자다 깨서도 성경을 묵상하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묵상'이란 말에는 '탄식하다' '소리내다' '경영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나는 이렇게 못 했으니 마음 아프다는 것이고, 소리내서 읽으라는 것이고, 이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시 119 : 97).

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종일 묵상해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봉사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딤후 3 : 16~17) 책이기 때문입니다.

심히 낙심될 때가 있으면 시편 27편을 보십시오. 마음이 식어졌

으면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십시오. 고독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면 시편 91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몹시 비방하거든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일이 고달프면 시편 126편을 보십시오. 마음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거든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오.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생기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끝으로, 유명한 사상가요 세계적인 작가인 존 러스킨은 "내가 쓴 책에 어떤 공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께서 매일 어떤 성경 부분을 읽어 주시고, 그것을 암송하라고 하신 그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사상가가 되고 싶습니까? 훌륭한 시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훌륭한 문인 작가가 되길 원하십니까? 훌륭한 교육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성공한 실업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류애에 불타는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면 일반 서적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읽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본문 3절에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운 것같이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만사가 형통한다고 했으니, 말씀대로 살아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4~5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제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새로 신축한 교육관 개관 예배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는 새로운 큰 기쁨을 맛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육관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본문 5절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때 없어서 못 줄 때도 있지만, 인색해서 못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까닭에 무엇이나 구하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후히 주시는지를 살펴본 후,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지 그 후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것입니다

(1)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성경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시 86 : 5)라는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일시적인 과오(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후 눈물 흘려 자복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다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도 폭발' 공부를 하러 가서 1주간을 지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에 만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고 스쳐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교회와 영혼들을 생각하고, 가족과 교포와 나라를 생각하고 이만한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어서 감람나무, 밤나무, 만두, 일본 생각 등등 휘휘 만 가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으로나 하루에 세 가지만 죄를 짓는다면 1년이면 천 가지 죄를 짓는데 열 살이면 만 가지 죄를 짓게 되고, 스무 살이면 2만 가지, 서른 살이면 3만 가지, 쉰 살이면 오만 가지 죄를 짓습니다. 제가 예순다섯인데 그러면 저는 6만 5천

가지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죄 짓지 않고,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온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롬 3 : 10).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진리가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롬 6 : 23, 엡 2 : 8~9). 오직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과 인자와 사랑과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2) 지혜를 주심이 후하십니다.

본문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식과 지혜, 계시와 이성, 문화와 문명은 서로 다릅니다. 이 지식은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고, 지혜는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슬기를 말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낫습니다(잠 8 : 11). 지혜는 금보다 귀합니다(잠 16 : 16). 또한 지혜는 홍보석보다 귀합니다(욥 28 : 18).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은을 갖는 것보다, 금을 소유하는 것보다, 보석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3장 13~15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웃 가드라는 나라로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얼른 알아봤습니다(삼상 21 : 13). 이스라엘 나라의 너무나 유명한 명장이며 용감한 자로서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도 여러 번 승리한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나라 임금에게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는데 이때 다윗이 지혜를 짜냈습니다. 입에서 거품을 뿜고 침을 흘리면서 완전히 미치광이 노릇을 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완전히 미친 사람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드 왕, 아기스는 우리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미친 사람을 데려 왔느냐면서 다윗을 내쫓았습니다.

한국전쟁 때 포위를 당하거나 혹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 갔을 때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후히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 주시는 일에 후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 : 38).

남에게 웃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봉사하고, 물질적으로 도와 주고, 시간적으로 도와 주고, 뭐든지 이타적 정신을 가지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후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쌀가게를 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손님이 쌀이나 여러 곡식을 사러 올 때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빨리 퍼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양이 덜 들어간답니다. 그것이 기술이랍니다. 그저 조금씩 긁어서 주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말에다가 넣어서,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 7 : 7~11).

벳새다 광야에 배고픈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이 바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셨을 때 오천 명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마 14 : 19~20).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 일에 후하십니다.

(4)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십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딤전 6 : 17).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 : 1).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다윗이 백발이 되어 이젠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와서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벌거벗고 왔지만, 항상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집을 주시고, 부귀영화, 처자 등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도 폭발' 훈련에 참석하여 사흘 동안 밤마다 이 집 저집 다니면서 전도 실습을 했습니다. 어느 미국 사람 집을 가게 되었는데 다녀 보니까, 물론 서민들이 사는 동네였지만 아주 못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저를 이틀간 데리고 다녔던 처자 두 분의 형편만 따져 보아도 가난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오래되어 털털거리는 정도가 심했고, 피아노도 없고, 텔레비전은 아주 조그마한 것이었고, 가구도 변변치 않았을 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에게 복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갓 이민 온 분들이야 아직 자리를 못 잡았지만, 여기 와서 10년 정도 지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집 한 칸 장만하고, 피아노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는 두어 대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어려운 사람도 물론 많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안정된 사람들도 많기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자함이 후하시고, 지혜를 주심이 후하시고, 주시는 일과 모든 것에 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후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요셉의 쌀 창고에서 쥐가 굶어 죽었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은 부요하신 아버지이신데 아직까지 빈곤하게 산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보다도 내 책임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또는 노인 단체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나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여 모든 기관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의 정보나 정부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주정부와 카운티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한 쇼설워커들의 구성원 중 한국 사람이 적은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단체도 다른 나라 노인단체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후히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후한 것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후하게 받지 못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후히 받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딤전 6 : 17).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에모서는 "너희들의 소망의 닻줄을 저 높은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에 매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초가 튼튼한 곳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유동성이 없는 곳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가 있는 곳에, 영원성이 있는 곳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물질은 새와 같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건강과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지면 망신을 당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가치 있고 영원성이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그 동안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의인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욥 1 : 1).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다 죽고,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에는 머리에서 발 끝까지 욕창이 나서 진물이 흐르고, 아내는 도망가는 등 갑자기 인생의 실패와 역경과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희망을 잃지 않고 신앙으로 헤쳐나갔습니다. 그는 역경의 밤이 왔을 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 : 21)라

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신앙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욥과 같은 복을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자녀 10남매가 하루 잠시 동안에 유언도 하지 못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죽어 버리고, 재산도 모두 날아가고, 욕창이 났을 때 제일 필요한 아내마저도 도망친 상황에서 욥은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것이 명백하다며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둔 자도 하나님이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이런 신앙, 소망을 가질 때 결국 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자녀와 재산도 갑절로 후히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후히 받습니다.

(2) 기도하는 자는 후히 받습니다.

다윗은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시 86 : 5)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지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에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그는 일생 동안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외가 결혼해서 100년 이상을 해로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병만 해도 318명을 거느렸고 많은 노비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여 오늘 모

든 아랍 족속과 유대인과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직접, 간접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 자손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야곱, 다윗,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탄생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았으니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아랍 족속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유대인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가톨릭 신자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신교도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벧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벧엘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창 12 : 7~8),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창 13 : 4),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창 13 : 18).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보따리를 내려놓고 풀기 전에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복을 받았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바위에 입을 맞추고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번에 이정배 장로님께서 건축위원장으로 위원들과 같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어른이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

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섬기시는 순복음교회를 장로님이 지었는데, 그 당시는 조용기 목사님의 연륜도 짧고, 신자도 많지 않고, 부자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맨 땅바닥에 거적을 깔고 벌벌 떨며 밤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로 교회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겨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3) 마음을 옳게 먹으면 후히 받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 : 23).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결혼할 때 학벌을 보고 결혼합니까? 문벌을 보고 결혼합니까? 미모를 보고 결혼합니까? 능력을 보고 결혼합니까? 인물이 좀 못생겼어도 마음이 고우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산 위에서 천국의 대헌장을 말씀하실 때, 첫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 : 3~5)였습니다. 마음을 바로 쓰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 임금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에게 건강, 장수, 부귀를 귀하거나 원

수를 갚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혜와 더불어 건강과 장수, 부귀 등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즉 마음을 바로 쓸 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깨끗하게, 겸손하게, 넓게, 똑바로 가지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4) 남에게 주는 자는 후히 받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 : 12).

즉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 : 38).

하나님이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이세벨을 두려워하며 피해 있을 때,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그곳은 사르밧이라는 시돈 땅이었습니다. 성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한 젊은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자에게 떡 한 조각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여자는 "우리 집에 떡이 없습니다. 한 움큼 되는 가루로 떡 해먹고 죽으려고 나무를 해가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여인아,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나중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밀가루 통에 가루가 계속 차는 것이었습니다. 만들어 먹고 나면 또 다시 채워지고, 기름병에도 기름이 계속 찼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순종하며 믿는 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를 복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집사 내외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선교 헌금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집 아이들이 둘인데, 세 살 먹은 아이 몫으로 선교 헌금을 몇 해 동안 지금까지 10달러씩 바치고 있습니다. 이젠 한 살 된 딸까지 선교 헌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헌금입니까? 그 집 어린이가 건축 헌금도 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와 그 자녀의 헌금은 인도나 아프리카, 한국의 도서에 가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이들은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어제 교육관에 들어가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2층 엘리베이터 옆에 큰 동판을 해서 만든 것을 보고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후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묻기를 왜 이 건물을 지었냐 하거든, 그때 그들에게 알게 하세요. 그대의 조상들이 이국 땅에서 믿음의 유산을 전하기 위해 땀 흘리며 세운 집이라고."

부목사님도 그 앞에서 울었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동판 앞에서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어제 전부 돌아보고 나서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몇 해 전에 쓰던 교육관, 지금은 새 교육관을 지은 그 자리는 가구점이었습니다. 28만 달러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다 하고 카펫을 깔고, 제가 심방 갔다가 밤늦게 혼자 돌아와서 그 카펫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육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린이들을 잘 교육하며 훈련시켜 훌륭한 일꾼을 많이 배

출하게 해달라고 눈물 흘려 기도했는데 이번에 10배 더 좋은 건물을 주셨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든든히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바로 먹고 어려운 사람을 계속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 교육관을 지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백만 달러 들여서 이민교회가 교육관을 짓는데 한국이나 유럽으로 선교 헌금 보내는 것을 중단합시다. 좀 보류합시다. 발등 앞에 떨어진 불을 끈 다음에, 이것 지어 놓고 형편 되면 그때 도웁시다."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의 교훈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복 받는 것은 주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니까 선교 헌금을 중단하면 복이 떨어집니다. 더 이상 늘리지는 못해도 주던 것은 계속 주어야 합니다. 교육관 짓는 것이 예정보다 좀 늦어지고 더디다 하더라도 주는 건 계속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계속 선교 헌금을 드렸더니 어느 해보다도 작년에 예산이 초과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가 분명히 복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교포적으로나 새 땅에 와서 받은 복이 많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신령한 복,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바로 먹고, 바로 쓰고, 어려운 사람을 계속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받은 것 이상으로 몇 배의 후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가지 복

요한계시록 1장 1~3절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은 정월 초하루, 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가지 복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주후 96년경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밧모 섬이라는 곳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 그는 그곳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여기 보면 일곱 가지 복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읽는 자와 듣는 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읽는 자'란 혼자 성경을 읽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회중 앞에서 대표로 성경을 읽는 사람을 말합니다. 옛날 유대교에서는 성경은 한 사람이 읽되, 일곱 사람을 뽑아서 교대로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읽는 시간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다른 것은 다 양념에 불과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만 여러 장 읽고 예배를 마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눅 4 : 16).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약성경을 읽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행 13 : 15).

이것은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을 때에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대통령의 글을 대독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물며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찌 그 말씀을 대표해서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 듣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말로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은 복입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모든 평신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원서를 가지고 신부들만 읽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평신도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를 비롯한 여러 개혁자들이 실제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자기 나라로 가지고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귀중한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 성경을 가져오고, 성경을 번역한 신앙의 선배들로 인해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언제든지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둘째,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는 죽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죽지 않으려고 하고, 죽지 않기 위해 갖은 애를 씁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고, 가려서 먹습니다. 그러나 소고기, 돼지고기, 기름기 있는 음식 등을 가려 먹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은 죽습니다. 사고가 나서 죽든지, 병이 나서 죽든지 합니다. 또 요즈음 사람들은 운동을 해서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는 죄 문제, 그리고 고통 문제, 마지막 한 가지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평등한 것입니다. 절대적이며 극비적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한 번은 있는 것인데, 이왕이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에겐 죽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는 "신의 장막을 벗었다."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의인이 화를 피했다." "제2의 탄생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죽음은 육신의 터널을 지나서 광명한 새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 육신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의인이 화를 피했다, 눈물의 골짜기, 땅의 황화수, 피로 물들인 땅, 죽음의 바다에서 해방을 맞았다, 그 다음에 제2의 탄생을 입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인류 역사를 들춰 보면 이름 있는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긴 말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값싼, 부끄러운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무신론자 기브온은 "모든 것이 캄캄하구나." 홉슨은 "나는 캄캄함에 뛰어 들어간다." 프랜시스 뉴 폴트는 "하나님의 사랑

이 그렇구나." 니체는 "모든 것이 틀렸구나." 일본의 통조 수상은 "나무 아미타불" 하고 죽었는데, 이 죽음에 대한 마지막 말들은 분명치 않습니다. 담대하지 않습니다. 생의 개가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유언도 아닙니다.

어떤 수전노는 죽을 때 돈 궤짝을 쳐다보며 "저놈의 돈!"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들려 주신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돼지고기를 팔아 집도 여러 채 장만하고 부자가 된 할머니가 있었는데, 죽을 때 아들, 딸, 손주, 며느리 모두 모아 놓고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라."였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은 성도의 마지막 말은 아름답습니다. 무디는 "땅은 물러가고, 하늘은 열린다." 요한 웨슬레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이여." "만세반석 열리니"를 지은 포펄라는 "내 영혼 속에서 이미 하늘나라를 맛본다." 요한 안드레는 "하늘에서 수레가 내려왔으니 나는 수레를 타고 가리로다." 마틴 루터는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말들은 정말 멋진 말들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생의 개가를 부른 위대한 유언들입니다. 저도 나이가 63세가 되어,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 남길 유언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위기에서, 아주 절박한 극한 상황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태도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까지 많은 죽어 가는 사람을 민간 목회에서, 공군 군목 11년을 하면서, 미국에 와서 봤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 고민이나 원망을 많이 하고, 자식이 돈이 아까워 약도 안 사준다는 이야기도 하고, 아주 괴로워하며 죽어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찬송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다가 자는 듯, 그 얼굴이 오뉴월 복더위에 칠일장을 지내지마는 냄새도 전혀 안 나고, 화장한 것처럼 가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함을 느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셋째, 주의 재림을 위해서 깨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도적은 통지하지 않는다는 것, 어두운 밤에 온다는 것, 가장 사람들이 피곤해서 깊이 잠들었을 때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13절에 보면 열 처녀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기다렸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 열 처녀가 다 잠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 오신다 하면서도 2천 년 동안 오시지 않았으므로 설마 지금 오시겠나 하고 방심하고, 돈과 향락, 세상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다면 어서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잠을 잘 때,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켜서 맞이했는데 나머지 다섯은 기름이 없어서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육신은 잠을 자더라도 영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하면서, 또는 성령은 깊고 오묘한 것도 통달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해와 달과 날과 시간까지 안다고 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 듣고 순진한 신자들이 아이들을 학교도 안 보내고, 장사도 안 하고, 있는 것 다 팔아 나누어 주고 하다가 그날에 목욕하고, 흰 옷 입고, 밤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시지 않자 신자들이 왜 안오시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어젯밤에 새 계시를 받았는데 그 날짜가 조금 연기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가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마 24 : 32). 이 모든 징조를 보고 인자가 눈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시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일이 세상에 나타나거든 인자가 눈앞에 온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 이란 24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즉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흉년이 들고,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교회가 핍박받고, 질병이 많고, 악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지식이 발달되고, 일월성신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때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란 기독교 신문을 보면 과거에는 시날 광야에서는 흙을 가지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현대에는 인간의 지식이 자아낸 과학 물질 문명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 바벨탑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보니까 인간들이 인공위성을 만들어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노여워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저는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인간 지식이 발달되고, 교통수단을 이용해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이상한 꿈을 꾸고, 세계가 두 갈래로 갈라지고, 예수님이 전파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고, 6천년이 차가거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 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눅 21 : 34~36).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성봉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걸어다니면서 가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구름을 쳐다보면서 "주여, 저 구름을 타고 오시나이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주와 더불어 호흡하고, 매일 주와 동행하고, 항상 오른손은 꼭 쥐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깨어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넷째, 어린양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계 19 : 9).

이 유대인의 사상은 메시아가 다시 올 때 큰 잔치를 하고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메시아 사상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사 25 : 6)라고 하였으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마 8 : 11)라고 천국 잔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석가 포펫은 말하기를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신부로서 충성된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마 25 : 23).

이 주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고 초청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많이 참석합니다. 결혼식 날에는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부모님들, 양가 친척들이 기뻐하고 축하하러 온 모든 하객들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국 농촌의 결혼식장에 가보면 초청받지 않은 사람도 결혼식장에 와서 음식을 얻어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면서도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동네 강아지도 다 와서 먹을 것이 생겼다고 꼬리를 흔들면서 기뻐합니다. 어쨌든 잔칫집은 기쁨

이 충만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두말 할 필요 없이 신랑, 신부가 제일 기뻐합니다.

참 못생기고, 죄 많이 짓고,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보통 축하객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고 신부로서 택해 세워 주셨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떤 운동 선수가 다른 나라에서 대회를 마치고 승리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때, 온 국민이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다가 음식을 차려 놓고 극진히 그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상금도 주고, 어떤 경우에는 훈장도 주곤 합니다. 한 나라의 수반이 초청한 식탁에 앉아도 기쁨이 그렇게 큰데, 장차 예수님의 하늘나라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섯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예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계 20 : 6).

여기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은 세 가지 특권을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즉 둘째 사망이 없고, 제사장이 되고, 천 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둘째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영혼의 죽음, 둘째는 육신의 죽음, 셋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영혼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안 믿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주어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부활에 참석한 사람은 둘째 죽음을 면하고 제사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라틴어 원문에 '다리를 놓는 사람'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소개하는 사람, 인간들의 모든 정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정보를 인간들에게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부활에 참석한 사람은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천 년 왕국을 건설하실 때, 정의의 왕국을 건설하실 때, 그들도 왕 노릇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코스가 20년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중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왔다가 고기 맛을 보면 산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우리는 장차 애쓰지도 않고, 돈 쓰고 유세하지도 않고, 남을 비난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천 년 왕국을 건설하실 때, 우리는 왕 노릇을 할 것입니다.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백악관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불러 역사의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언제 인간의 역사가 끝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빌리 그레이엄은 서슴지 않고 역사의 흐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고 있고, 인간 역사의 종말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건설하는 날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악이 점점 성해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이라도 삼키

려고 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마귀는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불의한 자가 다 없어집니다. 사단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거룩한 자들만, 구속(롬 7 : 19, 24)받은 자들만, 이 세계에서 천 년 동안 왕 노릇을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계 22 : 7).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봉독한 그대로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성경만 읽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만 해도 안 됩니다. 성경을 암송만 해도 안 됩니다. 성경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에 옮겨야만 참 성도요, 주께서 기뻐하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 : 21)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마음이고 하나는 육의 마음입니다. 이 육신은 자꾸 나쁜 쪽으로만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영의 마음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하면 안 된다.' 라고 결단을 내리고 따라갈 때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 : 19, 24) 하다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구별되이 살아야 합니다. 갈 데, 안 갈 데, 먹을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설 자리, 서서는 안 될 자리, 누울 자리, 눕지 말아야 될 자리, 이것을 구별하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 : 17) 했습니다.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성도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시인이나 문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이 신부와 목사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생활과 도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성' 자를 붙여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았다면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로마서 2장 21~25절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즉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세례 교인이 중요하냐, 세례가 중요하냐, 곧 당신이 세례 교인답게 살아야 세례 교인이지, 세례 교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 세례나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십일조도 잘 바쳤습니다. 또한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겸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목사는 현재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만 설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회 대중에게는 누가 설교합니까? 목사 혼자 다니며 설교하지 못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로, 생활로 전하고 실천할 때, 이것이 대중을 향한 산 설교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원인은 그들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뒤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곱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 22 : 14).

신부는 흰 드레스를 입습니다. 이는 서양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렇다면 서양 문화는 어디서 왔습니까?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라고도 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계 19 : 8)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요

구하시는 것은 그 바깥에 보이는 물질의 옷도 깨끗해야겠지만, 마음속의 하얀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하루, 한 달, 일 년이라는 날을 정해 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착한 행실을 해서 이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여 하얀 세마포를 입고 오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며 그를 신부로 영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누와 물을 주고 세탁하라 하여도 그 사람이 세탁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소를 우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이고, 안 먹이는 것은 열 사람이라도 못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믿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장정만 육십만 삼천 오백오십 명인데 광야에서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모두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묻은 것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마음속에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계시를 받아 일곱 가지 복을 말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부활에 참예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빠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정월 초하룻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김질해

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현세적인 값싼 복이 아니라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받아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혁명

누가복음 8장 26~39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주일을 제외한 그 전의 40일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닥쳐올 고난의 절정인 수난주일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며 40일 동안 성도들은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다른 때보다도 더 절제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시간들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거라사 땅에 사는 한 젊은이가 군대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에 기거하는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땅은 갈릴리 호숫가 동쪽에 있는 언덕, 골짜기 무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라사의 군대귀신 들린 사람이 현대인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통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게 내던져진 이 사람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 그를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불쌍한 영혼을 보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귀신들린 사람을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이켜 준 것은 부활의 역사, 즉 인간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거라사 사람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 사람에게는 인간 혁명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병 고침을 받기 전,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상태를 여덟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마귀한테 잡혀 있었습니다.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27

절),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29절).

이 사람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50억 정도의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 많은 인종,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 종류의 인간으로 분류해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습니다. 성령에게 잡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못 합니다. 마음대로 하다가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지 않을까, 성령님이 섭섭해하시지 않을까, 주님을 십자가에 내가 다시 못 박는 것은 아닐까, 하는 양심이 우리를 가책하게 됩니다. 이것은 죽은 양심이 아니라 생생하게 양심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유인 같지만, 실상은 죄에 매여 있으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울타리 속에 갇혀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도 제대로 못 가고, 먹는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조차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좁은 세계에 산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들이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술과 마약의 노예, 노름과 죄악의 노예 등 이 죄와 마귀에 끌려만 다니는 가련한 거라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문벌, 학식, 건강, 직장, 사업, 돈, 가족, 친구, 오락, 명예 등이 현대 마귀가 되어 코를 꿰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

하게 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에 참석한 후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사흘간 집회를 했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제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 주셨습니다.

애리조나에 한국인이 혼자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해 수년간 수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이제 부인과 어린 남매를 미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려고 자동차를 가지고 비행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도중 라스베이거스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라스베이거스는 호화도시, 유흥도시로서 근대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묵는데, 계획에도 없던 노름을 하다가 그만 혼자 고생하며 벌었던 수만 달러를 다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룻밤 잘 때, 또 남은 돈을 다 긁어서 노름을 하다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괴로워 자살을 기도하다가 실패해 일주일 후 호텔방에 머물고 있는 아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내와 아이들은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영어도 할 줄 몰랐으므로 일주일 동안 물만 먹고 지내서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는 한인이 5천 명 정도 사는데, 도박장에서 일하는 한국 분들이 말하기를, 도박해서 따가는 사람은 백의 하나, 천의 하나 정도이며, 여기 와서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거의 다 잃고 간다고 합니다. 따는 사람은 중국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절제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할아버지는 노름을 하다가 350만 달러까지 땄는데, 더 욕심이 생겨 계속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온 돈까지 몽땅 잃고 세금만 50만 달러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스베이거

스에서는 도박이라는 귀신이 많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치 이 거라사 청년이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2)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거라사 청년은 귀신이 들려 그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과 동네에서도 그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마귀가 거라사의 광야로 끌고 나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들린 사람은 집을 뛰쳐나갑니다. 정상인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집은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휴식하는 곳입니다. 사랑의 동산이요, 대화의 장소요, 내일을 위해 힘을 축적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집을 뛰쳐나가 광야 무덤가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신은 이 방법으로 많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한국에서도 젊은 십대 남녀들이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단으로 집을 뛰쳐나간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 많이 봅니다. 여기 로스앤젤레스도 그렇습니다. 십대 아이들이 학교도 안 다니고, 어디를 가는지 말도 안 하고 나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아이 어머니도 나가고 남편도 나가 버리고, 어떤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나갑니다. 마귀는 많은 사람을 평탄한 길과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죽음의 길로 나가게 합니다. 그 사랑의 보금자리와 하나님의 제단에서 떠나서 저 세상으로 뛰쳐나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떤 자극, 어떤 유혹에 빠졌는지, 하나님의 집에서 뛰쳐나갑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안 나오고, 어두운 곳에서 머뭅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리는 넓지만 청년들이 없습니다. 연로한 노인들만 있어 교

회를 자꾸 합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시 84 : 10)이라고 했는데, 미국인이나 우리 한국인들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뛰쳐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탕자라고 했습니다. 탕자는 양의 우리에서 떠나서 악한 짐승에게 잡혀 밥이 된다고 했습니다.

(3)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무덤은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썩는 냄새가 나는 곳이며 해골의 집합소입니다. 슬픔의 장소요, 공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이런 곳에서 청년은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곳에 살 수 없습니다. 귀신에게 끌려가 이 무덤 사이에서 자기도 하고 깨어 있기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0세기 후반기, 사람의 지식이 자아낸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서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 준다고는 하지만, 뜻 있는 사람들은 이 사회를 통찰하고 진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한 사상가는 "공기가 매우 오염된 시대"라고 말했고, 한 철학가는 "오늘 인류의 운명은 도마 위에 놓인 생선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느 한 신학자는 "인류 역사는 종말이 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고 있다."라고 말했고, 한 역사가는 "이 시대는 해골의 역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오늘날은 진리가 땅에 떨어졌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인정이 메말라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해골과 해골의 만남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의 만남은 이리와 이리, 전쟁과 전쟁의 만남과 같습니다. 해골바가지만 굴러다니는 무덤 속에서 사는 인간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이 영적으로 살 만한 곳이 못 되는 소돔성과 바벨론 성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4) 벌거벗었습니다.

의복과 주택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필수 조건입니다. 의복은 몸을 보호하고, 인격을 나타냅니다. 의복을 통해 인간의 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옷을 다 벗어 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경거리 인간이 되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비위생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조금만 마시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만취되어 벌거벗고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함이 그것을 보고, 형과 동생에게 웃으면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쳐 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아 남의 장막에 거하면서 자자손손 일생을 보낸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벗은 사람도 잘못이고, 벗은 것을 보고 떠든 사람도 잘못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도둑을 막지 못한 것도 책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새 사람도 벗기를 좋아합니다. 또 벗은 걸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벌거벗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 : 14).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계 3 : 18).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계 16 : 15).

요즈음 신자들은 신령한 옷을 벗어 버렸습니다. 의의 옷을 벗어 버렸습니다. 성결의 옷을 벗어 버렸습니다. 수치스러운 몸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다닙니다. 이번 3월 7일자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에 오늘날 인간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벗는 걸 좋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것이 인생과 인류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5)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28절).

여기에 이율배반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존경하는 것처럼, 또 경배하는 것처럼 해놓고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불신자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착한 자, 인격자, 성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카드를 주고받고, 장식을 하고, 파티를 하고,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자기 마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과 사업체에 있으면 돈을 못 벌고, 내가 마음대로 놀지 못하므로 나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라고 합니다.

이 거라사 청년은 예수가 자기에게 더 가까이 오셔야만이 자기가

사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그분인 것을 몰랐습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자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 맘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술, 담배, 마약, 노름, 섹스, 사기, 폭리, 도둑질 등의 죄를 짓는 데 있어 부자유스런 존재라고 생각하며 떠나라고 큰소리를 칩니다. 이러한 자는 오늘의 거라사 청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빛의 자식은 어두움을 싫어하고, 어두움의 자식은 빛을 싫어합니다(고후 6 : 14). 따라서 죄를 짓는 곳은 모두가 캄캄하고 어두움뿐입니다.

(6) 난폭했습니다.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29절).

이는 실로 무서운 난폭입니다. 억제할 수 없는 난폭입니다. 이 사람은 안정이나 질서를 원치 않습니다. 공동체를 원치 않고 제멋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난폭함은 이 지구 전체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프리카, 중동, 베트남, 캄보디아, 남미, 중미, 일본, 한국을 비롯하여 전 공산국가들이 다 난폭한 가운데 있습니다. 치고, 박고, 쏘고, 돌로 때리고, 피 흘리고…… 거라사 귀신이 온 인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저들을 난폭에서 난폭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난폭이 있다고 했습니다. 폭력보다

도 비폭력, 무저항주의, 이것이 성경의 투쟁 방법입니다.

이 붉은 마귀는 전 세계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저나 미국 지도자들이나 미국 시민들이나 모두가 자유, 평등, 인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붉은 마귀는 날이 갈수록,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세계를 향해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0년 후에도 오늘날처럼 편하게 미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귀신이 거라사 청년을 난폭하게 만든 것처럼 이 붉은 마귀가 세계를 아수라장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7)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30절).

어떤 학자는 군단의 마귀가 들어갔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로마 군단의 수는 6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마귀가 들어가 힘이 강했습니다. 요즈음 군대마귀가 많습니다. 군인정치, 독재정치, 군벌정치 등 마귀가 집단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군인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군대가 누구에게 속했으며, 누구의 명령을 받고, 누구에게 복종을 하고,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연합군이 피 흘려 주지 않았다면 우리 나라가 독립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 와서 살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전쟁 때에 김일성이 쳐들어왔을 때 국군, 유엔군이 와서 피 흘려 주지 않았다면 여기 나이 많은 사람이 살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군대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에게 충성하는 군대인지, 어디에 속

한 군대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단지 마귀에게 속한 군대만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8) 자학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막 5 : 5).

우리의 몸은 우리들 자신의 몸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속한 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몸을 지어 주셨는데, 현대인들 가운데는 제 몸의 주인을 모르고 자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운동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과하게 해서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면 이것도 하나님께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락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은 도박도 재미로 하고 그것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꼭 돈을 벌려고 합니다. 또한 마약을 하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거라사 마귀가 들린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혁명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혁명가입니다. 파이텔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면서도 가난한 사람, 영웅이면서도 어린이, 지배자이면서도 종, 침묵자이면서도 말씀의 사람, 사색의 사람이면서도 행동의 사람, 성자이면서도 혁명가이다."

예수님은 외식의 모습을 가진 바리새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마 23 : 33)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을 고쳐 주

셨습니다. 창녀와 더불어 자리를 같이하고, 세리와 더불어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개라고 하였는데, 구로와 시돈 땅, 이방 사람의 땅에 가서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돈상을 엎어 버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수천 년을 내려오는 모세의 율법, 유대교를 뒤집어 엎어서 은혜의 종교, 사랑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로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혁명가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혁명이 있습니다. 정치 혁명, 사회 혁명, 문화 혁명, 과학 혁명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혁명이 아니라 마귀를 내쫓고, 약한 사람들을 강하고 완전하게 깨끗이 씻겨 주시는 정신적, 영적, 인간 내부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신령한 혁명가요, 인간 혁명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당시 종교가와 학자, 군인, 교육가, 의사도 있었지만 아무도 이 귀신들린 불쌍한 청년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군대 마귀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깨끗이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능치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셋째, 새 사람이 된 청년은 어떤 모양으로 변화되었습니까?

(1) 옷을 입었습니다(35절).

이 옷은 믿음으로 얻은 의의 옷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성결한 옷입니다. 왕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의 옷입니다.

(2)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35절).

잃었던 자아 의식를 회복했습니다. 잃었던 자기 실존을 회복했습니다. 잃었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것입니다.

(3)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습니다(35절).

이 모습은 제자가 스승의 발 아래 앉는 태도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발 아래 앉는 태도입니다. 환자가 의사의 발 아래 앉는 태도입니다. 신하가 왕의 발 아래 앉는 태도입니다. 여기만이 평안, 안전,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4)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38절).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 주셨으니 감사해서 함께 있기를 원했고, 또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마을에 가서 동네 사람들과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요 14 : 6). 그리고 부활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5)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39절).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다고 했으나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의 병을 고쳐 준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부모와 동네 사람에게 내쫓기고 희망의 가능성이 100% 중에서 1%도 없었던 사람이 깨끗이 나아 돌아왔습니다. 모

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셨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산 설교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도 부활했습니다. 육체도 부활했습니다. 생활도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이러한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보십시오. 도둑질한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쓰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몸을 팔았던 창녀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숙녀가 되어 예수님의 전도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했습니다.

기독교의 원수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180도 바뀌어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성경 절반을 썼습니다. 천하 부랑자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강도가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변화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저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피곤한 이민생활을 하면서도 성전에 온 것을 보니까 여러분도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변치 않는 능력이기 때문에 아직도 거라사 귀신 들린, 저 밖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오면 저와 여러분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다시 한번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들에게 인간 혁명을 일으키고, 사회 혁명까지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와 인간을 건지려 할 때 학자나 정치가, 실업가, 군인, 과학자, 유엔,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영국이 도탄에 빠질 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때 요한

웨슬레가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영국을 살려 놓은 것처럼 20세기 후반기 인류 역사가 위기에 처한 이때에, 위기에서 건질 사람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아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만, 예수 이름으로만, 피와 성령으로만, 부활의 능력으로만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인간 혁명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행 2 : 41~47)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신앙(행 2 : 1~4)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 : 15~21)

고넬료의 가정성회(행 10 : 1~8, 44~48)

크리스천의 용기(행 4 : 13~22)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

사도행전 2장 41~47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독교의 초대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120명이었던 신도들이 곧이어 3천 명으로, 4천 명으로 그리고 5천 명으로 늘어나더니 그 이상으로 많은 신도가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흥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가져온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도약의 해로 정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두 번째 되는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46절).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이루게 된 첫번째 원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하루에도 세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미국 교회나 천주교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보통 네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네거리에는 주유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네거리에 있는 교회들은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즉 언제나 들어와서 기도하라고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열심히 모이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학교도 열심히 출석 잘하는 학생이 성적이 좋습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 : 1~4).

오순절날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 : 20),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눅

11 : 29).

이처럼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요 20 : 19~20).

이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이는 데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였습니다. 결사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곳은 예루살렘 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어떠한 곳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들, 엊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씨를 없애 버리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신자들을 찾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신자들은 복판에서 열심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초기 300년은 기독교의 핍박시대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할 때, 기독교는 이방 종교라고 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수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피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 신자들은 모진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 안에서는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발각이 되어 잡히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밖으로 멀리 나가서 땅 속에 개미 구멍처럼 무덤을 사방으로 파서 그 시체를 집어넣는 곳, 이것을 '카타콤'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굴 속에 깊숙이 들어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

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꼭 안내자가 따릅니다. 워낙 넓게 팠기 때문에 출구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배드렸던 장소가 여기저기 남아 있는데, 그 앞에 설 때마다 모든 나라 신자들이 와서 그 장면을 보고 숙연해져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신자인지 잘 모르니까, 물고기 표시로 암호를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비밀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동차 앞뒤에 물고기가 그려진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 스티커 속에는 '*ΙΧΘΓΣ*' 라는 희랍어 글자가 씌어 있습니다. 이 글자는 모두 약자로서 Ί (이오타)는 예수님, '*Χ*' (크시)는 그리스도, '*Θ*' (세타)는 하나님, '*Γ*' (윞 실론)은 아들, 그리고 '*Σ*' (시그마)는 구주라는 단어의 첫 글자들입니다. 이 약자가 모여서 '*ΙΧΘΓΣ*' (익투스)라는 그리스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 단어가 바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티커를 볼 때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이것을 암호로 삼아서 성도라는 것을 표시하여 그 지하 무덤 속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얼마나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독일로부터 가끔 동유럽과 러시아에 있는 신자들의 현황에 대한 잡지를 받아 읽게 되는데, 지금도 유럽의 공산국가나 러시아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에 모이면 체포를 당한다고 합니다.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강제노동을 해야 하며, 어떤 때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래도 모인답니다. 도시 안에서가 아닌 도시 밖이나 빈 들판, 숲속, 산속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잡히면 고생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열심히 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교도의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좀더 모이는 데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 : 25)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이헌영이라는 한 소년이 김해 산골에서 살다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고아가 된 그는 부잣집에 가서 심부름하고 얻어 먹으며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점점 신앙이 성장하여서 열심히 교회 공예배에 참석하였더니 나이 20이 되어 성경도 많이 알고 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머슴 노릇을 하지만, 바쁜 농번기에 주일이 겹치면 그때는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시켜 자기 대신 일하게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서울신학교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그만 기초가 없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부끄러워 상해로 건너가 상해 교포 가운데 부자이면서 학자요, 유지인 한 주인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머슴 노릇을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주인의 일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물을 긷고, 장작을 패고, 불을 때고, 청소하고, 장을 볼 때도 거스름돈 1전도 욕심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주인의 맘에 들어 비록 그가 고아로 자라 기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인간성이 괜찮고, 신앙도 좋고, 장래성도 있는 것 같아서 상해 영국대학 영문과 졸업반에 있는 자기 큰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부잣집의 사위가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몇 해 동안 기본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해 좋은

학교에 전입해서 졸업장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신학을 마친 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국말은 물론이고, 중국말, 일본말, 영어, 그리스어, 라틴어를 잘 해서 일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 신학교 안에 있는 아현교회 목사로서 성공적으로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 가셨는데 그 아들들 여럿이 목사가 되고 대학교수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은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 나라에 가서도 복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모이며 기도하는 그 열심이 이러한 성령 충만의 결과까지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가 도약을 목표로 하고, 부흥을 목표로 하고 나아갈 때에 개인 부흥을 원하십니까? 가정 부흥을 원하십니까?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사회 정화를 원하십니까? 세계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 기본은 내가 먼저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이면 은혜를 받습니다.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으면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금년에는 주일 한 번만 교회에 왔다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화가 있고 향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2절).

이것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입니다. 신자들이 스스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발견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귀를 기울이고, 다른 생각 하지 않고, 정신을 집중해서 그 말을 듣는 데 힘을 쓴 것입니다.

배움의 바다는 끝이 없습니다. 공부는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 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지식의 완성을 위해서, 생활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배우라' 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 : 29) 하셨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전 4 : 6),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 : 14)고 말했습니다. 배워야 확실한 믿음이 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에게 속아넘어갑니까? 박태선에게 왜 속아넘어갑니까? 문선명에게 왜 속아넘어갑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왜 이단이나 잘못된 곳에 빠집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비록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장마가 져도 뿌리째 뽑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 4 : 9)고 말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행 17 : 11~12).

이 말씀은 베뢰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기쁜 편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오면 보고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유익을 줍니다.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 줍니다. 그 다음 참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물질이며, 이것은 변하고 썩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변합니다. 늙고, 병이 들고, 죽고, 썩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치 있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자기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속사람, 참자아(自我)를 몰랐습니다. 대아(大我), 우주아(宇宙我)를 몰랐습니다. 영혼아(靈魂我)를 모르고, 내 육체만 나인 줄 알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나를 발견하고 참 자아를 찾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았고, 영생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네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지었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 죄를 구속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예비하였노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성경은 한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

스도입니다.

신 ·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창조, 타락, 역사, 시가, 예언, 철학, 웅변, 사랑도 있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것입니다. 66권 어디서나 '예수' 복음을 찾는 것이 성경을 읽는 근본 목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생명의 양식, 등불, 날쌘 검, 방망이, 신령한 젖, 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생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이 있고 물이 있으며, 정치, 경제를 위해서는 물질이 있습니다. 정신을 위해서는 문학, 철학, 예술이 있습니다. 이렇듯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만족합니다.

이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요, '어두운 밤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 거기 돌로 박아 놓은 징검다리가 있다면 캄캄한 밤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진흙탕에 뒹굴기 쉽습니다. 그러나 밝은 등불을 가지고 갈 때는 그 돌만 딛고 갑니다. 이처럼 오늘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려면,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등불이 되어야만 끝까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날쌘 예리한 검'이라고 했습니다. 칼은 모든 것을 쪼개고 잘라냅니다. 불필요한 것을 잘라냅니다. 성경을 통해서 좋지 못한 악한 생각, 추잡한 생각, 악한 습관을 잘라냅니다. 저도 이 성경을 몰랐다면, 다른 사람과 같이 술, 담배, 마약, 악한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라냈습니다.

이 성경은 '방망이'라고 했습니다. 방망이는 반석을 부수고, 돌 같은 마음, 악성을 때려부숩니다.

성경은 '신령한 젖' 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성경을 자꾸 읽고, 배우면 우리의 정신도 향상되고, 인격도 자라나고, 신앙도 자라납니다.

성경은 '불' 이라고 했습니다. 불은 모든 걸 태웁니다. 아담의 쓴 뿌리까지도, 모든 죄악을 태우는 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두움에 헤매던 자가 빛을 찾게 됩니다. 길을 잃은 자가 참길을 찾게 됩니다. 영에 굶주린 자는 배부르게 됩니다. 목마른 자는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실패한 자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고독한 자는 친구가 생깁니다. 또, 사랑이 식은 자는 다시 사랑의 불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자리에, 부부지간에 사랑이 식어서 권태가 생기고 보기도 싫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가서를 읽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 1, 2, 3서를 읽어 보십시오. 사랑이 다시 불붙을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결혼 40년 생활을 할 때, 어떤 때는 사랑이 조금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가서를 읽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요한 1, 2, 3서를 읽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랑이 불 붙어서 내가 먼저 아내에게 사랑을 줍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울림이라는 것은 내가 좋게 말하면 좋은 말이 울려오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이 울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가정이 파탄 직전에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가정을 구합니다. 문제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성경으로 그 자녀를 지도해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빛나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죄로 멸망에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래서 지난 날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사랑했고, 공부했고, 묵상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꿀보다 더 달다고 했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고,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신문만 보고, 텔레비전만 보고, 비디오만 보지 마십시오. 오락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에 라스베이거스에 모인 70, 80%가 전부 한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회관을 짓는 데 돈 내라면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곳에 가서 낭비하고, 술집에 가서 팁이나 주고 합니다. 돈을 쓸 바에는 이왕이면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신문, 잡지, 텔레비전, 비디오만 보시지 말고,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노름만 하시지 말고, 낚시질만 하시지 말고, 골프만 치시지 말고, 운동 구경만 가시지 말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 : 33)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사랑하고, 공부하여 성경 위에 인격과 신앙과 가정과 교육과 사업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상부상조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44~4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 4 : 32).

초대교회는 이처럼 서로서로 도왔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비록 가난하지만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운 사실에 대해 칭찬했습니다(고후 8 : 2).

교회는 사랑의 기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선교, 교육,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역사를 볼 때, 주후 2세기 로마 교회는 신자 숫자도 많지 않았는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과부, 고아들을 15,000명이나 지원했다고 합니다. 또, 주후 3세기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신자가 10만 명이 있었는데 15,000명의 어려운 사람을 그들이 먹여 살리도록 도와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병리학적인 입장에서 게으름을 조장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감이 없어 놀고 있고 늙고, 병든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흑사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관리인도 도망가고, 불신자들도 병에 걸려 죽을까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 시체를 다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저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를! 저들은 이제 서로 죽기도 사양치 않는구나. 저들은 아내 외에는 무엇이든지 공동으로 가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기독론자인 루시안은 "그들이 서로 어려운 중에도 상부상조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아무것도 아끼는 것이 없다. 그들의 첫 입법자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그들이 서로 형제라는 사상을 단단히 넣어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고, 위험도 무릅쓰고 사랑과 봉사를 베푼 것은 신앙의 발로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누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

랑의 단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넉넉지 않은 교회 살림 속에서 없는 자들을 위해 나눈 일들이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작년에 국내외 선교사업에 30만 달러를 투자했고, 교육 사업에도 30만 달러를 투자했고, 한국 '수재민 돕기'에도 4만 2천 달러를 보냈습니다. 흑인 학생들도 도왔고, 멕시코의 고아원과 인디언도 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누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양선교교회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한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 11 : 24~25).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가지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누구를 전송하러 나가다가 쇠꼬챙이에 걸려 구두가 찢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 집사님께 꿰매 달라고 해서 신을 겁니다. 저는 한인 사회나 지구촌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천 달러, 만 달러, 만 오천 달러, 이만 달러 등을 아끼지 않고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부족한 가운데 베풀 때마다 더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더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이 모이고, 배우고,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도와 주었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47절). 우리 교회도 이처럼 금년에 모이는 데 힘쓰고, 배우고, 선한 일에 힘을 써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더 큰 부흥과 복,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신앙

사도행전 2장 1~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행 1 : 4). 그 명령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오순절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 약속대로 성령이 그 방 안에 임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펜테코스테'라는 말로 제오십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유월절 그 다음날부터 오십일째 되는 날이 곧 오순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오십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그 날이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오순절 그날로부터 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신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생활의 큰 변혁이 이루어져 예루살렘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과 예수의 동생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행 1 : 14). 120명의 남녀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환경과 형편을 잘 모르면 그들의 그 놀라운 신앙을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예루살렘, 즉 원수들이 가득 찬 소굴에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1절).

여기에 보면 다같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면, 그저 특별한 기도회 때만 모여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이는 사람만 모이고, 위급한 사정 때문에 못 모이는 사람도 있고, 별 사정도 없는데 나오지 않고, 또한 협동심이 부족하거나 신앙이 좀더 뜨겁지 못하여서 다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민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에는 언제나 의미가 있습

니다. 가정, 업체, 교포사회, 교회, 민족 전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힘써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내 스스로가 지휘관의 통솔 하에 들어가서 명령에 따르고 같이 일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단체생활을 할 때에는 소(小)보다도 대(大)를 우선시 해야 합니다.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네 가지가 함께할 때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엄, 책임, 질서, 절제 이 네 가지가 따르지 않으면 참 자유가 아닙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란과 무질서를 일으킬 뿐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더라도 굳게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쏟을 때 경기에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서 하는 게임 중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마음을 같이하여 힘쓴 팀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절반은 당기고 절반은 가만히 있으면 백 번 천 번 만 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다같이 120문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의 김장환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수원중앙침례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오전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남양만에서 두레마을을 개척하고 계시는 김진홍 목사님의 목회 현장을 둘러 보고 왔습니다. 보고 나서 얻은 것과 느낀 바가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잘 몰라 찾아가는 데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이

리 묻고 저리 묻고 해서 몇 번 물어서 겨우 찾아갔습니다. 한국도 상당히 넓은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남양만의 봉화산을 사서 집도 짓고, 농촌 교역자들의 훈련센터도 지으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목사님은 삼성 회사의 세미나에 가시고, 사모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안내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사는 주택은 여러 가족이 모여 사는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고아들도 함께 있었는데, 자기 아이들보다 그 아이들과 같이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도서관과 함께 오락 시설을 두고, 그곳을 양로원같이 하여 의지할 데 없는 할머니들 여러 분을 모시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는 잘 지어진 농촌 교역자 훈련 센터가 있는데, 큰 규모의 강의실, 예배실,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닭장을 지어 놓았는데, 수천이 넘는 닭을 화학 사료로 기르지도 않고, 또한 등불을 켜놓고 알을 많이 낳게 하지도 않고, 자연적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젖소 기르는 모습도 보여 주고, 차를 타고 한참 가서 남양만 바다를 막은 그곳의 농토도 보여 주셨습니다. 그곳에 활빈교회가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을 막았습니다. 넓은 갯벌인데, 이쪽과 저쪽에 산이 있고 멀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10리밖에 안 되는데도 그걸 막는 데 여간 힘이 든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민간이 착수했는데 물살이 세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못 막아서 몇 번의 시도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정부가 맡아서 잘 막아 놓았다고 합니다. 넓이가 9백6십만평 정도 되는데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폭은 그렇게 넓지 않다고 해도 이쪽에서 저쪽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김진홍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한번은 빈민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시에서 도시 미화 때문에 교회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니까 강제로 철거한다고 해서 38선 완충지대에 땅이 많으므로 그곳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은 다른 곳으로 넘어갈지 모르니까 남양만에 갯벌 막은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1,200세대를 끌고 이사를 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런 행진이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개 갯벌이라는 것은 짠물이기 때문에 5년 내지 6년이 있어야 모를 심어 추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은 일 년 안에 추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논두렁과 논을 만들어 놓고, 모 심을 때가 되어 모를 심었는데 며칠 후에 새빨갛게 죽었다고 합니다. 2차로 다시 모를 심었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또 새빨갛게 타서 죽었답니다. 세 번째도 그렇게 죽었답니다.

그러자 이제는 모 심을 때도 거의 지났는데 하며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향해 원망을 했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쓰레기통이나 뒤지자고(그 사람들은 넝마주이들이었음) 했습니다. 일부는 욕도 퍼부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그런 봉변을 당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 더 네 번째에 도전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왕 망할 것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설득해서 하는데 이젠 모를 얻을 데가 없으니까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까지 차를 가져가서 모를 가져와 정말 기도하면서 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해야 한다고 어린애들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논둑에서 밤을 새워가며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참 눈물나는 광경입

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도 날이 맑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도 금식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밤새 기도하는데 다음날 되는 아침부터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세차게 오는데 열흘간이나 계속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그치자 그 논에서 파랗게 모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떡, 감주를 만들고, 물고기를 잡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실컷 먹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에서 두 사람이 취재를 나왔습니다. 보통 갯벌을 막아서는 5, 6년이 지나서야 추수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당년에 했는지 농법 비결을 알아 서해를 간척한 사람들과 앞으로 남해도 막을 텐데 그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농법, 즉 기도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불신자라서 농담하지 말라면서, 이해하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마음이 통해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 : 23)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모님과 손을 붙잡고 감사기도도 했고, 목사님의 노고에 감사도 했고, 이 귀한 농법이, 기도의 신앙이 모든 간척하는 사람에게 보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합심기도의 힘이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또,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박영규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미국에 오셔서 사업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 여섯 명 정도를 만나 취재해서 「나는 땀과 눈물로 한없이 뛰었

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읽는 중에 뉴욕퀸즈장로교회의 장영춘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많지 않은 교인과 합심해서 비싼 뉴욕 땅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총대지가 900평이고, 교회 건평이 지하실은 231평, 1층은 232평, 2층은 193평이었는데, 현대식으로 모든 것을 갖춘 예배당이어서 이 교회가 미국 이민교회의 좋은 화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짓고 헌당식을 하는 그날에 건축위원장 되는 장로님이 보고를 하는데, 막대한 돈과 2년 6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137명이 1981년 6월부터 1983년 2월 26일까지 한 사람이 24시간씩 교대하며 교회 건축을 위해 함께 금식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137명이 교회 건축하는 1년 넘게 교회 골방에 들어가서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리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간 여러 식구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137명이 이렇게 한 사람이 하루씩, 끊임없이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합심기도는 놀라운 일을 나타냅니다.

이번에 수원중앙침례교회의 김장환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한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4층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개인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골방 몇 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군대를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동남아나 유럽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모든 신자가 한 시간씩 짜서 조금도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듣고 하면서 김장환 목사님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일을 하는 비결이 개인의 능력에도 있지만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듯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피부로 절감했습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다가 천사를 굴복시키고, 모세는 기도한 후 홍해 바다를 가르고 , 한나는 기도해서 늦게 사무엘을 낳고,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고,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사자 입을 막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엘리사는 기도로써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였고, 성도가 기도하니까 옥중에 있던 베드로가 풀려나오고, 바울이 기도하자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힘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식구들 가운데 기도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것임을 실감하지 못하신 분이 있거든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깨닫고 개인 기도는 물론,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4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남녀 모두 빠짐없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하기를 "오늘 미국의 기독교인 99%가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앤드류 머레이는 "그리스도인은 온 맘을 다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야 '내가 성경을 매일 봐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맡은 일에 충성해야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아내와 자식에게 뜨거운 사랑을 줘야지, 신경질을 내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마음뿐이지 행동이 마음 먹은 대로 나오기란 참 힘이 듭니다.

따라서 성령을 못 받으면 온전한 행실을 할 수 없습니다.

풍금칠 때 바람이 나가면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달리려고 해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헨디 에타 미어스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어느 그리스도인도 그의 생활이나 복음 전도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의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고전 12 : 3).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기사와 이적을 보고, 신앙 고백을 했어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영혼을 구하러 오신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를 참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습니다(고전 2 : 14). 예수님을 잡아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학자와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강도는 풀어 주고 자기들을 구하러 온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특색이 없고(갈 5 : 22~23), 담대하지 못합니다(요 18 : 17). 비겁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못 받아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가 없고(마 25 : 3),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롬 8 : 9).

기독교는 일곱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무죄시대, 양심시대, 권세시대, 허락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시대입니다. 은혜시대라는 것은 성령시대를 말합니다. 사복음은 예수시대요, 그것은 속죄였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즉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성령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시대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욜 2 : 29).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 : 11).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 : 5).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 : 13).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령을 받을 만한 준비와 회개, 깨끗한 마음만 가지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세례 받을 때, 사실 회개를 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적에도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강단에 가서야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밝은 빛이 내 마음에 비취었고, 과거의 내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화장실에도 못 가고, 자러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나니까 죄 사함 받고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기독교가 윤리의 종교만이 아니고 생명과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나고 보니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원도 오대산 북쪽 암자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열흘 동안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뜨거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오늘까지 이렇게 이겨 온 것은 그때 그 성령의 힘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체험을 못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첫째로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생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갈 5 : 22~23)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미움의 사람이 변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근심의 사람이 희락의 사람으로, 싸움의 사람이 화평의 사람으로, 격분의 사람이 인내의 사람으로, 잔인한 사람이 자비

의 사람으로, 거짓된 사람이 양선의 사람으로, 불충의 사람이 충성의 사람으로, 포악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욕심의 사람이 절제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는 말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고후 5 : 17).

둘째로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행 4 : 19~20).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와서 전도하는 가운데 이적을 베풀었을 때,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불러 그런 말은 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할 때 담대히 외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할 때 예수님은 바로 못 박혔지만 나 같은 죄인은 거꾸로 못 박히게 해달라고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으면 용기가 생기며, 날마다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최후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 : 8).

성령을 받으면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교육과 훈련은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병자도 고치지 못하고, 귀신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림자만 지

나가도 병자가 일어났고(행 5 : 15), 하루에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을 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행 2 : 41). 이처럼 성령을 받아야 전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예수잔치를 하는데, 그날이 총동원주일이어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는 선물도 준다고 합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송 집사 내외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총동원주일에, 바로 예수잔칫날에 오라고 권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부부는 가게를 점원에게 맡기고 1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날 800명을 인도해 나왔습니다. 또 검사인 이 집사 내외는 그날 460명을 인도해 왔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았는데 기쁨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재물을 통용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행 2 : 44~45).

성령을 받은 후에 성품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물질관도 변했습니다. 인생관과 우주관, 생사관과 내세관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가지는 사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자기 물건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도록 하며 구제에 힘썼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공산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 : 14~17).

배고픈 사람에게는 주어야 하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입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 : 18).

김장환 목사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치원생이 400명 정도인데 교회를 건축할 때 먼저 교육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시설이 완벽하며, 한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신학교를 운영해서 신학생도 길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규모의 체육관도 가지고 있고, 특히 양로원을 현대식으로 잘 지은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양로원은 한국에서 제일 좋은 양로원으로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호사도 있고 좋은 병실도 있었습니다. 남녀 노인 90여 명이 한 가족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1700석이나 된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보았을 때도 좋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주 잘 지어 놓았습니다.

또한 더더욱 은혜를 받은 것은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 때였습니다. 1부예배는 7시 30분에 드려지는데, 수원 시내에 있는 환경미화원(청소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 600명 정도의 분들을 초대하여 예배를 드린 후, 교회에서 준비한 겨울 내의를

선물로 주고, 그들을 위해 떡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시장과 경찰서장, 도지사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2부예배는 9시에 시작되는데, 이때는 전투경찰 즉 데모를 막는 경찰들이 400명 정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국회의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들에게도 역시 내의를 주며 떡잔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3부예배는 11시에 시작되는데, 윤치영 전 국회의장도 오고, 퇴역 장성, 사성 장군도 오고, 대학 총장도 많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자리가 꽉 차서 복도에 자리를 놓았는데,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도 고아원에 가지 않고 동생들을 돌보는 십대 가장들과 양로원에 계신 노인분들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십대 가장들에게는 쌀 한 가마니를 주고, 무연탄 300덩이를 주었습니다. 양로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내의 상하 한 벌씩을 주고, 떡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저의 머리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선한 일을 하니, 사성 장군도 나오고, 대학 총장도 나오고, 경찰서장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도지사도 나오는 그런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원중앙침례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것을 볼 때 과연 교회는 베푸는 것이 복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극장에는 창문이 없는데 왜 교회는 창문이 많은가? 교회는 창문으로 사회를 내다보고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육도 시켜야 하지만, 사회를 위해서도 봉사해야 합니다.

하버드는 말하기를 “사랑은 그 왕국을 무기 없이 지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의 위대성을 말한 것입니다. 또 플레저는 말하기를 “사랑은 수단, 방법도 모른다.”라고 했고, 역사가 토인비는 “사랑의 절대적 가치는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 그리하여 인간의 생소하고 어려운 처지를 바람직하게 만든다. 사랑은 인생의 목적을 더욱 아름답게 충족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합심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행 2 : 47).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도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해서 말세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변화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심으로 함께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5~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람은 모름지기 때를 알아야 합니다. 농사꾼은 뿌릴 때와 거둘 때를 알아야 하고, 어부는 그물을 던질 때와 거둘 때를 알아야 하고, 군인은 전진할 때와 후퇴할 때를 알아야 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을 살 때와 팔때를 알아야 합니다. 또, 학생들은 공부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처녀들은 출가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잠은 자더라도 영은 늘 깨어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혼돈의 시대, 불연속성의 시대, 도시 집중화 시대, 산업 자동화 시대, 정보화 시대 그리고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역사를 무죄 시대, 양심 시대, 권세 시대, 허락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천년 시대 등 일곱 시대로 구분하는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성령 시대를 의미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 : 2),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전 12 : 31)고 하였는데 여기서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을 보면 작은 은혜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작은 은혜는 눈과 같은 은혜이고, 큰 은혜는 양털과 같은 은혜입니다. 작은 은혜는 썩는 만나이지만 큰 은혜는 썩지 않는 만나인 예수님입니다. 작은 은혜는 사람이 떠주는 물이고, 큰 은혜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작은 은혜는 발등에서 철썩이는 신앙이고, 큰 은혜는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대로, 일천 척을 재고 또 재고 또 재니 바닷물이 되어 헤엄칠 정도가 되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눈과 같은 은혜는 일시적으로 받아서 좋지만 며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요, 양털은 언제나 변치 않는 색깔 그대로입니다. 썩는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썩지 않는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영원히 삽니다. 또 떠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수가성 여자가 주는 물이요,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얕은 물에서 헤맬 때는 사람들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이 깊으면 걸림돌이 없이 전속력을 내어서 갈 수 있습니다.

물세례는 외적 변화를 받는 것이어서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좋지 못한 습관, 담배, 술, 도박 같은 것들을 물세례 받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속의 동물적인 것이 성령의 불로 다 씻기고, 닦이고, 불태워져서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생존해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주장하셔서 더러워진 마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므로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살아 있는

주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 영이 육을 지배하는 생활 하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막 1 : 8)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 : 4~5)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 : 8)고 하시며 성령 세례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가서 그곳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소?"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못 받았소?"라고 묻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라고 하면서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행 19 : 1~3).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 : 9)고 잘라 말한 것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성령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첫째,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1) 분별력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전 2 : 14).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사람들은 무종교인이 아니며, 노름꾼이나 강도나 장사꾼이나 외국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십일조를 바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 교인은 보수적 신앙인들입니다. 사두개 교인은 지성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서기관은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성령을 못 받은 까닭에 분별력이 없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오히려 그를 죽이고, 강도를 놓아 주는 씻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2) 주를 주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 : 3).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사 이적도 행했습니다. 또 신앙 고백도 바로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이나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행 1 : 6).

즉,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 나라에서 해방시킬 혁명가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가 오순절 다

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적 메시아요, 인류의 구주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이 지구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자, 인격자, 훌륭한 선생님, 사회 개혁자, 혁명가라고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일의 신학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삼위일체성이나 동정녀의 탄생이나 부활,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 또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신학교에 들어왔냐고 물으면 나라에서 봉급 주고, 편안하고, 좋은 직업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개인의 구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3) 그리스도인의 특색이 전혀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향기가 안 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특색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유 1 : 19).

예수를 믿는다면서 당을 짓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계 3 : 1)라는 사데 교회가 받은 책망을 들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잎은 무성하고 열매는 없습니다. 도리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

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갈 5 : 19~21)고 했으니,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 오히려 안 믿는 점잖은 사람만도 못한 마음과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4) 담대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담대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부인하고(요 18 : 17, 25)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할 만큼 비겁했습니다(마 26 : 74).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도 조용하게 기도하고 먹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으면 눈치를 보며 기도도 하지 않고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자기보다 학식이 부족하고, 신분이 좀 낮은 사람 같으면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자기보다 더 배운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어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담대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 : 19~20)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복판에서,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혔지만 나 같은 죄인은 거꾸로 매달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해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5)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마 25 : 12).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열 처녀가 있는데 다섯은 지혜로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때마침 신랑이 오자 불을 밝히 켜서 신랑을 영접하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기름을 사러 갔지만, 그 동안에 신랑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더불어 들어가고 문은 잠겼습니다. 그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늦게 와 문을 두드릴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며 문을 열어 주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이성봉 목사님은 늘 걸어다니면서 하늘을 자꾸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자꾸 하늘을 쳐다보세요?"라고 여쭈면, "저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지 않나 하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분은 항상 주먹을 쥐고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느냐고 여쭈면, 예수님 붙잡고 걸어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논두렁을 걸어갈 때도 평평한 길로는 걸어가지 않고 울퉁불퉁한 길로 갑니다. "목사님, 평평한 길로 가시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거야."라고 합니다. 그분은 정말 주님과 함께 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깨어 있어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령을 표시했습니다. 비둘기같은 성령(막 1 : 10, 눅 3 : 22), 바람과 같은 성령(요 3 : 8), 소리와 같은 성령(행 2 : 2), 불과 같은 성령(행 2 : 3), 보혜사 성령(요 15 : 26),

또 기름(행 10 : 38)으로 비유되는 성령 등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기름도 성령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신랑 예수로 영접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1) 성품이 변화됩니다.

즉 인격이 변화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 5 : 22~23)라는 말씀과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명예를 훼손시켜도, 창피를 주어도, 물질적 손해를 주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락은 돈을 많이 벌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차를 사고, 새집을 사고,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기쁨을 항상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또 화평의 열매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악해서 못사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 간부들, 김정일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도 못사는 것입니다. 중국처럼 개방해서 모든 자유 세계와 더불어서 서로 교통하고, 자본을 들여와 산업화시키면 되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도 군인은 120만을 거느리고 군량미, 무기만 만들고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이라는 것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누리는 화평을 말합니다.

인내는 얼른 화를 내지 아니하고 보복하는 마음 없이 잘 참는 것

을 말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시기, 질투, 모략, 중상을 당하셨을까? 마지막에는 옷을 벗김을 당하고,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뺨도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지금까지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줄 깨달아 잘 참아 넘기게 됩니다.

잘 참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참는 것이 잘 참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도 참는 그 정도는 누가 못 참습니까? 성경은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히 12 : 3)고 말씀합니다. 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통이 큰가 우리들의 고통이 큰가 고통의 크기를 저울로 한번 달아보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실업자, 병든 사람, 고아, 과부 등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인정, 자비심을 말합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눈보라가 치는 어느 겨울날, 길모퉁이에 거지 한 사람이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만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사가 주머니를 뒤져 무엇을 하나 주려고 했더니 마침 아무것도 없어서 손을 내밀면서 그 사람에게 "형제여, 내가 마침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네. 미안하네." 하고 손을 잡았더니 "저는 돈 몇 푼 받는 것보다 이것을 원했습니다."라며 오히려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양선은 미덕과 친절과 정직입니다. 덕을 세우는 생활이 양선입니다. 남의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고, 남의 일에 재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소망

을 주고, 창조적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양선입니다.

충성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속과 겉이 같아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온유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깊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한 사람이 아주 센 것 같아도 강철은 부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죽으로 된 허리띠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딱딱한 땅은 곡괭이로 두드려야 하지만 부드러운 땅에는 꽃을 심고 물을 줍니다. 강폭한 독사나 늑대는 보기만 하면 죽입니다. 그러나 닭과 양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오늘날 세계를 점령하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때 칼로써 지배하던 알렉산더, 카이사르, 나폴레옹, 히틀러는 다 무너졌습니다. 온유한 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맞을 때 욕을 하는 것은 보잘것없습니다. 맞을 때 웃으면서 "다 때렸냐?" 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절제는 이성의 절제, 명예심의 절제, 물질의 절제를 말합니다. 절제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난봉자가 변하여 성자가 된 어거스틴, 불량 청년이 변하여 목사가 된 김익두, 기생이 변하여 신학교 교수가 된 한국의 모 교수, 알코올 중독자가 변하여 모범 장로가 되고, 교만하기 짝이 없던 고급 장교가 겸손한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불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양 같은 성격으로 변화되는 이 성품의 변화가 성령을 받은 결과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사우나하고, 온천장 가고, 아무리 산에 가서 두드려도 성품의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마음속에 떨어질 때, 갈멜산의 돌과 나무와 제물과 흙이 다 타버린 것처럼, 오순절

의 성령이 임할 때 모두가 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사람의 성품으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 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120문도가 모두 오순절의 성령 체험 이후 성품이 변화되고, 생활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졌습니다(행 2 : 44~47).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상시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 "물질이 결코 믿음보다 귀한 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돈이 귀하지만 돈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집은 사지만 가정은 못 삽니다. 침대는 사지만 수면은 못 삽니다. 음식은 사지만 건강은 못 삽니다. 책은 사지만 인격은 못 삽니다. 자동차는 사지만 안전은 못 삽니다. 여자는 사지만 참 사랑은 못 삽니다. 비행기 티켓은 사지만 천국 티켓은 못 삽니다. 돈을 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는 사지만 예수는 못 삽니다. 관은 사지만 부활은 못 삽니다. 무덤은 사지만 천국은 못 삽니다.

성 프랜시스가 산을 넘어가던 중 용변을 보다가 무엇이 앞에서 반짝거리는 것이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누가 은전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이슬이 맺혀서 태양 빛에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다른 사람 같으면 재수 좋다고 하면서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을 텐데, 이 사람은 몸서리를 치면서 일어나서 꼬챙이로 젓가락을 만들어서 그것을 집어 용변 속에 쏙 넣었답니다. 이 예화는 돈의 가치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됨을 교훈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 된 마음으로 항상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을 팔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이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가치관과 생활이 변화된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활의 변화가 옵니다.

(3) 전도의 변화가 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후에는 하루에 3,000명을 구원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행 2 : 41),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행 4 : 4).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일까 하여 병든 사람을 거리로 메고 나왔다고 하였습니다(행 5 : 15).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작년 일 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성령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 : 19)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남겨 주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한 시골 교회 목사의 열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4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후에 신학을 하고, 그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왔는데 2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이성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모라비안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아 영국을 흑암 도탄에서 건지고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웨슬레의 경험입니다. 그는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영국을 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입니다

(1)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웨슬레는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행 10 : 44).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있어야 성령을 받습니다.

1907년은 한국의 오순절로서 한국 교회의 생일입니다. 평양 장대현교회 성도들이 일주일간 사경회를 통하여 성경을 배우다가 마지막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경회에 참석한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전부 나가서 전도하여 마침내 삼천리 강토에 불이 붙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다른 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2)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 : 38).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자기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가시

덤불에서 자기의 진상을 안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신의 모습을 안 것처럼,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 빛 앞에서 자신의 진상을 안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자기의 속사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머리카락 하나가 등불 사이에 끼여서 공간이 생기면 불이 나갑니다. 이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 : 1~2)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할 때, 빈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3)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눅 11 : 13).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행 1 : 13~14).

모세는 40일간 산에서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권위자가 되려면 여섯 시간 이상은 연습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용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농구선수도 하루에 수도 없이 슛(shoot)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좀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거나, 혹은 골방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더 일을 하려고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고는 교회 일에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생활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전도가 달라집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철저히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품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성회

사도행전 10장 1~8절, 44~48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1991년 7월 25일 목요일은 우리 교회 창립 21주년 성회를 갖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회를 앞두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직업군인으로서, 유대 땅 가이사랴에

주둔한 백부장이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고 군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3~5절)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을 통해 베드로를 청해 와서 가정집회를 가짐으로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이방 사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은 여기 처음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비결은 무엇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좋은 강사를 모셨습니다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5~8절).

성회를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강사가 훌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강사가 훌륭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물질과 시간 낭비는 물론 어떤 때는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시험받는 일이 생

기고, 교회가 두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종종 집회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좋고 건전한 강사가 올 때, 고루고루 은혜를 받고 교회가 어지러웠다가도 하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그 집에 가실 때도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고, 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를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많은 선생 중에 제일가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인물이지만 이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나폴레옹은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지만 그리스도에겐 무릎을 꿇노라."고 했고, 키에르케고르는 "인류 역사에 많은 사람이 오고갔지만 사람다운 사람을 나는 두 사람을 보았는데 바로 소크라테스와 예수이다."라고 말했으며, 간디는 "나는 힌두교도라서 기독교를 존경하지는 않지만 예수는 존경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세계에서 제일 고명하다는 유명한 철학자 세 사람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중 소크라테스가 40년 가르치고, 플라톤은 50년,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을 가르쳤다. 세 철학자가 130년 가르친 것보다 예수님이 3년 가르친 것이 더 비중이 크고, 인류에게 지금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분 밑에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걸어다니고, 집중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기사와 이적을 많이 보고, 부활하신

주님도 직접 만나본 베드로는 강사 중에 으뜸가는 강사였습니다. 이런 강사이기 때문에 고넬료의 식구들이 은혜를 받은 줄로 압니다.

이번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집회 강사로 두 번째 오시는 이성헌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였던 44년 전부터 잘 아는 분입니다. 그의 형님 이광우 목사님은 저와 동기동창이고 가끔 우리 신학교에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분을 알고 있었고, 제가 고학할 때 그분도 저와 같이 서울역 앞에서 지게를 지고 손수레를 끌던 '지게당' (일명 함께 공부하며 지게꾼으로서 일하던 사람들의 모임)의 한 사람입니다.

이성헌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교와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한국의 영남지방에서는 제일 역사가 오래되고 큰 교회인 장로교 서문교회에서 전도사로 얼마 동안 시무하시다가, 그 교회가 인물을 키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한 곳에서만 42년을 목회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지성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일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목회자요, 신학교 교수요, 노회장과 총회장을 거친 분이요, 전국적으로 또 외국까지 다니며 집회하는 훌륭한 강사이십니다.

이번 창립 21주년을 맞는 중요한 때에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우리 모든 교역자와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그분을 두 번째로 모셨으니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 그릇을 갖다 내놓는 대로, 즉 조그만 그릇에는 물이 조금 담기고, 큰 그릇에는 많은 물이 담기는 것처럼, 또한 그릇을 갖다 놓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람을 모아 놓았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행 10 : 24).

고넬료는 혼자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식구 전체, 아이들을 비롯해 일하는 사람까지 다 부르고, 친척, 친구를 많이 모아 놓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특별성회를 할 때는 특별한 기간인 만큼 신령한 잔치에 나 혼자 먹고 배불리려는 이기심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도 이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인 까닭에 심리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할 때 '홈 그라운드' 라면 늘 유리하지 않습니까? 응원대가 많아야 선수들이 힘이 나는 것처럼, 사람이 많아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우렁차고, 분위기가 훈훈하면 목사도 설교하는 데 힘이 납니다. 반면에 빈 의자뿐이고, 사람이 가뭄에 콩 나듯 하면 주눅이 들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그들이 없다고 했습니다(요 21 : 5). 그러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여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기에서 고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 : 19)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께 예수님께서 똑같은 것을 물어보실 줄 압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1991년 1월부터 7월말이 되는 오늘까지 몇

사람이나 내 앞으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몇 사람이나 인도했습니까? 7월이 다 되어 가는 이때에 몇 사람이나 주 앞으로 인도해서 영혼을 구원시켰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마 25 : 14~30).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면서 맡겼습니다. 주인이 멀리 간 후에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온 후에 이것을 바쳤더니 주인이 기뻐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마 25 : 21, 23)라고 하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던, 녹슨 달란트를 가지고 오면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내가 장사해서 본전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 이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한 달란트를 빼앗으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돈을 열 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고 게으른 사람을 성문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은혜도 주시며 살기 좋은 미국에서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아마존 강가에서 인디언과 더불어 방울뱀과 모기와 싸우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선교하고, 아프리카 정글, 파푸아 뉴기니, 기독교를 반대하는 중국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선교하고, 공산 치하에서도 선교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자유 천지인 미국에서 현재 7월까지 몇 사람이나 주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왕하 7 : 9).

여기서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첩첩이 포위하고 몇 날, 몇 달이 되도록 포위망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식량이 모두 바닥났습니다. 있는 양식 다 긁어먹고, 짐승도 다 잡아먹었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문둥이 네 사람, 즉 이들은 문둥이여서 성 안에서는 못 살고 성 밖으로 내쫓겨 권한을 잃어버린 동물과같이 취급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성문 밖에 있다가 자기들도 굶어 죽게 되자 여기서 그냥 앉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 적진에 들어가서 양식이나 한번 찾아보자고 하여 황혼에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소리, 말소리, 큰 군대소리를 듣게 하여 이미 아람 군대가 풍비박산해서 전부 철수한 뒤였습니다. 전부 도망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냥 두고 몸만 살려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컷 먹고는 은, 금, 좋은 옷을 다 감춰 놓고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잠잠하고 있겠느냐? 날이 밝아 성 안의 사람들이 이것을 안다면 우리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이제 왕궁에 가서 말하여 성 안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기쁜 소식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

리요"(롬 10 : 14).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고전 4 : 15)과 평안(엡 6 : 15)과 소망(롬 1 : 23)과 구원(살후 2 : 13)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온갖 음모 속에서도 평안을 얻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날 버려도 예수님은 안 버린다고 고백했고,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학자들이나 신문 기자들이 저를 향해 이단자로 말할 때 저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참으며, 평안한 가운데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두되 흔들리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즉 변치 않는 곳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통해서 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 생활이 구원받고, 장차 우리 육신까지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 : 16)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의 선배인 최학철 목사님이 북한에서 개척교회를 섬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전도지 500장을 가지고 전부 돌렸는데 한 사람도 교회에 안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실패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지나가다가 대문이 열려 있어 보니, 어떤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습

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철도국에 다니는 사람이라 밤일을 마치고 들어와 자는 중이었습니다. 깨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 주일 교회에 나왔습니다. 후에 그는 그 교회 장로가 되었고, 서울에 와서도 시온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499명이 전도지를 받고서도 안 믿었지만, 마지막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해서 장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한 명을 위해 1,000번 가야 할 것입니다. 999명을 전도해서 안 믿어도 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교회에 늦게 와서 자동차로 주위를 세 바퀴 돌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냥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전도를 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빼주는 것도 전도인 줄 압니다. 세례교인들, 먼저 믿은 분들, 직분자들이 좀 자리를 비켜 주어서 안 믿는 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은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해산이 큰 수고입니까? 여자가 아니고는, 낳아본 사람이 아니고는 그 고통을 모릅니다.

이번에 남미에 갔는데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한 청년을 서른일곱 번 찾아갔더니 그때서야 예수를 믿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전도를 함에 있어 인내와 끈기, 사랑을 가지고 해야겠고, 또 기술이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을 업고 오든지, 강제로 끌고 오든지,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일단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훌륭하신 강사 목사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즉 전

도자 되시는 목사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합동 작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식구는 물론이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 그분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야구관람 티켓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점심을 사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자동차를 사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집 한 채 또는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사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 영혼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이 교회가 차고 넘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그 사람도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일생에 있어서 제일 귀한 것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신학 공부를 얼마나 했고, 대통령상을 탔고, 훈장을 탔고, 내가 미국에 와서 어느 신학교를 다녔고, 하는 것 등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시고 오십시오. 이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행 10 : 25).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고넬료로 말하면 로마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국가가 아닙니까? 로마 시민인 고넬료도 충분히 국가적인 긍지나 교만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인, 백부장, 장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경제력이 베드로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올 때 그를 맞이하기 위해 그 발 앞에 엎드려 절까지 했습니다. 겸손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 있는 많은 교회를 지적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계 3 : 17~18).

라오디게아는 당시에 금도 나오는 부요한 도시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요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것은 믿음을 더 가지라는 말이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세마포를 입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 신령한 눈을 뜨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국 교포 신자 가운데 미국에 와서 10년쯤 되어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젠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주일에 꼭 가야만 하는가?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부흥회 때 내가 꼭 참석해야 되는가? 새벽기도회에 내가 꼭 참석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

습니다. 다른 곳에 갈 때는 몇 날 며칠 궁리하고 가면서도 예배드리러 갈 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는 식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더욱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아 눈이 밝아져 인간 세상에 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잠 3 : 34).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약 4 : 6).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벧전 5 : 5).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사 57 : 15).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성, 부흥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물은 항상 흐르고 흘러 제일 낮은 곳에 가서 고이는 것처럼 이 기회에 다섯 가지 마음으로, 즉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 똑바른 마음, 넓은 마음으로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 : 23)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첫마디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겸비한 마음, 낮아진 마음, 깨끗한 마음, 빈 마음, 똑바른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면 과거 모세가 받았던 은혜와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넷째,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행 10 : 33).

“이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니 말씀하십시오.”라고 고넬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히 4 : 12). 또 죄와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입니다(엡 6 : 17). 그리고 때로는 죄악을 때려부수는 방망이입니다(렘 23 : 29).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겔 37 : 7), 구원하시는 능력(롬 1 : 16)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시 42 : 1)라고 시편 기자는 갈급함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갈급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물 한 잔이 있다고 합시다. 열 사람이 서로 물을 달라고 말할 때 힘없이 작게 말하는 자에게 물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큰 소리로 간절하게 외치는 자에게 주겠습니까? 물론 간절하게 큰 소리로 물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게 마련입니다. 또한 우는 아기에게 젖을 주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강건한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눅 10 : 42).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친구,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거기에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분주히 움직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옆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언니가 너무나 속상해서 주님께 말하기를, 마리아에게 자기의 일을 도와주라고 말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르다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고 무엇을 만들어 드리려고만 했고, 마리아는 제일 중요한 자기의 영혼을 위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심방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정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목사님이 왔다고 집안 식구, 아이들까지 앉혀 놓고는 성경을 펴놓고, 찬송하며,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며 뭔가 기대에 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가면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느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 신령한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과 집, 자동차, 오락에는 관심을 보이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별 중요성을 못 느끼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주일 새벽에 한번 지진이 나더니 그날 새벽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를 "주여, 주일 새벽마다 조금씩 흔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가 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다섯째,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

시니”(44절).

사람들을 모아 놓고,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시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며, 창조자, 주권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그 마음속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하시며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자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권능을 주고, 기쁨을 주고, 분별력을 주고, 진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신케 하십니다. 저도 성령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는 떨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를 주어 오늘까지 육체와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케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육군대령으로서 육군대학에서 가르치시던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서로 대화하던 중에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 둘째아이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낳은 아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처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2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장로님의 부인이 아기를 잉태했는데 피가 자꾸 쏟아져 할 수 없이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에 가서 수술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주일 저녁에 저를 부르시더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피를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질병과 고독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은 샘솟는

기쁨이고, 막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찬송하는 기쁨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교회에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전도의 열심을 주시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심령부흥회' 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비유해 보았습니다. 심령부흥회는 말씀의 잔치요, 육신을 종합 진찰하는 기회요, 내 가정을 대청소하는 기간이요, 자동차를 분해 점검하는 것과 같고, 제련소에서 모든 찌꺼기를 걸러내고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잔칫집에는 기쁨이 있고 먹을 것이 많습니다. 잔칫집에서는 먹고 나면 남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부흥회가 그렇습니다. 부흥회 때는 말씀이 풍성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 받으면 남에게 은혜를 나눠 줍니다.

우리의 육신을 종합 진찰 해보면 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어디가 부어 있거나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 건강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여러 가지를 집어냅니다. 듣기 싫어서 안 가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이명증' 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은 마치 바람 부는 날, 전봇대가 '우우우' 하는 것처럼, 귀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증상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흥회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청소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보통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쓸어내지만, 대청소할 때는 구석구석 온갖 먼지를 다 쓸어

냅니다. 부흥회 때 구석구석 쓸면 구석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다 나옵니다. 자동차를 다 뜯어 보면 교체해야 할 부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련소에서는 광석을 갖다 놓고 불을 때면 흙은 흙대로, 돌은 돌대로, 연은 연대로, 동은 동대로 나누어져 마지막에 금이 나오는 것처럼, 금과 같은 믿음, 금과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번 부흥회 때는 각자가 자신을 위해 이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자신을 위해 강사를 보내 주셨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성회가 열리는데 어떻게 모르는 체하며 집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정하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남녀노소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욜 2 : 28~30)을 그 심령 속에 주실 것이고, 그리하면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이 새로워짐으로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가정이 새로워짐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아가 죄 많은 동포 사회와 미국 사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집회에 큰 은혜를 받아서 21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역사 창조를 위해 모두가 다 힘써서 은혜 받고, 거룩한 목표의 완성을 위해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전진해 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의 용기

사도행전 4장 13~22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더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성격이 과격하고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얼른 생각하면 대단히 용기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 보면, 베드로는 용기가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수들에게 잡혀 끌려가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서 고문을 당하고 계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런데 그곳의 한 소녀가 나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서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하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소녀가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할 때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며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할 때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닭이 곧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마 26 : 57~75).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약한 사람, 비굴한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용기나 담력이 문제가 아니라 신의의 문제요, 의리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배신하고, 저주할 정도로 비겁한 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베드로는 이렇게 연약하고, 비굴하고,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성령 충만을 받고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천지차이라는 말과 같이, 그렇게 비굴했던 사람이 이제는 용감무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째, 용기의 근거입니다

나약하고 비굴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처럼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 번 본 것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러 번 예수님이 지상에서 머무는 40일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나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그만큼 굳은 신앙이 되었고, 확실한 신앙이 되어서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받은 까닭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약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데서 용기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많은 예루살렘의 초대 남녀 신자들도 용감했습니다.

그 당시의 신자라는 것은 오늘의 신자와는 질적으로 수준이 다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문벌도 있고, 학벌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사회적 명예나 지위도 있으신 상당히 수준 높은 성도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골 사람, 가난한 사람들, 문벌이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홀로 된 사람들, 사회에 이름이 없는, 그 어떤 세력이나 영향력이 없는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만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 모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다시 사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능력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성령을 체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불러 주셨다,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데 대한 이 감사, 감격, 자부심, 확신에서 이런 용기와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저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는 문벌, 학벌, 인물이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돈도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높지 않습

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던 보잘것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속죄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 데 대한 감사와 감격, 확신, 자부심에서 이토록 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롬 8 : 13~17).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곧 우리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면 결국 우주 만물이 우리 것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 전성시대에 한 장군이 많은 군인을 거느리고 원정을 가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이제는 영광스러운 개선장군으로서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황제를 비롯해서 정부에서는 그를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정말 당당하게 들어와 환영대에 앉을 때에 많은 시민들의 환호성으로 천지가 떠나갈 듯했습니다. 꽃이 흩날리고 비둘기가 무리 지어 날아올랐습니다. 그때 조그마한 한 소년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비집고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에 그곳을 지키던 수비병이 "너는 못 들어간다." 하고 말했습니다. 소년이 "왜 못 들어가요?" 하고 대꾸를 하니까 수비병이 "조그만 것이 어딜 들어가?" 하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이때 소년이 "여기 있는 개선 장군이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왜 못 들어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 마디에 수비병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어린 아이는 담대하게 뚜벅뚜벅 들어가 아버지 품에 안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속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 교회 신자들의 용기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부활의 신앙, 성령 체험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시 118 : 6~7).

"천만 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시 3 : 6).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 : 4).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생활을 했습니다. 빈 들판에서 맹수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이겼습니다. 양을 훔치는 도둑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습니다. 전쟁터에서 여러 번 죽을 뻔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 주셔서 살았습니다. 정치가이기 때문에 정적들에게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살았습니다. 백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워왔을 때, 그는 지나간 험난한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

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시 121 : 4~5)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 : 31~37)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용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을 말하라면 우리는 얼른 군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군인은 용기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처음에 군인이 되고자 입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회에서 생활할 때 반듯하게 생활하지 않던 사람들을 때때로 봅니다. 별난 머리를 하기도 하고, 단추도 제대로 안 끼우고, 신발 끈도 제대로 매지 않고, 걷는 것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군에 들어가서 입던 옷을 벗기고 군복을 입히고, 머리를 빡빡 깎고, 훈련을 시키고, 정신교육과 사상교육을 시키고, 애국애족 정신을 가르쳐 주며, 왜 군인이 필요한지, 왜 그들이 고향과 부모를 떠나 군인이 되었는지 가르쳐 주면 곧 생활과 태도가 바뀌고 마지막엔 용기있게 변화됩니다.

군인이 이렇게 교육과 훈련과 전쟁의 실전을 통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자들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딤후 2 : 3~4)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죄와 불의와 이단과 마귀에 대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다 그렇게 용감한 것일까요? 군인들이 여러 해 동안 배우고, 훈련하고, 전쟁을 통해서 용감해지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어떤 때는 실패도 해보고, 다시 일어나고,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어떤 때는 피도 흘려야 합니다. 이런 교육과 훈련과 연단을 통과한 신자만이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군목제도를 만들었느냐 하면,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다. 무신론, 유물론과 더불어 싸워 이기려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군인이라야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목들에게 지프차도 주고, 장비도 주고, 의복도 주고, 생활비도 대주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열렬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전군신자화운동' 을 전개했습니까? 모든 부대로 하여금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하게 한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안 믿는 군인보다 정직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감하게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용감한 크리스천이 되는 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둘째, 용기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용기가 있습니다. 군인의 용기, 정치가의 용기, 등산가의 용기, 탐험가의 용기, 수영선수의 용기, 선행의 용기, 악행의 용기, 우주인의 용기, 언론인의 용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용기가 많습니다.

맥아더 장군이나 패턴 장군은 용기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존 F. 케네디도 용기 있는 정치가였습니다. 노예 해방을 단행하고, 쿠바, 소련 미사일을 다시 배에 싣고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결단을 내린 참으로 용기 있는 정치가들입니다.

하늘 밑의 지붕이라는 히말라야산 만년설을 등산하여 정복하는 등산가의 훌륭한 용기가 있고, 북극과 남극의 신비의 노을을 벗기는 탐험가의 용기도 있습니다. 또한 현해탄을 헤엄쳐 건너가고, 도버해협을 헤엄쳐 건너는 수영선수들의 용기 또한 대단합니다. 성 프랜시스나 다미앵과 같이 자기 생활 전체를 다 희생하고, 선한 일에 일생을 바친 사람들은 선행의 용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주인들이 달나라에 가서 걸어다니고 온 것은 우주인의 용기입니다. 무서운 독재하에 언론 탄압을 하는데도 감옥에 들어갈 각오, 죽을 각오를 하고 할 말을 다하는 것은 언론인의 용기입니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용기들은 개인적 용기요 인간적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용기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용기는 개인적이고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그 무엇을 위해서 발휘한 용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용기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고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숭고한 용기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18~20절).

얼마나 담대한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며칠 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

에는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담대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용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용기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 : 2)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유대 사람이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방 세계 지중해 연안 서쪽 큰 항구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이 국제 도시에서 바울은 어려서부터 많은 학문을 접했습니다. 바리새교인으로 태어나서 유대 율법을 다 배웠고, 거기서 동양 철학을 배우고, 그리스 철학과 문학, 예술을 배우고, 로마의 정치, 경제, 법률과 군사 등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면서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와 로마 황제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만 전한 것을 보면 바울의 용기의 내용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비로소 위대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자주 장수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평신도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루디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 바울이 큰 역사를 이루었고, 그가 전한 복음이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까지 와서 증거된 것을 보면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베드로나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가정에서부터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비겁한 사람인지 용감한 사람인지 오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웃 사람에게, 또는 직장에서, 장사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전했다면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주일이 가도 한 달이 가도 예수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우리 딸 공부 잘하고 우리 아들은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비굴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이 미문 바깥의 그 자리에 앉아서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나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 앉은뱅이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근본 문제, 즉 우선 순위를 모르는구나. 저 사람에게 돈 한 푼이나 옷 한 벌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저 사람에게 있어 근본 문제인 일어나 걷는 것을 해결해 주어야겠다.'

베드로가 "주목해서 나를 보라, 은이나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고, 걸어 성전에 들어가 찬미했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행 3 : 1~11).

오늘날도 병든 가정이 많습니다. 사회도 반신불수와 같습니다. 절반은 괜찮은데 절반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아내는 괜찮은데 남편이 잘못되었고, 남편은 좋은데 아내가 잘못되었고, 부모는 괜찮은데 자식이 잘못되었고, 자식은 괜찮은데 부모가 틀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부 반신불수 같고 병이 들어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전 인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해결해야 합니까? 지식이나 과학으로 됩니까? 오히려 지식과 과학의 발달로 개발된 핵무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됩니까? 물질은 자꾸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돈을 조금 벌면 더 벌겠다고 도둑질하고, 밀수하고, 온갖 부정을 저지릅니다. 따라서 물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은이나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가 일어나 나가서 일하여 먹고 살고 사회에 유익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날 병든 가정, 사회, 나라, 인류의 문제는 지식, 과학, 무기, 물질 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경제문제는 국제문제요, 국제문제는 인간문제요, 인간문제는 윤리문제요, 윤리문제는 교육문제요, 교육문제는 종교문제요, 종교문제는 복음문제입니다.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용기의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행 2 : 32),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 : 36).

이때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

겠느냐고 물었습니다(행 2 : 37). 베드로는 강하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 : 38)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행 2 : 41).

이들은 분명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았다는 말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직분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지 않고, 모이기를 외면하고, 주말만 되면 낚시나 골프를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선생님을 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정신, 사상, 인격, 생활, 가치관을 닮는 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용기 있는 설교로 하루 삼천 명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일에 용기를 발휘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나쁜 일에 용기를 발휘할 때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 'Middle Land' 라는 곳에 한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 앞 무덤에 오른 손목이 없는 여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중세기 회교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십자군에 나간 무사 하나가 그만 사악한 회교 정복자 왕에게 포로로 잡혀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무사의 약혼자가 그것을 알고는 대왕에게 간곡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대왕이여, 그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약혼자입니다. 너그럽게 생

각하시고 석방해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나 몇 번을 간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물러서지 않고 또 편지를 썼는데 그 사연이 너무 애절하여 왕은 이 여자가 진짜로 약혼자를 사랑하는지 보려고 손목을 하나 잘라 보내면 놓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의 전갈을 받은 여자는 당장에 칼을 가지고 도마에 오른 손목을 올려 놓고 잘라 헝겊에 싸서 왕에게 보냈습니다. 감탄을 한 왕은 그 약혼자를 여인에게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기념하기 위해 손목이 하나 없는 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의 용기가 약혼자를 사형에서 건져내 같이 행복하게 살게 된 것처럼 선한 일에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의 용기 있는 설교 때문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감화를 받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분명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렇게 돌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뼈가 튀어나오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고,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이 햇빛처럼 빛날 수 있을까? 어떻게 원수를 위해 축복기도를 해주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에 대한 강한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스데반의 용기가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을 건져냈습니다. 이 스데반의 용기는 다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행 7 : 51~54).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 장면을 사울이 보고 '저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과연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에 대한 감동이 그 마음에 자리잡고 있다가 마침내 다메섹에서 예수 앞에 고꾸라진 것입니다. 용감한 설교에는 반드시 감동과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아마존강 상류에 가면 나체로 원시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는 보통 사람은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 평신도 내외가 죽음을 무릅쓰고 성경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나중에는 친구가 되고 원주민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용기 없이는 영혼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으로 망명 온 러시아의 솔제니친이 "오늘 서구 사람들은 용기를 잃었다."라고 비평했습니다. 물질 문명과 현실에 도취되어 편안한 생활로 자족하고 선한 일에 도전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며 용기를 잃었다고 그는 개탄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존재의 용기」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은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 허무성과 무의미성에 대한 불안, 죄와 죄책감에서 오는 불안 때문에 실망하고 용기를 잃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참 신자들은 참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도 용기 있는 생활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감격, 부활의 신앙,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서 용기 있게 예수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안(요 20 : 19~23)
우리의 피난처(시 46 : 1~11)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자(요 14 : 25~27)
정신적 불황을 극복하자(왕상 19 : 1~8)

진정한 평안

요한복음 20장 19~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예루살렘 으슥한 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착잡했습니다.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도 사랑하던 선생님이 돌아가시자 슬픈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고, 또한 남은 살려주고 말없이 강도 틈에 끼여 죽어 무덤 속에 내려가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기대 속에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자신들의 삶이 너무도 허무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악당들은 그의 제자들을 전멸시키고자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인기척만 나도, 낙엽 뒹구는 소리만 들려도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방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20 : 19, 21, 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이 말이 꼭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용기가 생겼고,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그후에 들어왔으나 기쁨도 없고, 용기도 없고, 평안도 없었습니다. 바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가진 사람,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용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또 오셔서, "네가 꼭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 본 다음에야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도마에게도 기쁨과 용기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인도에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할 정도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의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인구 폭발 지경에 놓여 있고,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대기는 오염되고, 살인 무기는 나날이 무섭게 발달하고, 자연 생태계는 파괴되고, 전쟁과 무력 혁명은 여전히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기근과 이상한 질병은 점점 만연해 가고, 도덕은 부패해 가고, 가정은 파괴되어 가고, 청소년의 범죄는 날로 늘어만 가고, 흉악범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등의 많은 현상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혼돈의 세계, 불확실한 세계, 불연속성의 세계, 위기의 세계, 불안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수가 있고, 걱정, 근심, 초조감,

불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흔들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바다 깊은 곳과 땅 깊은 곳, 또 돌 속에 진주, 황금, 다이아몬드가 있듯이 이러한 위기와 혼돈과 불확실, 불안의 세계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평안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부활과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락방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확실히 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용기와 평안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에 대하여 자신이 없고 믿음이 희미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나 용기,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흔들림과 상관 없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입니다.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 보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셨다는 사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이요, 역사적인 부활이요,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요 20 : 24~25).

물론 예수님의 부활에는 악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 돌무덤의 장사, 로마 사법에 의한 인봉, 로마 군인들의 보초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 자신을 빛이요, 진리요, 선이요, 생명이요, 사랑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고, 진리는 거짓을 이깁니다. 선은 악을 이기고,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생명은 사망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허위를 이긴 진리의 부활이고, 빛이 어둠을 삼킨 부활이며, 악을 이긴 선의 부활이고, 미움을 이긴 사랑의 부활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꼭 부활해야만 하는 절대적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거하며, 산 구주가 되기 위해, 그리고 의에 대한 확립과 장차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석가는 사람의 아들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죽고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는 것이 헛것이며,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는 무엇을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몇 가지 그때의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겁이 나서 주님의 눈앞에서 도망가고,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립되었다는 사실과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때리고, 옥에 넣고, 죽이는 가운데서도, 순교의 자리에 나가면서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다는 사실, 또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것이 큰 증거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리새 교인으로서 율법학자이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돌이켜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약성경의 절반을 썼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

매가 되셨도다"(고전 15 : 20).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첫 열매이신 그분을 따라 계속해서 열리는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능력, 공의, 사랑,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성서를 믿는 것 등을 통해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 위에 떨어져 그냥 있으면 10년,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요 12 : 24). 썩어져야 그후에 새 생명이 나온다는 사실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가 우리의 부활을 확신있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지으셨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두 번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 만드는 것보다 두 번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악한 자는 나쁜 곳에 보내고, 의로운 자는 좋은 곳에 보내십니다. 유명한 시인 테니슨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죽어 썩으라고만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한 것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을 일으키십니다.

또한 물리학적으로 증거됩니다. 초 한 자루가 닳아 없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초가 다 닳아 없어졌다고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태가 변했다고 합니다. 원소는 불변합니다. 물질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물이 물로 있을 때는 액체이지만 얼었을 때는 고체이고, 증류수로 날아가면 기체인 것처럼 물질은 형태가 변할 뿐 불변합니다.

1288년이나 된 중국의 연꽃 씨 하나를 UCLA에서 가져다가 꽃을

피웠다는 기사를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의 레드 파크에 가보니 5,000년 된 푸른 소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연꽃 씨 하나만도 못하겠습니까? 이 소나무 하나만도 못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현재의 몸과 부활한 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의 몸은 썩을 것이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현재의 몸은 욕된 것이나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이고, 현재의 육체는 약한 것이나 부활의 몸은 강한 것이고, 현재의 몸은 육이고 부활의 몸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작은 곤충에서부터 놀라운 변화(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 장구벌레가 모기로 변해 나오는 것, 누에가 나비로 변해 나오는 것 등)가 일어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즉 그의 공로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잠 28 : 1).

독일의 철인 칸트가 말하기를 "하늘을 보니 반짝이는 별이 있고, 내 마음속을 보니 반짝이는 도덕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양심을 말합니다.

인간은 양심적인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나쁜 짓을 하고도 감각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하

는 도둑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안함이 있지만 아직까지 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시 31 : 9~10).

이것은 다윗이 나라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일선에 나가서 싸우는 충신의 아내를 범한 후에 그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어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고백한 시입니다.

유대 나라의 오랜 율법은 유부녀를 범한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길, 그래도 내가 고생 끝에 왕까지 되었는데 백성들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범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하며 밤잠을 자지 못하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겠습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시 6 : 6)라고 고백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범죄하고 나서 흘리는 눈물이기도 했지만 회개하고 나서도 통분히 여기는 눈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생 동안 새벽 닭 울 때마다 통곡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양심적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죄나 자범죄를 그냥 가지고 있다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 : 28) 하심과 같이 나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

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와 같이 와서 의논하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리라."(사 1 : 18)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요일 1 : 9)라고 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믿고, 세리와 같이 "내가 과거에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약해서 죄 지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너는 의롭다. 너는 나의 아들딸이다. 네 죄를 내가 덮었다. 네 죄를 등 뒤에 던졌다.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죄 지은 문서를 다 불태워서 소멸해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내가 한국에서 지은 죄, 미국에서 지은 죄, 집에서 지은 죄 하며 자꾸 죄 이야기만 합니다. 성경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린다고 말씀했습니다(잠 10 : 12).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때로는 부부간이나, 자녀들에게도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다 덮어서 잊어버리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적어 놓거나 아이들이 못되게 한 것을 따로 적어 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못된 인간도 사랑으로 허물을 다 잊어버리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들이 지은 시시한 죄들을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를 회개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잡아먹은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견디지 못해 토해낸 것처럼 죄를 품고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일 때 교회에 나오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고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지만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보상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가 495장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에 참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모든 것을 내놓으십시오. 마음을 쪼개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면서 회개하여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족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눅 12 : 15).

집이 좋다고 평안한 줄 아십니까? 옷을 잘 입었다고 평안한 줄 아십니까? 좋은 자동차를 탄다고 평안한 줄 아십니까? 먹을 것이 많다고 평안한 줄 아십니까? 그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분수에 맞게 살고 있다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평안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 : 12).

바울은 의식주에 완전히 자족할 줄을 알았습니다. 집도 없었지만, 그래도 가는 곳마다 잘 데가 있고, 옷이 많지 않았지만 춘하추동 벌거벗지 아니하고, 양식이 없어서 어느 때는 굶기도 했지만 자족을 알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가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넓은 중앙통 광장 거리에 말 타고 있는 장군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군은 스페인과 더불어 싸워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를 독립시킨 영웅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사람들은 자기네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군인입니다. 나는 정치를 모릅니다. 산 속에 은둔해 있는 정치가를 데려다가 대통령을 삼으십시오."라고 말하며 사양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아르헨티나의 혼이라고 하며 높은 곳에 동상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족한 것을 알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딤전 6 : 7~10).

돈을 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악이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처자보다 이웃보다 형제보다 친척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돈을 하나님으로 아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것에 대한 욕심은 가질지언정 물질에 대한 욕심은 모두 버림으로써 마음속에 참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국의 여행가들이 중동에 갔더니 "당신들, 저 사막의 현인 한 분을 만나고 가십시오."라고 하기에 계획에는 없었지만 그를 찾아갔습니다. 현인은 그 뜨거운 햇볕 아래 풀 한 포기도 없고 그늘 하나 없는 데서 다 떨어진 장막에 닳아빠진 신발과 밥 해먹는 깡통 몇 개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존경받는 현인이고, 철인이고, 선생인데 왜 가구가 전혀 없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당신들은 왜 가구가 없습니까?" 하고 그가 되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행 중이니까 없지, 서울에 가면 많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자는 "나도 지금 여행 중이니까 없지, 내 본향에 가면 많이 있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지나치게 쌓아 놓는 것은 어리석은 개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머니 없는 옷이라고 하는 수의를 입고 갑니다. 이제 영적인 부족은 느낄지라도 물질적으로는 족한 줄 알고, 도덕적으로는 올려다보고 물질적으로는 내려다봄으로써 오늘 우리들의 처지에서 족한 줄을 알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 남편이 훌륭하고, 내 아내가 최고이고, 내 부모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이 하버드 대학에는 가지 못해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현재 죄인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족한 줄 아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인간 관계를 바로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 : 23~24).

인간관계를 잘 맺은 사람은 아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부자간에 싸우고 등을 지고 있는 사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자기에게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천국 시민의 일곱 가지 자격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차지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배가 부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지만 화평하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에서와 야곱이 싸웠고, 요셉과 형제들이 그렇게 다투었고, 또 아비멜렉이 그 형제 72인을 모두 죽였고, 사울 왕이 사위 다윗을 미워하고,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이 원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아는 권사님을 보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 기도, 금식에도 열심이며, 병자도 고치고 방언도 하시는 분인데도 며느리와는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화평이라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요일 4 : 20).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 : 32).

성경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임금님이 빚을 갚으라 하니 그 사람이 "지금은 갚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라고 사정하자 "그러면 내가 다 탕감해 주마. 사정이 딱하구나." 하고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다

가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는데 그가 못 갚겠다고 하자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일을 안 임금님이 일만 달란트 용서해 준 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마 18 : 23~35).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용서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의 원리를 말하면서 "교회의 원리는 사람의 몸과 같다. 머리는 그리스도다. 지체는 우리 신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붙어 있어야 하고 모두 중요하다. 각각 다 사명이 다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전 12 : 12~27)라고 하며 지체의 다양성과 다양한 의무, 공통된 중요성, 지체의 연결성, 통일성을 말했습니다.

이 말은 큰 집에는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하고, 금 그릇, 간장 종지가 다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모두 필요합니다. 꽃도 여러 가지라야 화사하고 무지개도 일곱 색이어서 더 영롱한 것처럼 모두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요사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 끼리끼리만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체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과 같이, 말하기 싫은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예수님이 떡 주고, 고기 준 것처럼 사랑으로 감싸야만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와서 빌기를 바라고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도 원수 맺고 지낼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지체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개성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 사람의 경험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

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 겸손, 사랑, 봉사, 희생의 마음을 소유한다면,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부모와 더불어 부부지간, 자식, 친척이 하나가 되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흑인과 백인과 히스패닉과 일본 사람 등 여러 인종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랑의 매듭을 맺는다면 미국이 더욱 평안과 화평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3단계로 살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는 회고하고, 현재는 충실하고, 미래는 소망으로 삽니다. 그리고 인생을 복중 일생, 현생 일생, 내생 일생의 삼생이라고 말합니다. 복중은 9개월 반, 이 세상은 건강하면 80세, 90세, 100세 그리고 그후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한 준비인 것같이 우리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200년, 300년, 천 년을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는 유대 시민, 로마 시민, 천국 시민, 세 가지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국 시민, 미국 시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은 절대 권위의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이므로 거짓이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쁜 것도 말하고, 좋은 것도 말합니다. 세상 책은 나쁜 것은 다 감추고, 좋은 것은 침소봉대하지만, 성경은 진실 그대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천국은 정의의 나라, 진리의 나라, 화평의 나라, 영원한 나라, 보석성, 진주문, 황금길, 생명강, 생명나무, 시간이 쓸데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계 7, 21장).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첫째로 이 세상만으로는 공의의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쁜 짓을 해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의로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 세상만으로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교통사고, 순교로 말미암아 죽음을 원치 않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욕망이 있으면 대상이 있는 것과 같이,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오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영적인 실존자들은 천국에 가보았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스데반, 바울이 가보았습니다. 저도 1948년 여름 강원도 진부성결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린 후 기도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내 몸이 올라가더니 그 영이 멀리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한 곳이 유럽이요, 호주, 북극에 있는 스웨덴인데 천국은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을 보았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그가 고개를 들고 보니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행 7:55). 그때 용기를 얻어서 초인적으로 죽음을 감당했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 7:59~60).

신령한 눈을 뜨고 보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의 집을 보리라고 믿습니다.

초대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평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작더미를 쌓아 놓고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형리가 폴리갑 감독에게 "영감,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마디만 하면 이 불에 태우지도 않고 좋은 관직을 주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여보게. 내 나이 86세라오. 내가 86년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 늙은이가 지금 와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소?"라고 했습니다. 또 형리가 "영감, 불지르면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라고 하자 그는 "자네,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 지 아나?" 하며 기쁨으로 순교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폴리갑의 그 피는 교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무디는 19세기 초의 사람인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무디가 영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배에서 녹초가 되어 잠을 자는데 풍랑을 만나 배가 기울어졌습니다. 이때 신자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미국에 못 가고 바다에 빠져 고기밥이 될 것 같은데 왜 주의 종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계십니까?" 하며 깨웠습니다. 이때 무디 선생은 기지개를 켜면서 "왜 그러십니까? 살면 미국 가고, 죽으면 천

국 가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소유합니다. 김활란 박사는 숨을 거둘 때 유언으로 "내 장례식에 슬피 울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하시오. 기쁨으로 찬송할 사람만 오라고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1996년 4월, 미국이 불경기 속에 있고, 우리는 문화적인 장벽, 언어의 장벽, 가치관의 장벽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으며 또 강력범이 날뛰고 가끔 지진이 나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베드로가 옥중에서 자유를 누리고,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을 하고, 순교자들이 처형장에 가면서 찬송을 하였듯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죄를 회개한 사람, 족한 줄 아는 사람, 인간관계를 바로 맺고 사는 사람,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평강을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 : 1, 27)고 하신 것처럼, 이 다섯 가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시편 46편 1~1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훤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랍과 미국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미사일과 전폭기의 폭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보존하고자 피난하는 사람들을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제2차 세계 대전, 한국전쟁도 당해 보았기 때

문에 전쟁이 났을 때 피난처를 찾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사람, 안전한 지형지물을 찾아가는 사람, 그 나라를 탈출해서 안전한 나라로 도피하는 사람…….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산성, 힘, 피난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피난처가 되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피난처입니다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군비를 강화하고, 방공호를 대비하며, 성을 높이 쌓고, 육체적 생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장군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모리아 산꼭대기에 세운 큰 도시입니다. 성은 큰 돌로 높고 튼튼하고 두껍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앗수르의 대군이 와서 첩첩으로 포위한 까닭에 식량문제, 음료문제, 원군문제 등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때 적장은 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항복을 강요했고, 항복하라는 편지를 임금에게 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편지를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고하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왕하 19 : 8~19).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훼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왕하 19 : 14~19).

이 기도를 올렸더니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왕하 19 : 35). 다시 말해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밤에 천사가 나타나 그 군사를 쳐 멸절시킨 것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그 백성의 육신을 살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자기 일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역사에 관한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 : 15).

전쟁의 최후 승패의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 127 : 1).

인간이 온갖 노력을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 주셔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청주에 공산군이 들어와서 지식층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국군이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파 놓은 큰 웅덩이에 넣고 모두 총살해서 묻고 떠났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그 사람은 첩첩 쌓여 있는 시체 사이를 헤집고 일어나서 보니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선생으로 있던 이용신 선생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분만 살았습니다.

그후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 지금 서울 서호성결교회 당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알래스카에 간 이중용 목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곳에 우리 육체의 피난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전쟁 때의 일입니다. 피난을 늦게 간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노모와 처를 두고 오토바이를 타고 김천 낙동강까지 갔는데 미국의 B-29기가 나타나서 공산군이 많은 곳에 무차별 폭격을 가해 그 청년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모와 처는 살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지켜 주셔야 육신의 생명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공산군이 남쪽까지 쳐내려와서 통영에 이르렀습니다. 해병대 김성훈이라는 분은 장로의

아들이었는데 그도 지금은 장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인민군과 싸워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주먹밥을 주면서 주먹밥을 쥐고 기도하는 아이를 골라내서 빼놓고 나머지는 총살을 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피난처는 땅을 깊이 판다고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 자비, 능력의 하나님만이 육신의 진정한 피난처이며,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참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은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는 46편을 가지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는 찬송가 384장 찬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것을 루터의 시편이라고도 하고, 그의 비석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 : 1)고 새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전쟁터에서 우리 육신의 피난처는 우리의 힘, 산성, 방패,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적 피난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적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철학을 연구하고, 금욕생활을 하고, 선행이나 오락, 물질로써 불안감을 잊으려고 하고, 또는 처자를 버리고 수도원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신적인 평안,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많은 역사가, 지성인, 부자, 권력가들이 여기서 정신적인 만족을 얻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8세기 문호 톨스토이는 공부를 많이 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를 여행하며 공부도 하고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명예와 재물도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도 넉넉하고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늘 정신적인 만족이 없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한번은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부가 거름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얼굴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마치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궁금하여 물었더니 그 이유인즉,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거기서 충격을 받아 4복음서를 몇 번 정독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성경 66권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5~7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보석과 같은 장에서 그는 정신적인 안정, 평화, 만족, 행복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20세기를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경제, 실패, 자녀교육, 노쇠, 천재지변, 지진, 강력범, 전쟁,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 안정을 잃어버리고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일본의 하천풍언은 독서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일본의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여러 종교도 연구하고 많은 학자들과 토론도 한 사람이지만 정신적인 안정과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준 성경 첫 장 첫 절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 : 1)는 말씀을 읽고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서 너무 기뻐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서 일본의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고, 「사선을 넘어」, 「한 알의 썩은 밀알」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동양의 성자, 정신적 지도자로서 미국의 크리스천 대학에서 졸업식 때 설교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인 안정은 어떤 물질, 음식,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올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까지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42년간 한국에서 민간 목회와 공군 목회,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예외없이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당할 때마다 낙심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시편을 펴서 계속 읽었습니다. 어떤 때는 시편 1~150편을 여러 번 읽고, 그런 후엔 잠언도 읽고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집이나 교회에서 아니면 산에 가서 성경을 읽고,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정신적인 염려가 다 눈 녹듯 사라지고 안개가 걷히듯 없어지고 평화가 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을 찾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 기쁨, 만족이 용솟음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가서를 읽기 바랍니다. 자녀문제가 있습니까? 잠언을 읽기 바랍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를 당했으면 마태복음 6장, 실패했을 때엔 욥기서를 읽기 바랍니다. 믿음이 식어졌으면 히브리서 11장, 세상에 자꾸 끌리면 전도서, 기도가 막히면 시편, 사랑이 식었으면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 게을러지면 야고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사무엘상,

앞이 캄캄할 때는 요한계시록, 능력을 잃었을 때는 사도행전을 읽으십시오.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도 학자, 대학교수, 철학자로서 윤리를 가르치고, 돈과 명예도 얻고 여자도 많이 상대해 보았지만 정신적인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 13, 14장을 읽다가 정신적인 안정을 얻었다고 합니다. 성 프랜시스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 : 29)는 말씀을 읽다가, 선다싱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 : 28)는 말씀을 읽다가 정신적인 안정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 : 6~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벧전 5 : 7)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육신에 병이 나면 물론 기도도 하지만 의사에게 가라고 권합니다. 의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특별 직업입니다. 의사에게 가는 것이 불신앙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기도하고 의사에게 가서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병원에 가지 않아서 죽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도 하고 의사도 찾아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특히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쌍화탕, 아스피린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신과 의사 중 자살자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를 여러 명 알고 있는데 제게 상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도 인간이기에 유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우

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병이 있으면 기도와 병행해서 의사를 찾으면 되지만 정신병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정신을 만들어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가야만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혼입니다. 집이나 자동차, 카메라, 텔레비전 등이 귀하다고 하지만 전쟁이 나서 불바다가 되면 다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옷 입고 가다가 옷에 불이 붙으면 벗어 버리고 갑니다. 인간에게 귀한 것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벧전 1 : 24~25).

즉 육체는 없어지지만 영혼은 주의 말씀을 통해 영원토록 살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으면 산 것이고 영혼이 나가면 시체가 됩니다. 시체는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가죽이라도 쓰지만 사람은 죽으면 그냥 땅 속에 묻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가죽조차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 16 : 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전쟁하며 삽니다. 날마다 마귀와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 : 31)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적군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영혼은 죽지 않고 육신만 죽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죄와 싸워서 지면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와 더불어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네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따라다니는 고착성, 자꾸만 자라나는 발육성,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는 방해성,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지는 파멸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많은 고통을 당한 이들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 군인, 혁명가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왕이 되어 교만해서 늦잠을 자다가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나중에는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에 죄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마귀가 알고, 내 스스로가 알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시 6 : 6),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시 51 : 17).

이렇게 회개하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표시로 평화의 왕 솔로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시 59 : 16~17).

다윗이 이처럼 영혼의 피난처를 찾아서 다시 믿음과 기쁨을 찾고,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영혼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틴 루터가 법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별안간 소나기가 내리자 나무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루터는 크게 깨달아 법학을 그만두고, 산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어 천주교 신부의 후보생으로서 많은 고행과 금욕생활과 선행과 덕행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1510년 그는 교황을 만나기 위해 로마를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로마의 부패상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즉 스칼라 성당에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곳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입을 맞추고 "마리아여, 하나님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역시 평안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 : 17)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교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즉 노력, 선행, 덕행을 쌓아도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으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정으로 영적인 평안을 얻으려면, 나의 선행과 헌

금, 금식, 철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부족을 간절히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어야 합니다. 강도가 순간적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직 믿음이 있어야 영혼의 만족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 : 28).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 : 18).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 : 24).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요 3 : 16).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린 특선자에게 많은 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제로 여러 사람이 그림을 그려 왔는데 눈에 띄는 그림은 석양 노을 넓은 초장에 소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모습,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날아오는 모습, 어린이가 어머니 젖꼭지를 물고 잠든 모습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당선된 작품은 잔뜩 흐린 가운데 하늘에 먹구름이 덮였고, 바닷가 높은 절벽 밑에는 큰 파도가 치고 폭풍도 몰아치는데, 절벽 한가운데 구멍이 있어 거기에 독수리 새끼 두 마리가 편안하게 앉아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시 18 : 2).

우리에게 있어 무엇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요즘 유대 사람들은 테러를 막기 위해 철망을 만들고 담을 쌓는데,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큰 절벽 반석 가운데 난 구멍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늑대가 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곰, 사자, 사람이 올 수 있습니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의 도피처는 만세 반석 되시는 하나님 품인 줄 믿습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자

요한복음 14장 25~27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미국에서의 이민생활이란 매우 바쁜 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민 교포들은 이런 쫓기는 생활 속에서 항상 불안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든이란 사람은 현대를 가리켜 '불안의 시대'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불안, 죄, 투쟁, 죽음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고,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현대인이 불안한 원인은 바로 자신의 존재가 비존재화하는 것에 대한 공포"라고 말했습니다.

넓은 관점에서 '불안' 을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안의식에 점점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 대한 불안, 핵무기에 대한 불안, 자원 고갈에 대한 불안, 식량에 대한 불안, 정치에

대한 불안, 질환에 대한 불안 등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것으로 어디를 가나, 특히 배운 사람들에게서 이 불안의식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슈바이처가 의료 활동을 하던 아프리카 콩고의 고이강이 있는 동네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 머무르면서 통나무 배를 타 보았습니다. 그때 흑인 두 사람이 저를 태우고 강을 오갔습니다. 현대 문명과는 아주 동떨어진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미개의 땅이요, 좋게 말하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대개 언덕가에 집을 지어 놓고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고,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그들은 오히려 오염도 없고, 전쟁, 핵무기, 식량 걱정 없이 사는 참 평안과 행복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 같은 특별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진 문화권에 산다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불안의식은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도, 아프리카 밀림 속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심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보다도 미국의 백악관, 정보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불안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보다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안할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당선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망신당할 것인가 등 온통 불안의식이 가득합니다.

또 좁은 관점에서 볼 때, 즉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만 살펴보더라도 가정문제, 자녀문제, 폭력문제, 지진문제, 달러의 폭락 등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편안한가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은 의견이 맞지 않았는지 아니면 성격이 맞지 않았는지, 그저 그럭저럭 재미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목사님이 몇 가정 부부를 모아 놓고 각자의 가정에 대해 얘기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이 부부는 자신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부부들도 모두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위로를 받고 교회를 잘 안 나오던 부부가 이제는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불안의식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이면 불안의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몰아내고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불안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적을 이기려면 먼저 적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가, 둘째로는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불안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 불순종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 : 8~10).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

다. 왜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까? 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의 대상을, 친근의 대상을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 : 16~17).

하나님은 다른 것은 만져도 되고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가 뱀으로 나타나서 이 약하고 허영심 많은 여자인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저걸, 먹지 말라더냐?"

"그렇다."

"먹으면 죽지도 않고,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창 3 : 5)

여기에 여자가 유혹을 받아 똑같은 과일인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창 3 : 6).

주위 사람에게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보면 모두가 좋은 것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전부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나쁘게 보입니다.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꾀는 말로 만약 먹을 경우 죽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와는 똑같은 것인데도 그 과일이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먹음직도하고, 보암직도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는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죄를 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후 영광의 옷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보였습니다. 죄가 생겼습니

다. 이것은 땅의 지혜이지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결국 죄를 짓는 땅의 지혜가 생겼으며 거짓말하는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우리 가정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아내의 나이가 벌써 환갑을 넘었습니다. 경상도 사람에다 황씨에다 옛날 사람이라 아주 보수적입니다. 애교도 없는 편입니다. 남들이 말하기를, 서로 성격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렇게 애교가 없어?"

그러자 아내가 대답하기를 "여보, 내가 애교 떨면 당신은 목회 못 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하와에게 언제 애교가 생겼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생긴 것입니다. 하와가 주는 것을 아담이 또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인정과 애교에 못 이겨 억지로 먹었습니다. 아담도 영광의 옷이 날아가 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님께 야단맞을 것을 생각하고 겁이 나서 도망쳐 숨었습니다.

만약 아버지, 어머니가 외출하셨는데, 그 사이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장난하다 화분을 깨뜨렸다고 합시다. 다른 때 같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올 시간이 되면 기다렸다가 문 소리가 나면 금방 달려가서 "엄마, 아빠" 하며 안길 텐데,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으로 말하면 양심입니다. 나라로 말하면 법입니다. 종교로 말하면 계율입니다.

이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것에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주에는 우주를 창조하고,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둘째로는 이 평화의 동산을, 평화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악과입니다. 셋째로는 인간에게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고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 그것을 준 것입니다. 넷째로는 중대한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여기 시험에서 합격하면 내가 중대한 책임을 맡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의 사관학교에서는 네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을 열심히 공부해도 또 내일이 졸업식이라도 오늘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범하면 퇴학입니다. 즉 거짓말, 도둑질, 커닝,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임관되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가 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되고, 미국 대통령을 두 번이나 역임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바로 모든 법과 규정을 지켰고, 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바쁠 때가 있어서 규정 속도가 35마일인데 더 빨리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울로 앞뒤를 쳐다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신하는 마음

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합니다. 그 결과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 짐 길버트(Jim Gilbert)라는 사람은 다섯 살 때, 어머니의 치과 치료에 따라갔다가 어머니가 앉아 치료받으려고 할 때 기계를 대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로 이 사람은 늘 어머니의 순간적인 심장마비를 기억하고, 불안해 했습니다. 특히 치과는 가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한번은 이가 너무 아파 치과를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치과 의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치과 의사가 기계를 입에 대는 순간, 이 사람도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불안이 병을 만드는 요인입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불안은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2) 범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인간은 양심의 동물입니다. 칸트는 말하기를 "하늘을 보면 반짝이는 별이 있고, 인간의 마음속을 보면 반짝이는 도덕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덕률이라는 것은 양심입니다. 어떤 학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노루가 불 속에 들어가 타는 것보다 더 괴롭고, 생선이 가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괴롭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잠 28 : 1).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종로 네거리에 사람들이 전차

에서 내릴 때, 장난으로 경찰들이 "도둑놈, 잡아라." 하고 외칠 때 뛰는 사람은 꼭 도둑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양심의 동물입니다.

제가 23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그 당시에는 영주권이 없었습니다.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가끔 이민국에서 나와 조사해 잡아가곤 했습니다. 어쨌든 이상한 양복만 입고 오면 겁이 덜컥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없어 불안에 떨며 사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한번은 소방서에서 왔는데, 이상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시편 6편 2~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라고 하였고,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이 뜨고 요가 젖겠습니까?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시 6 : 7)라고 한 이 탄식의 시는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서 읊은 시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불안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마 27 : 4~5).

누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죄 없는 분을 은 삼십냥에 팔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가룟 유다가 자살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불안은 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돈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인가? 좋은 집이 행복인가? 좋은 차가 행복인가? 좋은 가구가 행복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제일 큰 행복입니다. 이것이 참행복입니다.

(3) 불신앙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27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던지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주 단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겁이 나서 선생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이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며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보고 책망하신 경우를 성경을 통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적게 믿는 자들아, 왜 의논하느냐?" "적게 믿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적게 믿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적게 믿는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합니다. 강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안은 불순종, 죄, 불신앙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 4 : 12).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즉 영향력, 부흥력, 폭발력, 해부력, 중생력, 성결력, 인도력, 현존력, 상상력, 융화력, 자선력, 교육력, 의료력, 구원력이 있지만 그 외에도 특별히 평화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적, 외적으로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시편을 여러 번 읽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읽고, 로마서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불안이 모두 사라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불안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호흡도 정상적이고, 오히려 기쁨이 생겨나고 힘이 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군 목사로 군종감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계급이 한참 아래인 사람이 와서 저고리를 벗고, 계급 가지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저고리 벗고 하자며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고 그저 성경을 가지고 잠언을 읽으면서 "마음을 편안케 하는 사람은 산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낫다." "분을 내는 것은 좋지 않다." 등의 말씀을 주목하며 계속 잠언을 읽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니까 한참 협박을 하다가 저고리를 입고 그냥 나갔습니다. 제

가 그때 깨달은 것은 말씀을 읽을 때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평신도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 청년이 "목사님, 요새 제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시험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 : 1)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도 죽을 줄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즉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신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시 17 : 8).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듯 하십니다(신 32 : 11).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보호하십니다(마 23 : 37). 선한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 보호하십니다(요 10 : 11).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사 49 : 16)라고 하셨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의 등반대원들이 히말라야 최고봉 8,848m고지를 올라가는데, 그 중 한 사람은 믿는 성도였나 봅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주는 조그마한 포켓 성경을 하나 가져가서는 등산하면서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

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환난에서, 육체에서,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그 시기는 과거, 현재, 영원토록입니다. 결국 그 등반대원은 힘을 얻어 정복에 성공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마 10 : 29).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므로 이 사명 다하기까지는 데려가지 않는다는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은 오래 삽니다. 그러나 자꾸 죽을 것을 생각하고 '오늘 교통사고 나서 죽지는 않을까?' 하고 늘 두려워 떨면 미안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사고납니다.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5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2)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두려움이나 불안을 만날 때는 주 예수의 이름으

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기도하는 골방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마음이 설레고, 좀 두렵기도 하지만 한참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힘이 생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민생활을 하면서 늘 외우고 다녀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국전쟁 때 익산에 이진호 목사님이라고 제 선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공산당이 내려올 때 피난을 가지 못하고 있다가 공산당이 밀어닥치자 양복장 한 귀퉁이에 숨어 이 구절만 계속 외웠답니다. 그런데 인민군들이 구두를 신고 방에 들어오더니 다락문을 열고, 장롱을 열고, 천장을 칼로 퍽퍽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양복장 옆에 마치 바퀴의 모양처럼 숨어 있으면서 속으로만 계속 말씀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다른 곳은 다 열어 보면서 그 목사님이 숨어 있는 곳은 안 열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 카네기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까?" 하고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갈등이나 번민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평안과 능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기업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맥아더 장군은 전쟁 중에도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도 "내가 사령관으로 있었을 때나 미국 대통령으로 8년 동안 있을 때에, 성경 한 구절을 보지 않거나 기도를 안 했더라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눅 22 : 44).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를 질 것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이런 기도를 하고,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런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행 16 : 25~26).

저도 북한에서 1946년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더니 결국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 믿음을 통해서 평안을 얻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온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를 이 바다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불만과 원망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모세 한 사람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

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잠잠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은 눈으로 보리라. 지금은 애굽 병사들을 보지만 앞으로는 못 볼 것이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며칠 내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생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생긴 믿음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본 그 체험을 통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 17 : 20).

여러분, 우리 교회에 겨자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였는데 성장하여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신앙의 사람은 산과 같이 닥쳐오는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으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대서양을 건널 때나 태평양을 건널 때마다 창 너머로 바다를 봅니다. 언제나 넓은 바다에는 파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오늘 이 세상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고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작고 큰 불안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충만하십시오. 힘써 기도하십시오. 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신적 불황을 극복하자

열왕기상 19장 1~8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 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구약성경에 있어서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이고, 선지자의 대표자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능력의 종으로서 한때 그가 기도하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사람이 한 여자가 죽인다고 하자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 한사코 죽

기를 애원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굴곡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광야 로뎀나무 밑에 드러누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다시 그를 일으켜 떡과 물을 먹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역사를 창출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는 엘리야의 힘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 전만 해도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 대 1로 싸워 승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왕상 18 : 16~40). 이때 화가 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일 이맘 때에 생명을 빼앗아가겠다고 했습니다(왕상 19 : 1~2).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쳐 광야 로뎀나무 밑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신자들을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신앙이 뜨겁다가도 어떤 때는 식고, 믿음이 올라가다가도 내려가는 모습을 볼 때 믿음에도 고저나 굴곡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 오늘의 많은 신자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신앙의 고저와 굴곡이 있었고,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정신적 불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느 때 정신적 불황을 겪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꿈과 기대가 갑자기 어긋나는 일이 생길 때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큰 기대와 꿈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부모들은 실망과 좌절과 정신적 불황에 빠지고 맙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보았는데 불합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홉 번째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학생이 정신 이상이 생겨 결국 자살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 학생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시험의 불합격이라는 정신적 불황에서 비롯되었고, 그의 부모도 또한 그 학생으로 인해 정신적 불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만 하더라도 어떤 가정의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 반대로 어떤 가정의 자녀들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 부모들이 정신적 불황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큰 꿈을 이루고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 공허함과 허무감, 고독이 찾아와 정신적 불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빈손으로 이민 와서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이제는 좋은 집과 차를 구입하고 멋있는 가구도 장만하여 경제적 안정을 찾는가 싶었는데, 남편이나 아내의 불화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정신적 불황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잘 알고 사랑하고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죽음이 닥쳐왔을 때 바로 정신적 불황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공포의 시대' 라고 말합니다. 불경기에서 오는 공포, 실직에서 오는 공포, 인종 차별에서 오는 공포, 폭동에서 오는 공포, 불의한 사고에서 오는 공포, 강도의 위험에서 오는 공포, 질병에서 오는 공포, 노쇠에서 오는 공포, 천재지변에서 오는 공포, 죽음에서 오는 공포 등으로 공포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오염에서 오는 공포도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교포만의 문제가 아

니고 미국과 전 세계적인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공포로 인해 많은 정신병자가 해마다 급증하여 모든 나라의 정신병원에 환자가 넘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정신적 불황을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설워커도 찾아가고, 변호사도 찾아가고, 혹은 의사나 심리학자를 찾아가고, 상담학자나 목사를 찾아갑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 다소 도움은 받을 수 있으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 상담자도 역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종말을 가진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그밖의 종교적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을 찾아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7~9절).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두 번 떡과 물을 먹여 줌으로써 엘리야는 힘을 얻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 길을 사십 주야 걸어가서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엘리야만 그렇게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네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찾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러 사십 주야를 걸어 호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도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하나님을 찾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결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능력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실로의 성막에 들어가서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도 수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성전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한숨만 쉬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든지, 성전에 나오든지, 산에 올라가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

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왕상 19 : 11~12).

엘리야가 굴 속에서 기도하는데 별안간 바람이 지나가며 바위가 부서졌습니다.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는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후에 불이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가 그후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주여!" 하며 소리만 지를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에 혼자만 떠들어대면 그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게서 응답을 듣기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고,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고,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가까운 한빛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교인 중 어느 중년 집사님이 열심히 차를 태워 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집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집사님 삼형제는 봉제공장을 하던 중 불경기를 만나 다 망했습니다. 조그만 집도 없어지고, 결국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

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이 집사가 생각나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어 산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그 집사는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후에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분의 사무실에 텍사스에서 보낸 팩스가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1년 전에 옷을 흥정하던 큰 회사에서 이제 그 옷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서였습니다. 그것은 몇 년 동안 작업을 해도 남는 큰 주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벌어 삼형제가 집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교회에도 기념으로 피아노를 헌물하는 등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 경제적인 불황, 정신적인 불황을 만나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절망의 때가 하나님께는 기회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옥중에서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그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랬고, 바울이 지중해에서 그랬듯이, 오늘의 불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구실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불황에 패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불황을 이용하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 한번은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군목은 2년이면 가는데, 제가 적어도 7년 동안을 군종감으로 있으니까 다른 군목들이 시기를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지만, 군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군에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이지만 나갈 때에는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군에 남아 있는데 다른 군목들이 행패를 부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의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군인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제 멱살을 잡아 끌어 제 아내가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행패를 부릴 때 저도 인간인지라 정신적인 불황이 찾아오고,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어떤 장로님 댁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것도 마음이 시원찮아서 삼각산에 들어가 큰 바위 밑에 엎드려 소나무를 붙잡고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잘 풀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 줄 믿고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으면 살아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멜란히톤은 "환난과 곤고가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는 환난과 곤고를 나의 주변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말했고, 영국의 청교도 부르스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웅변적인가 하고 수사학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가 얼마나 긴가 기하학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 산술학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조직적인가 논리학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다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벧전 5 : 7),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 : 15)라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946년 북한 유치장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 한 구절도 본 적 없고, 기도도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인데 무릎 꿇고 "하나님, 살아 계시면 저를 살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나의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기도만 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례 교인의 기도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의 기도만 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려운 일이 있고,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전심으로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일어나 가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여기 엎드려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힘을 주지 않았느냐? 왜 그대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 나가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

라"(왕상 19 : 15~16).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로 인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고, 용기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나가서 일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기름을 붓되, 특별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큰 종인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은혜를 받은 후 그대로 있지 않고 일어나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후에는, 더구나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 : 17).

예수님은 30년 동안 끌, 망치, 대패를 가지고 목수일을 하셨고, 공생애 때에도 어떤 때는 진지 잡수실 시간도 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을 해야 합니다.

요새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다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거나, 골방에 모여 기도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장막치는 일을 하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 : 10)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먹을 시간도 없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들어 쓰셨습니다. 모세도 광야 시내산 밑에서 양을 치며 일할 때 하나님이 부르

셨고, 다윗도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부으셨으며, 엘리사도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셨고, 아모스 역시 뽕나무밭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은 엎드려 있지만 말고, 교회에만 있지 말고, 일어나 나가 일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국 경제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 로스앤젤레스의 경제가 전망이 밝다고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이 태평양시대인데, 로스앤젤레스에는 동양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있고, 둘째는 동양 사람들은 대자본은 아니지만, 적은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불황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꽤 타당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흔연히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존 밀턴은 시각 장애인이 된 후에 불후의 명작 「실낙원」을 썼습니다.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 되어 피아니스트 생활을 중지하고 작곡에 전념해서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화학자 파스퇴르는 불구자였지만 광견병 예방접종법을 발견했습니다.

인간 역사에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을 들라 하면 아마도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서술한 고난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나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활의 고난은, 인간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좌절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오냐,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

시면서 끝까지 일하시다가 최후를 마치셨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라고 볼 수 없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의 고난을 비교할 때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여러분이 잘 아는 덴마크 신학자요, 종말의 시인이요, 철인이요, 목사요, 애국자였던 그룬트비는 그의 조국이 독일군에게 침략당해서 옥토를 다 빼앗기고 습지와 황막한 박토만 남았을 때 담대하게 일어나서 "백성들아, 밖에서 빼앗긴 것을 안에서 찾자. 총으로 빼앗긴 것을 괭이로 찾자. 피 흘리며 빼앗긴 것을 땀으로 찾자."라고 외치며 참으로 20세기의 아름다운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일하면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을 보십시오.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남매와 건강도 잃어버렸지만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다시 일어났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 : 35~37).

부활의 주, 재림의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절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적 불경기와 정신적 불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먼저 생각할 것은 첫째는 새로운 생의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지금도 살아 계시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는 신 · 구약 성경 가운데 정신적 불황을 극

복했던 실제적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도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연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제적 불황은 일로써, 정신적 불황은 기도로써 다 극복하고 새 힘을 얻어 새 역사를 창출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 속의 기쁨

역경의 은총(롬 5 : 1~6)

환난 날의 신앙(시 27 : 1~6)

희망의 하나님(출 13 : 18~22, 고후 1 : 8~11)

시련 속에서 얻는 기쁨(벧전 1 : 3~7)

역경의 은총

로마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1996년 4월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날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때 우리 한인 교포들도 뜻하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흑인들의 폭동의 주대상이 한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경찰이 흑인을 지나치게 구타했고 그 동기가 되는 사건은 어느 한인 마켓의 여주인이 작은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는 흑인을 총으로 쏘아 우발적으로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유증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역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지능적, 정신적, 종교적인 발전과 진보를 가져오게 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구약성경을 읽어 보아도, 일반 역사책을 읽어 보아도, 개인의 전기나 개인들의 간증들을 통하여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성공할 때는 별로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패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을 가지며 유익함을 얻었다는 것이 공통된 고백입니다. 이 역경이 주는 은총은 일반적으로 주는 은총과 신앙적으로 주는 은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역경이 주는 은총입니다

(1)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됩니다.

"……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계 1 : 9~10).

사도 요한은 죄 없는 죄인으로서 에베소의 앞바다 무인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고통, 고독, 그리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계시록 스물두 장을 썼습니다.

마치 낮에는 하늘의 별을 하나도 찾을 길이 없지만 캄캄한 그믐날 한밤중에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배부르고, 편안할 때는 깊이 생각지도 않고 멀리 내다보지도 않으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경 중에서는 지적인 충동과 영의 세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 "인 메모리엄"은 테니슨이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을 때 비애 속에서 쓴 글이며, 「팡세」는 세계적 천재인 프랑스의 파스칼이 높은 다리를 지나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쓴 책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감동을 받는 「실낙원」은 밀턴이 시각 장애인이 되었을 때 지적인 충동과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고,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은 나이 30세에 귀머거리가 되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용

기를 내어 살면서 깊이 묵상하다가 영음을 듣고 작곡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읽어 보아야 할 「천로역정」이라는 책은 영국의 전도자 존 버니언이 영국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그곳에서 쓴 책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쇠사슬에 얽매인 가운데 쓴 서신입니다.

저도 1945년 북한 유치장에서 남한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내일이면 죽는다는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나의 일꾼이 될 것이다." 하는 영음을 똑똑히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역경은 지적인 충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인생들로 하여금 착한 마음이 우러나게 합니다.

"……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눅 15 : 18~19).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지고 갔던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다 없애고 흉년 중에 부잣집 돼지 치는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속에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부자여서 풍족하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은 까닭에 나는 아들이라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일하리라.' 하는 착한 마음이 우러났습니다. 옛말에 새가 죽을 때가 되면 그 노랫소리가 구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말이 착하다고 한 말은 뜻있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방학만 되면 단기 선교 훈련을 시키기 위해 남녀

대학생들을 제3국으로 보냅니다. 성경 구절도 암송하게 하고, 복음성가도 연습시키고, 전도 방법도 가르쳐 주고, 성극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전도사나 목사, 또는 장로가 팀장이 되어서 중국, 러시아, 유럽,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갑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 다녀 온 학생들에게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 곳에서 똑같은 지구촌 안에 가난하고, 미개하고, 먹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의료 시설 하나 없이 미국의 개와 고양이만도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동안 자기들이 게을렀던 것, 허영심을 가졌던 것, 낭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미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태까지 그들이 꿈꾸었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바꿉니다. '외교관이 되겠다.' '사업가가 되겠다.' '정치가가 되겠다.' 하던 마음들이 '의사가 되어서 다시 꼭 여기에 와야겠다.' '목사가 되어서 다시 여기에 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학을 졸업하면 젊은이들을 일단 식민지로 3년 동안 보내서 고생을 시키곤 했습니다. 고생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고학을 하느라고 노동을 해본 사람은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노동자의 임금을 절대로 박하게 주지 않습니다. 여름방학에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음식을 날라주고 팁을 받았던 여학생들은 자리 잡고 잘 살면서 식당에 가면 남보다 팁을 더 많이 줍니다.

일본 경원대학 총장이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할 때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간상을 가르쳐 주지 않고, 가치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또 시대적인 사명의식을 가르쳐 주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

다. 그리고 그들이 고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언젠가는 고생을 할지 모른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형석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일본 상지대학에 다닐 때 하숙집에 있었는데, 부자 아이들은 다다미 방 하나를 한두 명이 쓰는데, 자기는 가난해서 일본 사람들이 신을 벗고 올라오는 마루의 귀퉁이에 양동이와 빗자루와 걸레 두는 곳을 개조해서 개집만하게 만들어서 세를 주어 거기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집 할머니가 오더니 "김상, 당신은 꼭 성공할 거요."라고 했답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라고 물었더니 "내가 수십 년 여기서 하숙을 치는데 돈 많은 부잣집 아이들은 한 사람도 성공했다는 말을 못 들었소. 그런데 여기 와서 자고 나간 가난한 아이들은 꼭 성공했으니 당신도 이 다음에 꼭 성공할 것이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통해서 착한 마음도 생기고, 또한 유익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파스칼은 "인생 문제로 고민하여 밤잠을 못 자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와 인생 문제를 의논하지 말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의논해 보았자 그런 자에게서는 배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3) 강한 정신을 배양시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 : 10).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임금 다음으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중

신들은 시기, 질투, 모략, 중상을 하여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임금의 우상을 만들고는 그것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죽이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에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여전히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불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온 철이 강철이 되는 것처럼, 이 역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강한 정신을 불어넣어 줍니다.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 장교들이나 사병들 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대를 할 때 저에게 찾아와서 제대한다고 인사를 하고 갑니다. 한번은 사병 한 명이 오더니 "목사님, 신고합니다. 이제 제대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네 공군에 몇 년 동안 봉직하고 가나?"

"3년 하고 갑니다."

"3년 동안 배운 것이 무엇인가?"

"네, 이제는 나가서 살 만합니다."

공군에서의 고생을 통해서 자기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어려움을 뚫고 나갈 힘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3대 독자가 군에 입대하여 기합을 받고 나서 첫날 밤 자살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온실에서 핀 꽃은 약합니다. 그러나 알프스 산 응달에, 눈 속에서 핀 꽃은 강합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역경을 통해서 강한 사람이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대인들이 총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의 의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을 막아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금은방도 빼앗겼고, 리커 마켓도 빼앗겼고, 잡화점, 봉제공장, 세탁소도 빼앗겼으니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을 막아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의논했지만 결론은 한국 사람들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철저히 이기주의, 개인주의자들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것이 유대 사람들의 철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이므로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정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에서 이 정신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해방의 소용돌이, 군정과 한국전쟁과 군사 정권과 월남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독일 탄광에서 광부 노릇 하면서, 중동에 가서 노동하면서 그곳에서 연단된 정신과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에 가니 한국 사람들은 바위 위에서도 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뉴욕 맨해튼에서는 남미에서 온 한국 사람들이 과일 가게, 식료품 가게를 24시간 동안 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24시간 가게를 열어 뉴욕 맨해튼의 문화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머리를 잘 쓰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 역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강한 정신을 배양해 주기 때문입니다.

(4) 민족, 국가를 강하게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환이 없었던 민족이나 국가들은 약해지거나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전쟁을 한 민족, 국가는 강합니다. 왜 독일이 강한가를 물어 보았더니 독일은 주변의 아홉 나라와 접경이어서 끊임없이 아홉 나라들과 밀쳤다, 물러섰다 하며 싸우는 가운데 그 민족이 강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히

틀러가 6백만이나 죽였지만 지금도 독일 경제를 유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경제학의 65%, 의학의 25%, 물리학의 22%, 화학의 11%, 문학의 7%를 유대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유대 나라가 강하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는 서른여섯 번 외세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이 열 번이나 무너졌으며, 주인이 스무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나라가 강한 민족, 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와 한국전쟁 때에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한만 통일된다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해질 것입니다.

(5) 인류 문명을 산출합니다.

자연의 혜택이 풍성해서 의식주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 민족에게서는 문명의 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미나 남태평양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좋은 문명이 산출되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는 항상 더우므로 춘하추동 사계절 의복이 필요없고, 그저 짐승 가죽이나 잎사귀로 가리고 살며, 집을 짓거나 담을 높게 쌓을 필요도 없이 나무를 몇 개 박아 놓고, 잎사귀를 덮어 놓고 삽니다.

또 비가 자주 오므로 항아리에 물을 받아 놓으면 되니 우물 팔 필요도 없고, 생선이 먹고 싶으면 강에 가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뒷동산에 가고, 과일이 먹고 싶으면 들판에 가면 됩니다. 또 '만족과' 라는 것이 있어서 땅을 파면 고구마 같은 것이 있어 그들에게는 아무런 전쟁이나 자극이나 욕망이나 꿈이나 충동 없이, 자연 속에서 배가 부르며, 밤만 되면 달밤에 징징징하면서 우상 숭배하며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끊임없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과 질병과 기근이 계속되는 이런 민족, 국가에서 문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빌로니아, 그리스, 로마, 유럽, 인도, 중국 문명이 나온 것입니다.

둘째, 신앙적으로 역경이 주는 은총입니다

(1)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후 1 : 8~9).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옥중에 갇혀 사형 선고를 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막다른 벼랑에 섰을 때 찾는 이가 누구입니까? 처음에는 부모, 형제, 친구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건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저도 1945년에 북한에 갔다가 남쪽 스파이로 몰려서 내일 아침이면 죽인다는 그날 밤에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고생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친구와 함께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날이 흐리고, 구름이 끼면서 갑자기 세찬 비가 내려 고목나무 밑으로 몸을 피했는

데 그때 벼락이 내리쳐서 옆의 친구가 즉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천로역정」을 쓴 존 버니언도 전쟁에 나갔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어느 때 제일 겸허해지고, 제일 전도를 잘 받느냐 하면 어려울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피숍이나 댄스홀이나 극장이나 야구장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아무도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감옥의 사형수들이나 병원의 중환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잘 영접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미국에 있는 육 · 해 · 공군 군목들과 함께 논산 훈련소로 합동 세례를 주러 갔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김봉수라는 대령이 있었는데, 그는 일 년이면 군인들 수천 명을 예수 믿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갓 훈련소에 들어와서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고, 훈련을 몇 번 한 사병들의 내무반에 들어가서 "이 연대의 연대장 김봉수 대령이다. 너희들 군인 생활에 얼마나 고달프냐? 그러나 고달픈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남아로서는 당연한 일 아니냐? 병신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곳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았다. 어려운 문제도 예수 믿고 다 극복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자네들도 훈련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 어려움이 있거든 나를 찾아오너라. 내가 힘껏 도와 주겠다. 예수님 믿을 사람 손들어라." 하면 모두 손을 든다고 합니다.

역경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오클라호마에 있는 큰 건물이 무너진 지가 일 년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백인 교회, 흑인 교회, 한인 교회에 예전보다 몇 배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곳도 그렇습니다. 주일 새벽 3시에 지진으로 흔들리기만 하

면 새벽기도회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2) 인격을 정화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 : 71).

사람이 체력도 중요하고, 지력도 중요하지만 인격은 더 중요합니다. 몸이 튼튼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이 있고,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부한 인간미, 감정과 정서, 온유와 겸손, 정직과 용기, 왕성한 책임감이 다 인격에 속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줄여 말하면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겸손은 재덕의 기초가 된다고 했고, 웨슬레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을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좋은 환경, 넉넉한 시간, 풍부한 물질,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지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2천 년 전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으나 그 지식으로 인해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는 공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식보다 귀한 것이 인격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민 12 : 3)고 말할 정도로 모세가 인격자가 된 것은 고생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죄인 중의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인격자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살고 건강해짐으로서 바르게 살게 되고, 책을 통하여서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인격은 고생을 통해서만이 얻

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 한 톨은 많은 고통을 겪어서 사람들의 음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베어다가 두들겨 방앗간에 가서 다 빻은 후에 씻어서 솥에 쪄야 쌀밥이 되는 것처럼, 보석도 원석을 캐내어 이것을 갈아야 값진 보석이 됩니다. 인격도 이와 같이 고통을 통해서만이 아름답게 형성됩니다. 또한 끌로 여러 번 다듬어야 아름다운 조각이 되고, 퉁소도 대나무를 잘라서 뚫어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여기 강대상도 산에서 베어 실어다가 목재소에서 패고, 자르고, 대패로 밀어야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굶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밤잠도 설쳐 보고, 실패도 하면서 모난 것이 다 떨어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아름다운 인격이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3) 신앙의 연단을 가져옵니다.

"……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 23 : 10).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시 66 : 10).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 : 2~4).

시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곤충학자가 누에가 나비가 되어 나오는 과정을 살피는 가운데, 그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갖은 애를 쓰며 입으로 뜯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구멍을 뚫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나비는 쉽게 고치에서는 나왔지만 날아오르더

니 곧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그대로 두었더니 24시간 뚫고 나오려고 무던히 애를 쓰다가 제 힘으로 뚫고 나온 나비는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고생을 통해서 신앙이 연단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이 날고, 제일 멀리 나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하루살이는 아침에 날다가 저녁에 죽지만 아주 높이, 멀리 나는 독수리는 태어나자마자 얼른 못 날고 천천히, 거듭된 훈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어느 기록 영화를 보았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이 어미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한 달이 되어도 못 날자 자기의 등에 얹혀 놓고 저 푸른 바다 창공에서 뒤집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물에 다 닿아 갈 때 휙 채가서 살려 놓습니다. 이 일을 며칠 동안 반복합니다. 한번은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가지고 오더니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앞의 나뭇가지 꼭대기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훈련시켜서 자기 목숨을 지키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7일간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카이로까지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또 카이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였습니까?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강한 족속들입니다. 만약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전부 죽고 전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장을 시켜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점령해서 새 나라를 건설하게 하기 위해 훈련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일제의 침략과 전쟁, 군사 정부를 거쳐, 미국에 와서까지 지진과 강도, 불경기에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은 마지막 때의 이 영적 전쟁에서 이단과 마귀와 싸워 이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계획된 훈련 기간인 줄을 믿으시고,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 사랑의 채찍입니다.

"……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히 12 : 5~6).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히 12 : 11).

모든 사랑하는 아들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복 받는 아들들을 채찍질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는 아들은 참아들이 아니고 서자라고 했습니다. 옛말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은 매 한 대 더 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매를 안 맞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염이 하얗게 난 할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때리셨습니다. 비가 오면 물장난하러 나가고, 봄이 되면 버들가지 피리를 만들어 놀고, 겨울이 되면 썰매를 타고 놀다 저녁 때 들어오면 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글을 몇 번 읽으라고 했는데 읽었느냐? 써오라고 한 것 다 썼느냐? 암송하라는 것 암송했느냐?"라고 물으시고는 안 한 저를 때리셨습니다. 아주 무섭고 아프게 때리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려서 철이 없어 속으로 무엇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할아버지는 점점 늙어가고 나는 젊어가니 이 다음에 두고보자.' 라

고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 집 뒤로 공동묘지를 향하는 상여가 나갈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는 언제 죽어 저렇게 나가지?'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할아버지의 징계로 이만한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할아버지의 회초리 덕인 줄 압니다. 지금도 저는 방에 예수님의 사진과 우리 할아버지의 사진을 놓고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잘못할 때 때리십니다.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교만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성경을 더 읽습니다. 성경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집니다. 믿음을 측정하는 기회가 됩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회개하는 기회가 됩니다. 채찍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5) 영원을 바라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눅 23 : 42)라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갈망했습니다.

이 세상에 새빨간 거짓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는 것,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는 것, 노인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을 과학만능시대라고 하지만 과학이 죄 문제, 고통 문제, 죽음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평등합니다. 죽음은 보편적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한 번 죽습니다. 죽음은 절대적입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극비입니다. 내가 차를 사

고 몇 시간 후에 죽을 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죽음은 선후가 없습니다. 늙었다고 먼저 가고, 젊었다고 늦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여섯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암에 걸려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첫번째로 "내가 왜 암에 걸려요? 내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하며 부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암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는 교섭을 합니다. "하나님, 몇 해만 더 살려 주십시오." 그러다 하나님이 안 들어 주시면, 세 번째로는 분노합니다. "섭섭합니다. 너무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좌절 상태에 빠집니다. 다섯 번째로 수용을 합니다. "할 수 없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영원을 바라봅니다. 하늘나라를 동경합니다.

성경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 27 : 1),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전 7 : 2)라고 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범인이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철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 중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일년 중에는 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성공도 있지만 역경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인간 역사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성공만 계속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역경을 당하면서도 그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모두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해산의 고통이 지나야 아기를 낳습니다. 회오리바람은 하루종일 부는 법이 없습니다. 비가 온다고 태양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은 자기 포기보다 나은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생한다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배 밑에는 짐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을 당함으로써 참으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일반적으로 지적인 충동과 영음을 듣게 하고, 착한 마음을 갖게 하고, 강한 정신을 불어넣고, 강한 민족을 만들며, 문명을 산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인격을 정화하며, 신앙을 연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며,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입니다.

좋은 뱃사공은 바람이 세게 불면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더 빨리 몰고 간다고 합니다. 좋은 목수는 나무 뿌리 하나까지 버리지 않고 이용한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폭풍이 일 때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처럼 훌륭한 신자는 역경을 통해서 손해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부활이 있었겠습니까? 가시관이 없었더라면 면류관이 있었겠습니까? 무덤에 안 내려가셨다면 보좌에 앉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생을 사는 동안 실패가 오든지, 질병이 오든지, 역경이 오든지 잘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경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고 승화의 은총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의 신앙

시편 27편 1~6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본 시편 27편은 다윗 왕이 마지막 때에 쓴 시입니다. 다윗은 유대 땅 목축하는 집안의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양을 칠 때, 독사의 위험, 맹수의 위험, 강도의 위험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소년 때에 전쟁에 나간 세 형님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 주러 심부름 갔다가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는 키가 9척이고, 온몸에 갑옷을 입고, 그의 창과 칼은 도리깨 장치와 같았으며, 그 위엄 앞에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양을 칠 때에 사자, 곰을 물리치던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가서 적장의 이마를 맞춰 적장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곧 뛰어나가 적장의 칼을 빼어 적장의 목을 치니, 적군들이 이에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쳐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노래하니까 장인인 사울 왕은 시기, 질투, 분노, 증오로 불타서 구국 공신이며 사랑하는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창을 던지고, 몇 번이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죽음을 피해서 황야로 많이 쫓겨다녀야 했고, 들판에서, 바위 틈에서, 굴 속에서 숨어서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고 난 후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 나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7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으로 환도해서 왕 노릇할 때에 여러 번 이웃 나라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내적인 우환뿐만 아니라 외적인 우환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 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해서 시를 읊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자기를 초막 속에 비밀히 감춰 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앉게 해서 온갖 위험을 물리쳐 주시고, 살려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살다가 어려울 때 시편 23편, 27편, 46편, 91편, 121편을 읽으면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환난 날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큰 환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독일의 시인 바이런은 어느 가을밤 한밤중에 달을 쳐다보면서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너는 오대양 육대주를 비추고 있으니

너는 알리라. 환난이 없는 곳이 어디인지 나에게 알려다오."라고 읊었습니다. 바이런도 시인이지만 환난 속에 고뇌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불만족스런 인생이 낫다."라고 말한 것처럼 뜻 있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볼 때, 깊이 병든 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인이나 사상가나 정치가들이 오늘의 이 문명에 대해 문명의 황혼, 문명의 위기, 문명의 몰락, 문명이 벽에 부딪쳤다고 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는 인구 폭발, 식량 부족, 자원 고갈, 오염 문제, 도덕성 파괴, 가정 파괴, 청소년 탈선, 핵무기 발달, 도시화 문제, 영계 속화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환난을 어떻게 보고 이 환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 환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 의미 해석을 바로 하고, 바로 해결하는 사람은 이 환난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큰 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일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환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환난 날에 불신자들의 태도입니다

(1) 도피적이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눅 12 : 19) 하며 환난을 잊어 보겠다고 합니다.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유일한 선이고 행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먹고 마시는 것이 유일한 선이며 행복이고, 내일 일을

누가 알겠냐고 합니다.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유물론이요, 종교를 배격하고, 학문이건 도덕이건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쾌락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학문하는 것도 쾌락을 위함이요, 도덕생활 하는 것도 쾌락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향락주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향락주의가 인간에게 참된 의미와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향락이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면 라스베이거스는 지구상의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곳이 라스베이거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10분이면 결혼식을 해주고, 10분이면 이혼을 해줍니다. 10달러만 내도 결혼식 주례를 해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화를 피하기 위해서, 걱정 근심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술을 마십니다. 성경에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가난하게 된다, 사람이 강퍅해진다, 공의를 굽게 한다, 눈에 충혈이 생긴다, 방탕해진다, 비쭉거린다, 불순종한다, 병에 걸린다, 의식을 잃게 된다, 화를 당하게 된다" 등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 시루스는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제 고향은 경기도 부천군 대부면이라는 조그만 섬인데, 인천에서 배를 타고 두 시간을 들어갑니다. 어렸을 때 제게 형님이 네 분 계셨습니다. 제일 큰 형님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셋째 형님은 술 때문에 간경화증이 생겨 젊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소년 때에 위의 두 형님이 술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 젊으신 형수님들과 어린 조카들을 보며, '술은 좋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섬이니까 오락 시설이

없었고, 그저 술과 담배와 노름이 많았습니다. 술 때문에 죽은 친척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현대 목사로서, 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술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아주 많이 마셔라."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술을 조금만 먹고 절제만 할 수 있다면 약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라는 것은 술을 먹는 사람에게서 들어 보면, "잔술이 사발술, 사발술이 됫술, 됫술이 말술, 말술이 섬술, 섬술이 사람을 삼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결코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신앙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말은 "술은 몸에 해로우니 술을 삼가는 것이 마시는 것보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술을 억지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술을 먹으면 그 전 같지 않고 맛이 쓰고, 먹기 싫어집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술을 끊을 수 있지, 억지로 끊는 것은 율법입니다. 술을 드시고 싶거든 반주로 조금만 드십시오. 취하지만 말고 말입니다. 그러나 술을 가지고 모든 고통을 잊어 보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담배로써 고통을 잊어 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싸움하다가 차마 때릴 수는 없으니까, "후우" 하고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나 담배로 고통을 잊는다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전에 형님들이 담배를 피울 때 훔쳐서 피워 본 일이 있었는데 어찌나 쓰던지 오늘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담배에 대해 영국의 존 레이스 씨는 말하기를 "담배는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한다." "담배는 악마로부터 나온 잡초다." "담배는 지갑을 말리고, 옷을 말리고, 코를 굴뚝으로 만들고, 생명을 태운다."라고 했습니다.

담배 한 대를 피우면 수명이 34초가 줄어든다고 의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암 발생률이 그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한국에 암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담배가 발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문 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처칠은 매일 담배를 물고 다니고, 어떤 배우 한 명도 매일 담배를 피웠다는데 백 살까지 산 것을 보면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가 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중에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왜 오늘 이 미국 정부가 식당에서, 비행기 안에서, 공공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담배가 유익하다면 장려해야 할 텐데 왜 피우지 못하게 합니까? 올림픽 선수는 어느 나라나 술 담배를 하면 탈락이 됩니다. 담배로써 고통을 피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극장, 댄스, 마약 등으로 환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때 부산 온천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산과 동래 온천 사이에 연산이라는 미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난 후 젊은 여자분이 제 방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과거를 모두 다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일제 때 간호사였는데 연애에 실패하고 상해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댄스를 배웠다고 합니다. 상해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큰 바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때에는 하이힐이 오십 켤레였다고 합니다. 샴페인, 위스키를 마시고, 등이 파인 무도복을 입고, 키가 큰 서양 남자들과 왈츠를 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나고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자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며 '이 짓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 하는 허무가 물밀듯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받고 보니 그때의 기쁨은 찰나적, 순간적 기쁨이요, 지금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 샘솟는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춤추다가 이성과 눈이 맞아 그릇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피적인 태도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 스토익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 스토익 철학자에 대해 사도행전 17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바울 사도도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스토익 학자들과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테네는 스토익 학문의 발상지입니다. 이 스토익 학문은 주전 308년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Zenon)이 창설한 학파입니다.

이 학파는 범신론, 운명주의, 낙관주의이며, 내세관이 없고 이성주의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행복은 모든 욕망을 끊어 버리고, 어떤 것에 의해서든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경지, 부동심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스토익 학파의 주장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정신이 있고 의지가 있다. 정신과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 스토익 철학의 사상입니다.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면 고프지 않고, 아프다고 하니까 아프고 안 아프다고 하면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과 의지를 가지고 무감각 상태, 무욕심 상태가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한 주인은 스토익을 믿지 않고, 종은 철저히 스토익에 심취된 자인데 주인이 종에게 "이리 좀 오너라. 너는 아파도 안 아프다고 하면 아프지 않다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은 "그럼요. 사람은 정신적 동물, 의지적 동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을 불러 다리를 비트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 어! 어!" 하더니 마지막에는 "그러면, 꺾어져요." 하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신과 의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했습니다.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겠다면서도 자꾸 합니다. 성령 받아야 내 의지도 주관할 수 있지,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나쁜 짓 안 해야겠다고 생각해도 계속 반복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스토익 철학을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3) 반항적이 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욥 2 : 9).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아들딸도 있고, 재산도 많았던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다 사라지자 그 아내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항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8세기 독일의 니체라는 사람은 할아버지도 목사요, 아버지도 목사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열렬한 반기독주의자였습니다.

니체는 "하나님은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삶을 나름대로

꾸려 나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초인 철학을 주장했습니다. 즉 평범한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 없이 자신이 곧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철학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에 영향을 끼쳤고 히틀러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은 죽었으므로 내 나름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중년도 안 되어서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정신착란증에 걸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고 자기 누이동생에게 평생 신세를 지며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쓸쓸히 죽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 그가 남긴 말은 "모든 것이 틀렸구나!"였습니다.

장충단 공원에서 일평생 돼지고기를 썰어 팔았던 어느 할머니는 죽어가면서 모든 자손들을 불러다 놓고 유언하기를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라." 하고 죽었다는데, 니체는 죽어가면서 "모든 것이 틀렸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반항적 태도도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찰스 에피어드라는 역사가는 말하기를 "내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맷돌은 너무나 천천히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른 보면 안 계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보드랍게 갈아낸다."고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김형석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 강좌를 하셨습니다. 자유당 시절 때 부패가 만연하여 이기붕 씨가 뇌물 받고 한창 어수선할 때, 예수 믿는 교수 한 분이 김형석 교수님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애."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이십니다."라고 했는데 얼마 후 4월 19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나고, 이기붕의 식구들이 자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애." 하더랍니다.

히틀러가 한창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았고, 스탈린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았고, 김일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지만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 자신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긴 개인과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며, 인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둘째, 환난 날에 신자의 태도입니다

(1)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크든 작든, 쓰든 달든 성공과 실패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 두라"(삼하 16 : 10~11).

이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모반을 해서 쳐들어올 때 다윗이 피난길 가운데서 만난 시므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베냐민 사람 하나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삼하 16 : 7~8).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이렇게 저주하자 아비새라는 사람이 "왕이여!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내 아들도 나를 배반하여 죽이려고 하는데 남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지,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범사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괴롭힙니까? 못살게 굽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초월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편안합니다. 범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못된 남편과 사는 분도 남편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못된 아내를 두신 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십자가를 주셨다.' 라고 여기십시오.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못된 아내가 셋이 있는데 욥의 아내, 소크라테스의 아내, 웨슬레의 아내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비교해 보십시오. '욥의 아내보다는, 소크라테스의 아내보다는, 웨슬레의 아내보다는 낫지.' 라고 생각한다면 마음 아파하거나 이혼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범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2) 환난이 크면 위로도 크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고후 1:4~5).

여행중에,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천사가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건져 내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극하면 위로도 크다는 말입니다.

몇 해 전에 미 공군사관학교의 성덕 바우만이라는 청년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은 다른 사람의 골수에서 피를 뽑아서 자신의 골수에 집어넣어야 낫는 병이었습니다. 이 일이 신문에 보도되자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수만 명이 피를 뽑아 보냈습니다. 모두 부적합했으나 다행히 한국의 한 청년의 피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던 사람이 다시 머리카락이 나고 지금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해서 배속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환난이 극하면 위로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있고 어머니는 안 계신 집안에 초등학생과 어린 동생 두 명이 울면서 우리 아버지를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왔는데 이삼백 명이 도와 주겠다고 돈을 보내 왔답니다. 여러분! 환난이 극하면 하나님이 무심치 아니하시고 위로도 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불가마에 집어 넣겠다고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임금이 풀무불을 칠 배나 더 뜨겁게 해서 세 사람을 불에

넣었지만 그들은 한 곳도 상한 곳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던져 넣었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임금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분명히 세 사람을 묶어서 넣었는데 우리가 보니까 네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쫓아가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고 묶어 놓은 것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임금이 그들을 끌어내고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온 국민에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극하면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환난에는 유익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환난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 : 3~4).

소망은 부끄러움을 주지 않습니다. 환난중에 주시는 유익도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은 먼저, 자신을 바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합니다. 인격을 정화시킵니다. 신앙의 연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환난의 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셋째, 환난을 통해서 오는 복입니다

(1)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 22 : 18).

아브라함은 백 세에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열서너 살 되었을 때,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칠 수 있는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아비가 아들을 죽이는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 바치나?'

그러나 또 기도해 보니 주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므로 주신 하나님이 또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제단에 바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네 독자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시며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 양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지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아들이 둘이니 하나를 그리피스 산에 데려다가 죽여서 바쳐라." 하신다면 절대로 못 할 것입니다. 제가 지옥에 갈지언정 못 할 것입니다. 아들도 아들이지만 며느리, 손자 생각해서 어떻게 그리합니까? 저는 못 한다는 것을 좋으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예 그런 요구를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 편히 살고 있습니다. 복은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환난을 당한 후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2) 요셉은 애급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로서 영리하였고,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기에 그 형들이 시기, 질투, 증상, 모략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집어 넣었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꿩 먹고 알 먹겠다는 심산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20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노예 시장으로 팔려 간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대장의 부인이 유혹하는 것을 거절했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2년간 옥중에서 고생하다가 그 옥에 갇힌 애굽의 두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가면 죽게 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나가면 복직될 것이라는 해석이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꿈대로 복직이 된 관리는 왕 밑에서 수종을 들다가 임금이 꾼 꿈을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이 도저히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옥중에 있는 히브리 소년 요셉을 왕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 꿈은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것이니 지금부터 곳간을 짓고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에 풀으십시오." 하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총리대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형들이 미워하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았다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총리대신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요셉이 걸어간 그 어려운 환난의 길은 결국 총리 대신으로 이끄는 길이 되었습니다.

(3) 욥은 환난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욥 42 : 10).

욥은 아들딸 10남매와 많은 재산을 가진 동방의 의인이며 거부였

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몸에는 욕창까지 났으며,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며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욥은 "주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명백하다."라며 잘 참아냈습니다. 그랬더니 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욥 42 : 12~15).

이와 같이 환난은 우리에게 저주만을 안겨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고통과 슬픔이라는 보자기 속에 싸온다."라는 말을 저도 공감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라는 사람은 옥중에서 27년을 갇혀 고생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되고 노벨상도 타고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장미꽃이 부드럽고 아름답지만 항상 가시가 달려 있듯이 인생에도 환난과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 해석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클 것이다, 이 어려움에는 반드시 유익이 따라온다, 이 어려움을 잘 겪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놀라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에 대한 의미 해석을 바로 하고 선용해서 그들이 받은 복을 여러분도 똑같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18~22절, 고린도후서 1장 8~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숙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속의 하나님은 희망이십니다. 성경의 언어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신 · 구약 성경에서 희망이 없다면 모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건은 생명을 잃고 말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 사랑, 구원 그리고 희망으로 완전 무장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희망의 책 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말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의 행적과 부활과 재림과 장차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약속을 나타낸 책입니다. 바울 사도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 : 13)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철인 키케로도 "생명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희망은 과거 기억에 근거를 둔 왕국적 메시아관과 미래에 근거를 둔 묵시적 메시아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희망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중 그들을 해방시킨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정착하도록 하신 분도 희망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약성경은 미래,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희망의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새번역, 빌 1 : 20)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옥중에서 며칠 후면 죽을 사형수가 살든지 죽든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겠다는, 참으로 희망에 넘치는 고백입니다. 바울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재 세계 15억이라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희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계획하고 이루심을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젊은 신학자 알타이저와 반 뷔렌은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사신 신학을 제창해서 한때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불트만의 수제자 몰트만은 반대로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희망의 언어를 갖게 했고, 희망의 하나님을 재발견케 했습니다.

몰트만은 이 책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롬 8 : 24~25)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죄다. 희망 없는 신앙은 분쇄되어 버리며 약해지고, 결국에는 죽은 신앙이 되어 버린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희망이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희망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미래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 미래의 삶, 교회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한스 큉은 교회 미래의 희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현세인이 세계에서 해야 할 선교, 교육, 봉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업은 언제든지 교회를 선행하고 교회보다 위대하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인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 대한 부활의 선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

미래의 희망이 오늘의 삶을 지탱하면서 그 희망은 현세의 혁신과

변화요, 앞을 향한 전망과 성취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고, 종말에 우리가 만날 하나님도 구원의 하나님이요, 희망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희망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 줍니다. 희망과 신앙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동반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희망은 항상 신앙을 새롭게 하며 활기를 주고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 힘이 솟아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은 신앙의 내용이고, 생명력을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실패와 고독, 고난과 역경, 슬픔과 좌절, 어둠 속에서도 결코 낙심치 않고 희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모든 희망들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무한히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각 시대, 각 나라에서 실패와 절망 중에도 다시 일어난 사람들은 이 성경 속에서 희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자살하려던 사람,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린 산 희망의 책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우리를 불행에 던져 넣는 것은 죄가 아니고 절망이다."라고 말했고, 이탈리아의 단테는 그의 작품에서 지옥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씌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슬픔의 거리로 이르는 입구, 여기는 영원히 고뇌에 이르는 입구, 여기는 멸망의 백성들을 위한 입구, 너희들 여기로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이 곧 지옥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있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보다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희망을 조금씩 버릴 때 그 사람은 더 일찍 늙습니다. 희망을 아주 버릴 때 그 사람은 곧 죽게 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참고, 노력합니다. 노력

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습니까? 고독합니까? 용기를 잃었습니까?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졌습니까? 죽고만 싶습니까? 낙담 마시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진 이 희망의 책을 읽고 이 속에서 새로운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이라든지, 시편, 이사야, 베드로전 · 후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보면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고 결국, 승리와 행복을 쟁취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둘째, 희망의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18~22절에 보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와 분리된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날 역사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는 육하원칙에서 그 사건의 다만 암기에만 그친다면 그 역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이민 사회의 삶의 현장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파악해서 삶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역사를 알고, 회상하고, 연구하고 기록하는 데 보탬이 되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역사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민족의 신앙을 낳게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희망도 역사의 회상과 기록을 통해서 계승되어 왔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과거 비극의 역사를 미래의 희망의 역사로 바꾸었으며

창조의 민족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날의 출애굽 사건이 과거 약속의 가나안 정복으로 그친 단 한 번의 사건이라면 오늘날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보장받는 영원한 희망을 역사 위에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대한 해석, 역사에 대한 해석, 신앙에 대한 해석이 역사를 과거에서 현재로 옮기고, 희망이 미래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히브리 민족의 신앙의 자세, 고난에 대한 그들의 자세입니다.

본문 구약성경 출애굽기 몇 절을 가지고 세분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18절).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일주일이면 도착할 것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시켰으며,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까다롭게 고생을 시켰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 곧장 가게 하지 않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거쳐 고생하게 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직접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던 노예적 근성이 다 뿌리 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예적 근성을 불식시키고 씻어 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로 곧장 가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광야생활의 고생을 통해 심신을 연단시키게 하

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므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신앙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40년 동안 고생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과 열 가지 재앙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모세의 지팡이의 권능의 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지고 무사히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후손들도 조상을 이처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죽지 않고 지금도 동일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해, 사막 길,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 인생 행로에서 도울 자를 찾는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좋다고 와서 불경기를 만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역시 하나님을 애타게 찾게 됩니다. 이민생활에 불경기를 만나서 길도 잃고, 방향도 잃고, 고생과 수고뿐인 삶, 마치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한국 땅에서만 과거에 지켜 주신 것이 아니라 미국 땅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 광야 길이 펼쳐지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고,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혹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을 하면서 후회되고 낙심되고 실패했던 과거가 있습니까? 신앙의 사람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국에 살 때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고, 제가 중국 땅에서 살 때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으며, 북한에 있을 때도, 전쟁 중에서도, 미국에 와서 27년간 사는 동안에도 도우셨고, 고속도로에서 꼭 세 번 죽을 뻔했을 때도 역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저는 미래의 희망을 더 크게 갖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2)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19절).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400년 전에 죽은 그들의 조상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요셉이 유언을 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들이 그 유언을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해골을 가지고 가야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 후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해골을 갖다 가까이 묻어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던 역사를 회상시키면서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며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심어 주고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골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8 · 15 해방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침략해서 주권을 빼앗고, 강토를 짓밟고, 우리 나라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착취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날로 증가하여 만주와 대만, 중국 대륙을 침략했을 뿐 아니라 월남, 미얀마,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하와이까지 쳐들어갔

습니다. 그때에 우리 한국 사람은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 연합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본을 무조건 항복시키고 우리 나라를 해방시키실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를 부르지 않은 한국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8 · 15 해방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북진 명령만 내려지면 평양에서 점심 먹고, 저녁에는 압록강에 가서 피 묻은 칼을 씻는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소련의 사주와 중국의 묵시적 동조를 얻어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서부, 동부, 중부로 물밀듯 내려왔습니다. 아무런 준비 태세도 갖추지 못했던 대한민국은 큰 소리만 쳤지 쫓기고 쫓겨 마지막엔 부산만 남게 되고, 결국 모두가 죽고 망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 대표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셔서 유엔군이 파병되어 기적적으로 소생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때 소련 대표는 자동차가 고장나서 운전사에게 다른 차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운전사가 차를 고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군 산하 16개국의 장병들이 파병되어 공산당을 물리쳤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권, 강토, 생명, 재산을 보존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해골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8 · 15의 하나님, 한국전쟁의 하나님은 그때만 살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민 와서 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도와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3)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22절).

이 사건의 기록에는 귀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 시킨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마 1 : 23)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과 요셉에게 같이하신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 광야를 지나갈 때, 요단강을 지나갈 때,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울 때, 언제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빠지더라도 도우시고 함께하실 것이므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시 121 : 4).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121 : 8).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함께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도 살아 계셔서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까지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희망의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신앙의 체험가입니다. 이론적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체험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복음의 해석자, 열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는데 그의 여러 서신에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 보면 희망이 넘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11절에서 그는 환난중에 찾은 희망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8~9절).

위대한 신앙인이요, 희망의 신앙인인 사도 바울은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입니다. "또 건지시리라"는 말은 현재를 말합니다.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는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함께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하셔서 보호하고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만 희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때만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자존자, 영원불변자이신데 항상 그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 주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어 버리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어떤 때는 교회를 등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확신하는 희망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에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

시리라는 확실한 희망을 가진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후 4 : 16~18).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늙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환난 당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늙으면 식욕, 기억력이 약해지지만, 또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쓸데없는 욕심이 줄어들고, 남을 해롭게 할 마음도 적어지고, 정복력도 적어진다는 점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이 늙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좀 받을지라도 그것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행 27 : 20).

14일 동안 지중해에 배 한 척이 떴는데 배 안에는 선장, 선원, 군인, 상인, 여행자를 비롯하여 바울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죄 없는 죄인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배에는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만 광풍을 만나 모두 구원을 바라는 마음은 없고 절망에 빠져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행 27 : 22)고 말하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죽음, 좌절, 체념, 절망 앞에서 희망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장, 선원, 군인, 상인, 여행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사람은 절대 상치 않겠다고 하셨으니 먹어라, 일어나라, 안심하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정말 배는 좌초되었지만 사람의 생명에는 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도 불경기, 부도덕, 부정 부패, 마약, 갱, 강도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 어두운 세상, 폭풍을 만나 파선 직전에 있는 이들에게 산 소망을 줄 사람은 학자나 과학자, 정치가,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영생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고후 5 : 1)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옮겨갑니다.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가고, 속의 장막은 주인인 하나님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살전 4 : 13~14).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이방사람과 같은 것이며 이방인들은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으니 슬퍼하지 말라는 희망에 넘친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

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딤후 4 : 7~8).

선한 싸움, 긴 신앙의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순교함으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 앞에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영원한 소망, 확실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롬 5 : 3~4).

한 랍비가 여행을 가는데 나귀 한 마리와 작은 강아지, 호롱불 세 가지를 가지고 가다가 조그만 동네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도 없고 아무도 재워 주려고 하지도 않아서 헛간에 가서 호롱불을 켰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 그만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잘 시간은 아니었지만 일찍 잤습니다. 그 가운데 여우가 와서 강아지를 잡아가고, 사자가 와서 나귀를 잡아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쩔 수 없이 이 랍비는 호롱불만 들고 가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젯밤 강도떼가 와서 사람들을 다 죽여 버렸습니다. 랍비는 생각했습니다.

'만일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그 불을 보고 강도가 와서 나를 죽였을 것이고, 여우가 강아지를 잡아먹지 않았다면 강아지의 짓는 소리 때문에 죽었을 것이고, 사자가 나귀를 죽이지 않았다면 나귀 소리에 죽었을 텐데 그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최악의 상태라도 인간은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때로는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옮겨지는 일도 있구나.'

옛날 진시황 때 중국의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이 너무 적적해서 망아지를 두었는데 하루는 이 망아지가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됐습니다. 귀여운 망아지가 도망갔으니." 그러자 주인은 "두고 봐야 알지요."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망아지가 큰 말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복 받았네요." 하니 "두고봐야 알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큰 말이 뒷발길질을 해서 아들의 두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안됐습니다." 하자 이 노인 부부는 "두고봐야 알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모든 남자를 불러들였는데 이때 끌려가는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늙었고 아들도 두 다리가 부러졌으니 그냥 집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두고봐야 압니다. 불경기도 두고봐야 압니다.

바울은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롬 8 : 24)라고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하늘이 높으니 높은 희망을 가져라."고 했고,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는 "희망은 가난한 자의 살아가는 양식이다."라고 했으며, 헬렌 켈러는 "희망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라고 했고, 엘리호트 웨덴 라이스원스는 "희망은 질병, 죄악, 재앙을 물리치는 특효약이다."라고 했으며, 영국의 신학자 토머스 뮬러는 "위대한 희망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같으나 모든 사람이 아는 바요, 죽은 자 같으나 오히려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고후 6 : 9~10)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행복이요, 자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천국 문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

려움 속에서도 결단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이 더 우리 신앙을 자극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도약의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이용하고 선용해서 새 역사와 새 복을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 속에서 얻는 기쁨

베드로전서 1장 3~7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1991년 9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시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래에 없던 큰 불경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근자에 없던 불경기가 미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백인, 흑인 또한 다른 모든 유색인종의 사람들도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을 봐서 알겠지만 이미 많은 은행들과 업체들이 문을 닫고, 큰 기업체에서는 감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하루에 2,200명씩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

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6~7절)고 말씀했습니다. 즉, 어려운 시험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연단해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금보다 더 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생을 살다 보면 낮과 밤이 있고, 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듯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시험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신자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불안해 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오히려 침착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시련 중에서도 여유가 있고, 기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시련은 우리 믿는 자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시련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과 다윗과 바울이 바로 그런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련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

암아"(3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사 54 : 7).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애 3 : 22).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호 11 : 8).

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긍휼과 자비,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또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일시적이 아닌 영원하고 무궁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마 12 : 20)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상한 갈대라도 쓸데없다고 꺾어 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라도 훅 불어서 꺼뜨리지 않는 인자하고 자비하고 긍휼이 풍성한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7, 11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켜 많은 남자들에게 잡혀 끌려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쥐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가 음행죄를 짓다가 우리에게 들켜서 이렇게 끌고 왔는데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시고 인간들의 위선을 애통해 하시면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는데, 전승

에 의하면 "교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그들의 눈을 꿰뚫어 쳐다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하시니 모두 양심에 찔리고 부끄러워서 돌을 땅에 놓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인아, 눈을 들어 너를 돌로 치려던 사람이 있는가 보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모습입니까? 정말 상한 갈대였지만 꺾지 않으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였지만 끄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싸매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기름을 부어 소망의 불을 켜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도 지난 날, 혹 모르고 또는 약해서 이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번민과 고통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막 5 : 34)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한 젊은 여자가 혈루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여자의 하체에서 끊임없이 고름과 피가 흘러나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병입니다. 아마 이 여자는 결혼생활을 평탄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보이며 돈도 많이 쓰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못 고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난치병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위하며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수줍기도 하고, 보통 병도 아닌 냄새나고 더러운 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공개적

으로 말할 수도 없어서 망설이며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사람들의 틈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당신을 만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누군가 선생님 몸을 쳤나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보시니 여인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망한 여자야, 당돌한 여자야, 무례한 여자야."라고 나무라시지 않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열두 해동안 여인을 괴롭히던 더러운 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주여, 나는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 : 22~23).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올 때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병을 고쳐 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기도해도 못 고쳤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거든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0%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할 수 없으면 그만두고, 할 수 있거든 고쳐 달라는 말입니다. 반신반의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후 그 귀신을 그 몸에서 깨끗이 쫓아내 주시고 그 아이를 새롭게 만들어 아버지 품안에 안겨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고, 어떤 것은 조금 믿고 어떤 것은 많이 믿고, 믿음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신앙이라도 우리 주님은 "네 믿음이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믿음이 더 생겨야겠다, 완전하게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비록 믿음이 약하고 반신반의의 신앙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갈렙, 엘리야, 베드로와 바울과 같지 못하고 부족한 반신반의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출 16 : 13~14).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갈 때 양식이 다 떨어져 이제는 보급할 것도 없습니다. 살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막에서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내려 주셔서 먹게 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고구마처럼 맛이 있는 하얀 만나를 보내 주셨습니다. '만나'라는 말은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40년을 먹여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목 마를 때는 반석을 깨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때를 따라 고기와 물을 주시므로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제가 한국전쟁 때 잠시 몸을 피하고 있다가 수복 소식을 듣고 다시 들어왔는데 또 중공군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겨울에 다시 피난을 가면서 계속 남쪽으로 쫓겨 갔습니다. 대포알이 머리 위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고 여주에서 노인, 여자, 어린 것을 데리고 피난을 가니까 빨리 가지도 못하고, 여간 힘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다가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지게를 먼저 갖다 놓고, 다음에는 다시 보따리를 갖다 놓고 갑니다. 하루 종일 걸어 이 동네 저 동네를 전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감사함을 느낀 것은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때는 안뜰에서, 어떤 때는 부엌에서, 어떤 때는 마구간에서 잠을 자면서 언제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으면 미군들이 지나가다가 찬송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기독교인이냐고 물어 봅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초콜릿과 통조림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영국군이 찬송소리를 들고 자동차에서 내려 돈을 주는데, 그 돈으로 쇠고기를 사서 장조림을 해먹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메추라기, 만나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경기를 만났다고 불안, 공포, 좌절,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마 6 : 25~28).

유대 나라는 아주 박토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많은 것을 착취당했습니다. 의식주 생활이 심히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의 모습은 배가 고파 시장한 배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옷 두어 벌이 없어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게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새와 백합화만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는 일찍 일어납니다. 새는 부지런하고 넓은 곳에서 활동하고, 개미처럼 쌓아두지 않고, 욕심이 없습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가 새처럼 일찍 일어나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욕심을 줄이면 산 사람 목구멍에 거미줄을 치겠느냐?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향기로우냐? 이런 정신, 인격, 생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벌거벗기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나깨나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사고, 어떻게 하면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라스베이거스를 다니고, 세계 여행을 다닐까 하는 생각만 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는가? 값있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의 고귀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마 6 : 33).

둘째,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3절).

우리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나 시험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시련이 우리에게 하나의 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 우리를 연단시켜 금보다 더 귀한 인격과 신앙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게 만드는 것이니 너희는 이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생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얼굴에 기쁨도 없고, 좌절하며, 심지어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얼굴이나 학벌이나 미모가 전부 훌륭합니다. 자녀도 잘 키우고, 남편한테도 잘 하는 것 같았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방가서 "집사님, 참 안됐습니다. 어떡하면 좋지요?" 했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제게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커서 대학 나오고 사회생활하면 괜찮아질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조금도 얼굴에 구김살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처음에는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가 보고 싶으니 빨리 오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빠가 없어도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출했는데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서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일에 정열이 생기고, 능률이 붙고, 생활에는 변화가 오고, 의지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절망도 극복되는 것이 산 소망입니다.

미국은 1930년부터 1939년까지 대공황, 불황, 불경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임금의 차이, 은행과 주식 간의 유통의 불균형, 과잉 생산, 실업자 격증, 주가 폭락, 물가 폭락, 생산 축소 등으로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1933년에 실업자가 1,500만 명으로 네 명 중 하나가 실업자 꼴이었고, 600만 농가가 100억 달러 정도의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수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고, 90,000 개 이상의 기업이 도산했고, 거리에는 신문으로 깔고 덮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널려 있고, 식료품을 사려고 장사진으로 줄 서 있는 모습을 전국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1시간 임금이 50센트이고, 집 한 채가 3,000달러 이하이고, 양복 한 벌이 10달러이고, 와이셔츠가 50센트, 우유 한 병이 10센트이며, 매년 자살자가 수만 명씩 늘고, 엊그제 백만장자였던 사람이 거리에서 사과를 팔고 있고, 일곱 식구가 하루종일 노동해도 차에 휘발유를 가득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불황이 극도로 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으로 국가의 통제하에 수정자본주의를 실시하고, 댐을 건설하고 노임을 인상하고, 농업 정책의 개선과 수력발전소 건설 등에 힘을 기울여 1940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날 때까지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10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영원에 비교해

보면 그것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잠깐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잠깐, 회오리바람이 부는 것도 잠깐, 겨울도 잠깐, 해산의 고통도 잠깐, 지진과 불경기도 잠깐인 줄 알고, 믿음과 소망으로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자살하지 마십시오. 참으면 반드시 자살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와츠의 "소망"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을 보신 분이 더러 있을 줄 압니다. 이 그림은 한 여자가 캄캄하게 구름이 낀 밤에 지구 위에 홀로 앉아서 비파를 가슴에 안았는데 낡아서 줄이 거의 다 끊어져 있고, 딱 한 가닥 남은 것을 가지고 켜고 있는 모습인데 뒤에는 캄캄한 하늘에 별 하나만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줄이 다 끊어졌지만 딱 하나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켜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민생활 하다 보면 여러 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의 줄이 끊어지고, 장사가 망하고, 병도 나고, 교통사고도 나고, 도둑도 맞고, 남편도 도망가고, 아내도 도망가고, 일이 잘못되어 감옥에 가고, 친구도 배반하는 등 줄이 모두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 즉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이 있는 동안 소망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다른 나라로 원정을 가려고 할 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부하 중 한 사람이 "각하는 무엇을 가지려고 다 나눠 줍니까?" 하자, "나에게 아직 하나가 남아 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뭡니까?"라고 묻자 "나에겐 아직 소망 하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에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

다는 욕망, 야망, 도전,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찰스가 "내 일생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볼 때, 아무리 흐리고 구름이 끼고 캄캄한 밤일지라도 하늘 사방을 둘러보면 반짝이는 별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은 그 어떤 극한 어려움 속에 처하더라도 희망은 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민첩하게 이성과 의지,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찾으면 절벽 위에서도 살 길이 있다는 희망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의 희망은 또한 기초가 다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완성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흔들리는 곳에 둡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은 돈도 있다 없어지고, 명예도 있다 떨어지는 등 모든 것이 가변성이 있지만, 믿는 자의 희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완성케 하는 하나님이 우리 소망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롬 12 : 12). 용기가 있습니다(행 7 : 51). 인내가 있습니다(롬 8 : 25).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롬 8 : 24). 하나님을 소망의 기초와 대상으로, 하나님을 소망의 완성자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용기, 인내가 있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

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5절).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에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에게 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시 27 : 5).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시 121 : 5~8).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사 43 : 2).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지켜 주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주셨고, 베드로가 옥중에 들어갔지만 발을 뻗고 잠을 자게 하셨고, 바울이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지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종입니다. 목사님은 다니시다가 병이 나도 약도 안 사 먹고 기도하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밑지지, 내가 밑지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상을 보낼 때, 그 사람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게을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쓸데없는 세상 염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 나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의 품속에(시 18 : 2) 안겨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 사상적, 경제적, 종교적 풍파가 역습해 온다 해도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눈동자같이' (신 32 : 10), '어머니가 자녀를 품듯' (사 49 : 15),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 (신 32 : 11),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마 23 : 37),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희생하듯' (요 10 : 11) 지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 2 : 18)고 말했으며,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히 13 : 6)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동안,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동안 사람이나 그 무엇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불황을 회복시킨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에서 역사상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고통스러운 생애를 보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치고 고난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고난을 한 몸에 지신 분입니다. 스데반, 사도 바울, 루터, 리빙스턴, 슈바이처, 테레사 수녀, 우리 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물론 그분의 장기집권과 유신은 잘못되었지만), 김구 선생님이 역시 존경받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생애 속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 환난, 시험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대한 창작과 생애를 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음을 가져오는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수용하고, 이용하면 이것은 마치 능숙한 뱃사공이 바람이 불 때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더 빨리 몰고 가는 것처럼, 독수리가 바람을 이용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믿는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즉 긍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므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에 우리는 능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과 더불어 힘차게 승리의 생활을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사는 삶

만남의 중요성(마 4 : 18~22)

물질에서의 자유(딤전 6 : 17~19)

복을 사명으로 알자(에 4 : 4~17)

하나가 되라(요 17 : 11, 21~22)

만남의 중요성

마태복음 4장 18~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리스의 철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는 가족과 더불어 살고, 밖에 나와서는 이웃이나 동료, 친구와 서로 의존, 협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 누구와 오랜 친분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며, 또는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하고, 우리 이민생활에서도 눈으로 역력히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위의 본문에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

고 큰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볼 때, 만남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잘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1)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입니다.

아내를 잘못 만난 사람의 경우입니다. 인류 역사에 악처가 네 사람 있습니다. 즉, 욥의 아내, 소크라테스의 아내, 웨슬레의 아내, 아합왕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은 두로 왕의 딸로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올 때 자기 나라에서 믿는 바알 우상과 바알신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바알신의 제단을 거기에 쌓아 놓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습니다. 남녀가 그곳에 와서 술을 먹고 춤을 추면서 끌어안고 향락을 즐겼습니다. 참으로 부도덕한 우상 종교였습니다.

아합 왕궁 가까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왕은 그것을 탐내어 주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봇은 이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이어서 팔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아합 왕은 자존심도 상하고 목적 달성을 못한 불쾌감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웠습니다. 아내 이세벨은 왕에게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 잡수시면 자기가 알아서 그 포도원을 갖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은 불한당 두 사람을 사서 나봇을 성의 높은 곳에 앉혀 놓고 나봇이 임금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거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고, 나봇을 성 밖으로 쫓아내 때려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왕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

니다(왕상 21 : 23~25).

아합 왕은 아내의 충동질에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일국의 왕이라면 자기가 바로 판단해야 옳을 텐데 악처의 간계에 넘어가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의 식구들은 모두 전멸당했습니다. 이처럼 아내를 잘못 만나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자유당 시절에 이기붕 씨는 이승만 대통령 다음가는 부통령이고 한국의 제2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 박마리아 씨는 권력에 눈이 어두워 깡패를 사서 양심적인 정치가를 괴롭히고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결국 4 · 19가 터지고 많은 학생들이 죽는 사태까지 이끌고 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기붕 씨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아들 이강석이 가족들을 총으로 사살하고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하만과 세레스의 만남입니다.

이 경우는 남편을 잘못 만난 경우입니다. 세레스는 하만의 아내입니다. 하만은 대국이자 강국인 바사 나라의 총리대신입니다. 그 당시 왕은 아하수에로 왕인데 인도에서 구스까지 자그마치 127도를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하만을 사랑해서 그 궁의 모든 문지기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했는데, 유독 모르드개만은 하만을 보고도 본 체 만 체했습니다.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그의 굳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범죄인 까닭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만이 볼 때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 하나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족속

을 다 죽이려고 왕에게 가서 "우리 나라에는 좋지 못한 족속이 와서 사는데 이 족속은 특별한 법을 가졌기 때문에 임금님에게도 존경심을 갖지 않고 이 나라 법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임금님이 좋게 여기시면 나라에 일만 냥을 바칠 테니 법령을 내려 그 족속을 다 멸하소서. 그 족속은 나라에 유익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며, 돈을 일만 냥이나 바친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조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 127도에 아무 날 몇 시에 유대 사람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모르드개는 바사 나라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런 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임금에게 말해서 우리 민족이 멸종당하는 위기에서 구하라." 하고 부탁했습니다. 에스더는 효성스럽고 순종을 잘하는 여자로서 애국심에 불타는 여성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내가 사흘 동안 금식할 테니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사흘을 금식한 후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들어갔습니다. 그 나라의 풍속은 임금이 들어오라고 허락했을 때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서 임금이 금홀을 내밀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에스더를 반기면서 금홀을 내밀며 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며,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하만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집에 가서 모든 아내, 자녀, 친구를 불러 임금이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왕이 잔치에 자기만 청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개를 어떻게 죽여야 마음이 시원할까 궁리한 끝에 막대기를 높이 세워 죽일 계획으로 아침 일찍이 궁에 들어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유난히 왕은 잠이 안 와서 왕의 일기를 들춰보았는데 문지기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개가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고하여 왕이 살았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왕은 상을 주는 관원을 불러 모르드개에게 보상을 했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 관원이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바깥에 있는 하만을 불러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뇨?"라고 물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줄 알고 "왕이 입는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취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한다고 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빨리 가서 모르드개를 불러 하만의 말대로 하게 하고 하만은 모르드개를 태운 말의 말고삐를 잡고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만은 기가 막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식구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그날 잔치에 들어갔는데 왕이 왕후에게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으니 에스더가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돈에 팔려 나와 내 민족이 다 멸살당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놀라서 "그 일을 한 자가 누구냐?" 하니 에스더가 하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왕은 하만을 나무 꼭대기에 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열 아들, 친척 또 그에게 동조한 사람까지 다 죽였습니다. 하만의 아

내 세레스는 남편을 잘못 만나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했는데 하만은 자기의 교만으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가 미워 유대인 전부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들어가고, 자기가 세운 막대기에 자기가 달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는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밑지고 고생하더라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감싸고 높여주어야 하겠습니다.

(3) 고라와 그 무리들의 만남입니다.

이는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경우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요, 모세의 사촌동생, 성전 문지기,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명예심이 많아서 40년간 그 자리에만 앉아 있다가 등극을 안 시켜 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을 품고 모세를 비방하고 헐뜯고 당을 만들어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라당이 하나님의 종인 저를 대적하니 고라당을 멸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으면 자연사라고 하지 벌 받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땅이 갈라져 고라의 당이 다 한꺼번에 지옥으로 보내지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죽지 않고 산 채로 천국에 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이고, 죽지 않고 산 채로 지옥에 간 사람은 고라당입니다. 이 고라는 명예심, 교만, 작당, 원망, 반역으로 결국 망한 것입니다.

사람은 명예심이 강하면 망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망합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무덤 속까지 내려가니 하나님이 높이 올려 주셨습니다.

이번에 소련을 보십시오. 소련 연방국의 부통령인 야나에프는 나이도 많고 죽을 날도 가까워 왔는데 부통령 자리로 감사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으로 세계 신문기자들에게 고르바초프가 병으로 인해 대통령 자리를 사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병명을 물으니 제대로 대답을 못하다가 결국 사흘 만에 쫓겨나서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남을 끌어내리고 자기를 높이면 결국엔 자신이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저 북쪽에 있는 백성들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 김정일을 숭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위대한 어버이가 됐다고 하니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나이 50세에 무슨 어버이입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지도자 부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신앙이 있어서 주일엔 교회에 가고, 걸프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온 국민에게 기도해 달라고 한 좋은 지도자입니다.

둘째, 잘 만난 사람들입니다

(1) 바로와 요셉의 만남입니다.

왕이 신하를 잘 만난 경우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수에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조금 후에 흉악한 일곱 마리 소들이 그 일곱 마리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를 불러 물어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요셉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왕의 꿈을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 것이라고 말하며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꿈의 해석은 7년 동안 풍년이고 그후 7년 동안에는 흉년이 들 것이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족한 왕은 요셉을 총리대신의 자리에 앉히고, 풍년 때 곳간을 지어 양식을 많이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애굽에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와 그 식구들까지 살렸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롬 8 : 28). 오늘 여러분이 장사에 실패했습니까?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돈을 떼였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따른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만 가지면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죽일 사람은 죽이지만 살릴 사람은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바로 왕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다 죽였다면 요셉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꿈의 해석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살렸기 때문에 요셉을 불러 바로의 꿈을 해석해 나라의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마음이 맞지 않고 서운한 사람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한 것같이 나도 그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해야 하겠습니다.

(2)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 사이로 아주 좋은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동이었습니다.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인데, 어느 날 블레셋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어린

소년 다윗을 불러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주라고 하면서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는 키가 구척인 적장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큰 창을 가지고 호령하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겨뤄 싸우자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옛날 전쟁은 대장끼리 먼저 싸웠습니다. 아무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자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모두가 다윗을 말렸으나 다윗은 "아닙니다. 내가 양을 돌볼 때 사자, 곰이 오면 물매로 싸워 이겼습니다." 하며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물매를 빙빙 돌려 던지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황급히 달려가 칼을 빼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블레셋 사람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군이 따라가 물리쳐 대승을 거두었고, 그 결과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가 마음에 걸린 사울은 구국공신이고 애국자, 나라를 건진 자, 사위인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이리로 가면 쫓아가고, 저리 가도 쫓아가고, 삼천 명의 군사를 보내기도 하고, 앞장서서 가서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나라가 잘 되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괴롭히지 말라고 여러 번 권면을 했지만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사울이 요나단을 불러 "네가 임금이 될 사람인데 어찌 죽여야 할 놈을 살리려고 하느냐?" 하였더니 요나단은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라를 살리

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과 그의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요나단의 하나 남아 있는 아들인 피난 가다가 떨어져 절름발이가 된 신체불구자 므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밥상에 앉혀 놓고 그에게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밥상에서 나와 같이 밥을 먹자."라고 했습니다. 이에 므비보셋이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라고 하자 다윗이 "아니다, 네 아버지에게서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하며 일생 동안 밥상을 같이 대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친구입니다. 이것이 죽마지우, 지기지우입니다.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 친구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우의를 다진, 진정으로 잘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일본 유학생이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는 늘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일본 학생이 늘 우등을 하자 영국 학생들이 몇백 년 되는 학교 역사에 외국인에게 우등을 빼앗긴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길 수 없다 해서 2등을 하는 브라운 학생을 밀어주자고 했습니다. 이제 시험 때가 가까워 왔는데 일본 학생이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이제 1등을 안 빼앗기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후 결과를 보니 역시 일본 학생이 또 1등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놀라 일본 학생에게 가서 물어 보니 2등을 하는 브라운이 공부가 끝나면 꼭 병원에 찾아와서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다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친구입니다.

(3) 요셉과 마리아의 만남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로 목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처녀나 약혼한 여자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에게서 임신을 했으면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율법이고 전통이었습니다.

요셉은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깊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들춰내서 소문을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냈다면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마리아를 돌로 때려 죽였을 것입니다. 죽였다면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절제하여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훌륭한 여성입니다. 마리아는 결혼 전에 임신한 것이 밝혀지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자의 수치를 알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잘 만난 사람들입니다.

셋째, 더욱 잘 만난 사람들입니다

(1)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마 4 : 18~20)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베드로

는 용기 있게 결단하고 배와 그물을 던지고 처자와 고향을 등지고 예수님을 3년간 따르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물고기의 비린내가 나는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 밑에서 3년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색깔이 변합니다. 위치가 변하고 소용이 변화됩니다. 가치가 변화하고 맛이 변화됩니다.

(2) 음행한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요 8 : 1~11)입니다.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 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남자들과 아이들까지 많이 따라와서 "돌로 때려 죽일 여자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쳐다보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쓰신 내용이 "거짓말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까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여인아, 너를 돌로 칠 사람이 있느냐?" 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인자한 주님이십니다. 그 여인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였지만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를 다시 싸매 소생시키시고 꺼져 가는 등불에 기름을 부어 희망의 불길을 키운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 혹 십계명에 비춰 돌무더기에 들어갈 사람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3) 나인성 과부와 예수님의 만남(눅 7 : 11~17)입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고, 지금 아들마저 죽어 아들의 장례 행렬에 끼여 울면서 가고 있었습니다(눅 7 : 15). 앞이 캄캄하고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은 아들의 시체를 성문 밖으로 메고 가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과부의 측은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춰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고 새 희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만약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아들을 땅에 묻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들도 살고 과부가 다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석보운 목사님께서 뇌수술을 하시고 입원해 있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은 장례를 치르라고 했지만 사모님은 신앙으로 그를 시체실에 두고 내보내지 말라고 한 후 미국, 한국에 편지를 보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2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의사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까? 파산을 당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4) 강도와 예수님의 만남(눅 23 : 39~43)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 순간적

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그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나무랐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자기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했고,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내세가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래 믿었다고, 헌금을 많이 낸다고, 금식기도와 철야기도를 많이 한다고, 방언을 한다고, 입신을 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5)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행 9 : 3~5)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즉 사울(큰 자)이 바울(작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왕손, 바리새인, 공부를 많이 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광야에 가서 3년간 기도하고 고향에서 9년간 준비하고 나서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가 없고, 바울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 없을 만큼 기독교의 제2인자는 바울입니다. 소아시아, 유럽에 가서 많은 영혼을 건지고, 교회를 세우고, 신약성경의 절반을 썼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테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신곡」을 쓰고, 밀턴은 「실낙원」을

쓰고, 괴테는 「파우스트」를 쓰고, 셰익스피어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최고의 극작가가 되고, 브라운은 불후의 명작을 쓰고, 워싱턴은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부랑자였던 어거스틴은 성자가 되고, 링컨은 인도적 정치가가 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디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고, 나이팅게일은 환자의 천사가 되고, 슈바이처는 세계 평화주의자가 되고, 테레사는 가난한 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인권주의자가 되어 흑인으로서 노벨상을 타고 그의 생일은 미국의 국경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색깔, 위치, 소용, 맛, 가치 등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못 만나면 자기, 가족, 이웃이 불행하게 됩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점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사람도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고, 죄가 없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주요 좋은 친구가 되는 분이시기에 그를 만나는 자마다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되지만 예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을 만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누가 저에게 저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으면 예수님을 만난 것과 이성봉 목사님을 만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평양에서 예수를 안 믿던 시절, 노래를 잘해서 술집에서 수신가를 부르고 나오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쳐 잘라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기도와 자신의 회개로 다리가 나았는데 이렇게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끊지 않으시면 이 다리를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는 삼천리 반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리어카를

타고 한 교회씩 다니며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에 오셨을 때 제자 한 사람이 미국의 명소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이 다리로 복음을 전하는 데 쓴다고 했지 관광 다닌다고는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학생 때 그분의 가방을 들고 강원도 지역을 다니며 전도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서울에서 설교 후 사례금을 좀 많이 받으면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시골 교회로 가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 주고, 신발, 넥타이 등을 선물로 받으면 전부 시골에 가서 나눠 주고, 신학생들에게 곰국을 끓여 주라면서 돈을 주곤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성봉 목사님을 본받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잘못 만난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를 잘 만난 사람이 되었으니 성공한 사람,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안 믿는 사람에게 소개하고 전도해서 그도 예수를 친구이자 구주로 삼아 내가 받은 복을 그들도 받게끔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서의 자유

디모데전서 6장 17~19절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인간의 행복은 자유를 누리는 데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 거주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이 있을 때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양심으로부터의 자유, 정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전자의 자유가 인간의 노력과 투쟁으로 얻는 것이라면, 후자의 자유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육체적 자유는 얻었으나 우리 마음은 욕망의 노예, 소유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 26 : 41)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방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움, 원한, 나태,

욕심, 좋지 못한 습관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것들에게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무서운 속박입니다. 그뿐입니까? 또 잘못된 지식이나 사상, 신앙에 빠지면 자유를 잃고 맙니다. 문익환 씨가 북한에 가서 "통일은 어떤 체제이든 간에 선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통일은 누구나 염원하는 것이지만 적화통일, 공산주의 통일은 원치 않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또 하나의 무서운 속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노예로 만드는 강한 매력적인 물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중에 울다가도 돈을 준다고 하면 울음을 그치는 아이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청춘에게는 정욕이 유혹을 하고, 장년에게는 명예가 유혹을 하고, 노인에게는 물질이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남은 여생 동안 그것을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의 노사문제도 근본문제는 돈에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작용과 좌익의 책동이 배후에 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일하는 사람은 돈을 더 달라는 것이고, 주인은 더 못 주겠다는 돈 문제가 한국의 경제상황을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갑니다. 또한 많은 외국의 상사들이 철수하고, 바이어가 오지 않고 경제는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의, 식, 주 이 세 가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자야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돈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을 가진 이상 돈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전부는 아

닙니다. 서양의 한 시인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고쳐서 읽었다고 합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대에 눕게 하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는도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며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까닭이니라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전케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나의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욕심과 정욕이 따르리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영원히 죽으리로다."

이것은 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돈을 벌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우리를 보다 더 행복한 경지에 올려놓기 위한 까닭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돈이 많이 있으면 좀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갑자기 많이 벌면 돈이 자기를 노예로 만들 수도 있고,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돈 때문에 욕심이 더 생기고, 돈 때문에 의리를 끊어 버리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남을 해치고 죽이기까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돈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에서 이민 와서는 얼마 동안 부부들이 의좋게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해 지나는 동안 돈을 벌면 남자는 나가서 외도를 하고, 라스베이거스에 가고, 소실을 얻고, 본부인을 발길로 차고 나이 어린 여자를 얻어 사는 경우가 LA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도

돈이 생기면 남편이 맘에 들지 않는 경우에 이혼까지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결혼하고 10년 안에 헤어지는 비율이 70%라고 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어떤 때는 자기를 노예로 만들고 그의 인격을, 그의 생활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 : 24)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즉,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물질이 자기의 주인이 되고, 돈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서 자유를 얻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요, 참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은 벌기도 어렵지만, 번 돈을 값있게 쓰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 돈을 내가 값있게 썼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집을 늘리고, 좋은 차를 사고, 호화로이 연락하기 바라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부자가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판명되기까지는 그 사람을 칭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부자의 손에서 그 물질이 다 소비된 후에야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 있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 상조입니다. 죽어서 관에다 넣고 못을 박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니, 위대한 사람은 그가 죽고 100년 후에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바로 안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우리 교포 중에는 돈 버는 데 재치가 있고, 용감하

여, 재물의 복을 받았으나 그 돈을 올바로 쓰는 복은 못 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술집에서 술값과 팁은 아깝지 않게 던져 주고,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노름을 하고, 집까지도 팔아먹고, 백인 여자들과 향락하면서 돈을 쓰지만, 선한 사업을 위해 쓰라면 무척이나 아까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물질을 벌었으면 그 물질을 바로 쓰자는 의미에서, 물질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돈 자체가 더럽거나 악하거나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먹고, 입고, 자고, 자녀를 교육하고, 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물질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본문 17절에서 물질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에게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맡겨 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뇨”(고전

4 : 7)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는 "공수래 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딤전 6 : 7~8)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은 탐심이 없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물질의 욕심 없이 인생을 값있게 사신 분들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존경을 받습니까? 성 프랜시스, 슈바이처, 간디, 루터, 마틴 루터 킹, 테레사 등이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입을 것과 돈이 많아서 존경을 받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물질을 초월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의 집사가 좀 부유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집사의 친구가 사업에 쓸 돈을 좀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그만 부동산 하나를 담보로 잡혀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빌려준 부동산까지 경매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친구 집사의 얼굴을 보기도 미안해서 그런지 교회도 안 나오더니 갚을 길이 망막하자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우연히 거리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이 집사는 그 친구를 보자마자 "내가 자네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아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그저 빌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자기를 법원으로 끌고 가도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집사는 "내가 자네를 찾은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네. 사람이

사업하다가 놀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용기를 주고, 나중에 사업이 잘 되어 성공하여 혹 여유가 있으면 그때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집사의 친구는 너무나 고맙고 감격하여 그냥 붙잡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자이면서도 조금 돈을 떼이면 별 욕을 다 합니다. 돈을 꾸어 줄 때는 못 받을 생각으로 꾸어줘야 하겠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신앙까지 잃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돈을 꾼 사람들은 안 갚아도 된다는 나쁜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동방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녀 열 남매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열 남매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전부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욥 1 : 1~22). 그런데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 : 21).

이 욥이야말로 물질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물질로 마음을 채운 사람은 물질 때문에 심히 고민하는 사람이요,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 충격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가득 채운 사람은 물질에 좀 손해를 보아도 욥과 같이 크게 동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 :

17)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32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의역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코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부모보다, 처자보다, 친구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1차이고, 물질은 2차가 되어야만 이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내 주머니에 넣고 잘 관리하면서 쓰고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 속에 들어가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물질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아 물질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둘째, 물질을 바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18절).

이 말씀은 물질을 바로 쓰라는 말입니다. 유대 격언 중에서 "물질을 다스려라. 그러면 너에게 참으로 유익한 복이 되리라. 그렇지 못하면, 물질은 너에게 폭군이 되어 너를 지배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물질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만,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때는 물질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물질을 잘 관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실례

를 두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물질을 잘 관리한 사람 몇을 꼽아 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무엘, 베드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벧엘에서 기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각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무엇이든지 자기 것이라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아브라함은 이로 인해 한 골육 사이에 의가 갈라질까봐 서로 땅을 나눠 갖기로 하고 롯에게 먼저 땅을 차지하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즉 롯이 왼쪽의 땅을 갖겠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오른쪽의 땅을 갖고, 롯이 오른쪽의 땅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왼쪽의 땅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롯은 물이 넉넉한 좋은 곳을 선택하여 떠났습니다(창 13 : 6~10).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가 삼촌으로서 기득권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후 아브라함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건강의 복, 해로의 복, 물질의 복, 사회적 지위의 복,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소돔성으로 갔다가 소돔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유황불이 내려서 재산 전부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마저 잃고 빈몸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아브라함은 재물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안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말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뉘 소를 취하였느냐 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뉘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삼상 12 : 3).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전혀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물질을 잘 관리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란 사람은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이런 권능을 가져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행 8 : 20)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앉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며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행 3 : 6). 베드로 역시 물질을 잘 관리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물질 관리를 잘 하지 못한 사람 세 명만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해서 싸울 때 아간이라는 사람은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욕심이 생겨 가져다가 장막 밑에 파묻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수 7 : 21). 그리고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식구 전체가 죽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존재는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영향을 끼쳐 옆사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수 7 : 21).

또한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아만의 금을 탐내어 거짓말을 하다가 자기 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왕하 5 : 27).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 또한 물질을 잘못 관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긴 후 양심에 찔려 돈을 도

로 집어 던지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마 27 : 5).

이처럼 이들은 물질을 잘못 다스려 물질의 노예가 되었고, 그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위의 경우들을 통해 볼 때, 물질 관리를 잘 하면 온 집안과 나라가 복을 받고, 물질 관리를 잘 못하면 온 집안이 망하고 온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웨슬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호주머니를 다스리기 전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 주머니를 예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뒷전에 두고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950년,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프랑스의 철학가 알베르 카뮈는 철학과 문학으로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많은 상금을 받았는데, 그 쓰임이 각각 달랐습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나병 환자 병동을 지어 주었고(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음), 카뮈는 그 돈을 가지고 파리의 근교에 별장을 지었는데 자기 차로 그 별장을 향해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노벨상 수상으로 똑같이 많은 돈을 받았지만, 그 물질이 한 명에게는 값진 물질이 되었고, 또 한 명에게는 값없는 물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실업가인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모두 쓰고 죽어야 한다."

그는 평생에 돈을 많이 벌어서 3천억 달러를 자선 사업과 교육, 문화, 의료, 평화 사업을 위해서 썼습니다. 카네기 장학 재단은 유명합니다. 물질을 사유화하지 말고 초대교회의 신자들과 같이 필요에 따

라 나누는 사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한 부자가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눅 12 : 20)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자기를 위해서 쌓았지, 하나님에게는 주머니를 안 풀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가난한 사람을 외면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49편 17절에 "저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즉 죽으면 그 모든 쌓아둔 것을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올바로 쓰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제가 덴버에 가서 목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설교를 하고 왔는데, 어제 낮에 저와 함께 공군에 있던 목사님께서 집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정성껏 차린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사모님께 적은 돈을 드리면서 식구들하고 식사 한번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받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살그머니 상 밑에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장에 그 내외분이 나와서 선물을 하나 준다고 해서 받아왔는데 그 선물 속에 제가 준 돈을 그대로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안에 카드가 있어 읽어 보았더니 내용인즉, "전에 목사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오늘 와 주신 것만 해도 저희는 만족합니다."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물질을 옳게 보고 값있게 쓰는 이것이 물질에 대한 자유입니다.

셋째,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십일조는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십일조를 안 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언제 십일조를 바쳤습니까? 그러나 십일조는 천국 시민으로서 의무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천국 시민된 하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시이며 신앙의 고백이며 척도입니다. 또한 복 받는 요인이며 비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십일조를 해서 신령한 것을 운영하고, 이 나라를 운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권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십일조도 하고 바른 행실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십일조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레위 자손을 먹이고 살리는 데 쓰였습니다(신 18 : 4~5).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군에도 안 갑니다. 즉 하나님의 사업만을 하는 신령한 일을 하는데, 열한 지파 사람들이 벌어서 열의 하나씩 떼어서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둘째로 고아, 나그네, 과부를 먹여 살립니다(신 16 : 11). 우리 교회는 이 십일조를 가지고 교육사업, 선교사업, 봉사사업을 하며 모든 교회 사역자들, 유급 직원들에게 사례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십일조는 신자의 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마 6 : 19~21)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은 서울역에서 늦게 후암동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누가 시계를 딱 떼어 갔습니다. 또 한번은 정거장 앞에 사람 많은 곳을 지나가는데 똑 소리가 나서 보니까 만년필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는 또 잃어버릴까봐 염려되어 항상 조심을 합니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가마솥의 누룽지에 가 있고, 비둘기의 마음은 콩밭에 있다는 말처럼 신자들 가운데 십일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선교헌금을 내고 물질을 교회에 많이 바쳐 하늘나라에 쌓아둔 사람은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엔젤 박사의 「황금의 사과와 은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어느 마을에 존이라는 주일학교 부장이 있었는데 사업을 시작해서 일이 잘 되어 그 교회에서 십일조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째 되던 해에 여섯 개의 지점을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일조의 액수는 전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점점 분주해지자 주일학교 부장 일도 할 수 없다고 했고, 주일 저녁은 물론 수요일 저녁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심방을 갔습니다.

"존, 걱정이 되어서 왔네. 교회 출석도 봉사도 흥미를 잃은 것 같고, 사업은 확장된 것 같은데 십일조는 전과 같다고 하던데."

존은 "목사님, 저의 십일조는 너무나 거액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는 현재 바치는 것으로 교회 운영은 족합니다. 저의 사업은 너무나 비대해져서 교회 봉사에 시간을 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존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사업을 너무 번창케 하셨고, 성공케 하셨습니다. 존의 십일조는 너무 액수가 커서 주께 바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 존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 사업을 위해서도 존의 점포 몇 개를 몽땅 불태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몽땅 내려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존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시간도 낼 수 있게 하시고 십일조도 낼 만큼 줄여서 이전에 그토록 사랑하고 충성스럽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때에 존은 목사님의 기도를 가로막고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탕자가 돌아옵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존은 그날로부터 주일학교 부장 일도 다시 시작하고 온전한 십일조도 바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질로써 사는 자가 아니고,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합 3 : 4).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나누어 주는 선한 물질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과 금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은과 금이 많다고 평안하거나 행복하거나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 이유는 믿음을 떠나 돈을 따라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물질에서 자유를 얻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웃에 사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만 개미처럼 쌓아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둘이 같이 벌어서 자기도 먹고 남에게도 나눠 주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 정욕으로부터의 자유, 양심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을 바로 쓸 줄 알고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물질에서 자유를 얻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물질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물질이 손해나도 낙심하지 말며 항상 감사하는 신앙인,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을 바로 쓸 줄 알고 십일조도 드릴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사명으로 알자

에스더 4장 4~17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효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뵈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홀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 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개에게 고하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내 집에만 쌓아 놓고 감쪽지 빼먹듯 내 식구들만 그 복을 누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 복을 받았으니 옛날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거룩한 성도처럼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 복을 나누어야 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주신 복을 나와 내 가정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바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성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사명으로 알고 선하게 그 복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을 사명으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인 에스더, 요셉, 느헤미야 그리고 고넬료를 살펴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에스더는 복을 민족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14절), "이 달 이 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에 9 : 22).

에스더는 유대 처녀입니다. 이웃 나라 강국에게 잡혀간 포로의 몸으로서 본의 아니게 외국의 이민생활, 노예생활을 할 때에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나이 많은 모르드개의 슬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동쪽으로는 인도 땅까지, 남쪽으로는 에티오피아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127도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었습니다. 이 왕은 6개월이 넘게 향연을 베풀며 자신의 권력과 페르시아의 영화를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또 7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한창 흥겨워지는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왕은 사랑하는 왕후 와스디의 미모를 초대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에게 면류관을 쓰고 옷을 잘 차려 입고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와스디는 한 마디로 거절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임금의 마음에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체면이 깎이고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왕은 마침 바사와 메대의 일곱 방백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좇지 않았을 때 어떤 규례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므무간이란 방백은 왕후 와스디가 잘못한 것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 국민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나라 모든 여자들이 와스디가 왕이 오라는데도 이를 거절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느 누구의 집에 남자의 권위가 서며, 가정 질서가 바로 잡히겠느냐며, 그렇게 하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여자를 왕비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왕도 동의를 해서 와스디를 내쫓고, 새로운 왕후를 뽑기로 결정하여 전국에 공고를 했습니다. 한편 많은 귀족, 명문집 딸들이 왕후가 되고자 구름같이 모여들어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를 때 포로로 잡혀 온 에스더가 왕후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에스더를 기른 모르드개는 하루는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죽이려고 모함을 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모르드개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잡혀서 법에 의해 처단되었고, 그 기사는 모르드개의

공로와 함께 왕궁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왕이 제일 사랑하는 신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간교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 다음으로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 양심에 입각해서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하만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와 유대 사람들을 전부 죽이기로 작정하고, 왕에게 돈을 많이 바치기로 하고 12월 13일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기로 왕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조서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밤낮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에스더가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어 모르드개에게 좋은 옷으로 바꾸어 입으라고 했지만 모르드개는 거절했습니다. 에스더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유대인들을 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녀를 왕후의 자리에 둔 것은 이러한 때를 위해서이므로 왕에게 나아가 이 억울한 사정을 고하여 유대 민족을 이 위기에서 구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사람을 시켜서 답변하기를, 이 나라 법에 의하면 임금이 들어오라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모르드개는 다시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자기 나라 유대 민족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에게 부탁하기를, 모두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며 금식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왕이 나를 죽

이면 죽겠다는 각오까지 했습니다.

에스더는 3일 되는 날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침 왕은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왕은 에스더를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워 금홀을 내밀었습니다. 에스더는 이때다 싶어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는 왕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유다 민족을 구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만의 일을 모두 고했습니다. 왕은 하만의 간계를 알게 되었고, 하만을 장대에 달아 죽였습니다. 이 장대는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여서 달려고 준비했던 것인데 오히려 하만 자신이 달려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더는 왕후라는 복된 자리를 자기 민족을 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다짐하고 자기의 생명을 민족을 위해 사명으로 알고 바쳤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12월 13일 전멸당할 뻔했으나 해방을 받아 그 위기에서 모면했으므로 그 날을 기념하여 12월 14, 15일을 부림절로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중요한 절기 중 하나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둘째, 요셉은 복을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창 45 : 9),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창 46 : 6).

여러분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요셉은 라헬에게서 낳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로서, 야곱의 나이 7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대개 나이 많은 아버지가 늦게 아들을 하나 낳으면 더 귀여워하는 것처럼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도 많이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또 이 요셉은 천성적으로 영특했으며 신앙심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가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열 아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시기하기 시작하여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은 이십 개에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어린 나이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인 요셉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애굽의 총리대신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잘 꾸며 해석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온 나라에 닥쳤습니다. 애굽은 미리 대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양식을 비축해 놓았습니다. 야곱은 이 소문을 듣고 열 명의 자식에게 돈을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열 형제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대신 요셉을 만났습니다. 전혀 눈치를 못 채는 열 명의 형들 앞에서 요셉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애굽에서 왔습니다."

"뉘 아들이냐?"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이 몇이냐?" "열두 명인데 열 명은 여기 왔고,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하나는 짐승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요셉은 계속 물었습니다.

"막내는 왜 안 데리고 왔느냐?" "요셉을 잃어버린 후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더욱 사랑하므로 그에게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 안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너희들이 다 오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이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지?" 하면서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형제 하나를 내가 인질로 잡아둘 테니 막내까지 데려오라고 해서 인질을 두고 아홉 명이 양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더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는 잡혀 있고, 또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은 모든 형제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아버지께 맹세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물보다 피가 진하기에 동복 베냐민을 볼 때 요셉은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뒷방으로 들어가 실컷 울고, 눈물을 닦고 나와서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팔아먹고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하는 요셉이 나입니다."

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흉년 들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앞으로 5년이나 흉년이 지속될 것이므로 형제들을 시켜 부모와 온 가족을 모셔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도 카이로에서 멀지 않은 제일 기름진 고센 땅에 자리잡게 하고 편안하게 부모님과 형제들을 모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하나의 영광, 자기 하나의

안일, 자기 하나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의 부모 형제를 위해 바쳤습니다.

제가 잘 아는 식구들인데 형제들과 친척은 한국에 있고 그 내외는 미국 동쪽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좀 초청해다오. 한국엔 사람이 너무 많고, 아이들이 미국 가면 공부하는 환경이 좋다고 하니 초청해다오."라고 했지만 절대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다. 오면 귀찮다고 합니다. 또, 중부에 사는 젊은 내외는 한국에서 홀어머니가 어린 동생을 데리고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도 두 내외가 계획적으로 초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못 옵니다.

저는 20년 전에 혼자 여기 와서 처남네 데리고 오고, 형수님 데리고 오고, 누님 내외분 데리고 오고, 처남의 처남네, 누님네 누구누구, 그렇게 해서 엇그제까지 보니까 70명이 왔습니다. 야곱과 같이 70명이 왔습니다. 여기 데려다만 놨지 별로 도와 준 것은 없습니다. 목사가 뭐 도와 줄 게 있습니까? 이들이 이 고생, 저 고생 하면서 지금 셋방 사는 사람도 있고, 집을 산 사람도 있고,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차를 사서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친척 중에 고등학생이 어떻게 차를 삽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의 친척이 한국에 있거든 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은 데려오십시오. 와서 여러분이 고생하고, 아니 손해 보고 원망 듣고 혼나더라도 데려오십시오. 데려와야 합니다. 한국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엔 지하자원도 제한되어 있고,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데려오면 기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국에 3백만 명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6백만 유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뿐

만 아니라 자기 조국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와야 합니다. 그것이 고국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으로 나만 위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구를 사 들이거나 배불리 먹으며 누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조국에 있는 내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사명인 줄 알고 복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복을 조국 재건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느 2 : 5).

바사 나라에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는 유대 사람으로 그 왕의 충신 장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서 모국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느 1 : 3).

포로의 몸이 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웃 나라 원수에게 말할 수 없는 착취와 강간과 살해와 능욕을 받고, 성문은 불타고 성곽은 무너졌고, 땅은 황폐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밤낮으로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척하고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모두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탁하기를

"저를 좋게 여기시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저의 조국에 돌아가서 조국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 마음의 갸륵함을 보고 허락할 뿐 아니라 유대 나라 총독의 사명을 맡기고 많은 물자와 많은 사람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때가 주전 445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웃의 많은 원수들의 방해공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한 쪽에서는 지키고 한 쪽에서는 공사하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한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손에는 연장을 잡고, 52일 동안 성을 다시 쌓고, 문을 고치며 12년 동안 그 백성들과 고락을 같이했습니다. 몫도 받지 않고, 백성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의 보수도 받지 않고, 먹을 때도 혼자 먹지 않고, 150명이 한 자리에서 먹어가면서 그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12년 후에 한때 바사 나라에 돌아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일생 그곳에서 살면서 봉사하다가 죽은 느헤미야는 자기의 복을 조국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미국에 가르치러 왔었으나 포악한 히틀러 정권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와 정면으로 싸우다가 순교했습니다.

필리핀의 상원의원을 지냈던 아키노는 필리핀을 바로잡으려고 귀국하다가 비행장에서 죽었습니다. 이번에 그의 부인 아키노 여사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여자도 똑똑하지만, 남편의 핏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선생이 한국에 다시 갔다는 것도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본회퍼나 아키노 그리고 김대중 선생이 들어간 목적은 다소 다를지언정, 궁극적으로 조국을 위하는 그 마음은 같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하러 온 많은 학생 가운데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곳에서 학위를 마치고, 소정의 연구를 마치고 돌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까? 기술을 습득했습니까? 자본을 축적했습니까? 꼭 돌아가서 고국 재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된다면 돌아가십시오. 우리 교회 식구가 줄어도, 교회 헌금이 줄어도, 교육관 짓는 데 문제가 있어도, 꼭 돌아가야 할 사람은 돌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복을 조국 재건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넷째, 고넬료는 복을 민족을 초월해서 바쳤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행 10 : 4).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포악하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은 피점령지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많은 것을 유대인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사도행전 10장 전체는 고넬료의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넬료는 국경을 넘어, 민족을 넘어 이민족에게 초월적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방 사람 중 최초로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부흥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가이사에 교회를 세우고 감독이 되었고, 이적을 행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미국에 와서 어느 정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만하면 먹고 살기 괜찮습니다. 이 복을 나 하나, 내 집, 내 교회 식구, 내 고향 사람, 내 동포에만 국한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좁은 마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멕시칸, 콜롬비아, 남미, 인도, 중동, 유럽, 아프리카도 돕지만 그러나 지금 지구촌에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식탁 앞에 앉을 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먹습니까? 생각하면서 절약하십시오. 줄이십시오. 덜 먹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도 좋고 신문사도 좋으니 자선을 베푸십시오. 도와 줘야 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는 굶어죽는 것보다 너무 먹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어느 훌륭한 분의 미담이라기보다도 성스러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1916년 경북 황간이라는 추풍령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야만 늙은 부모를 봉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누이동생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열일곱 살에 밀항해 일본 동경에 가서 인쇄소에 취직하여 하루에 16시간씩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인정해 주고 세 끼도 먹이고, 모든 운영권까지 맡기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형사에게 잡혀 밀항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으로 강제 소환되어 열아홉 살 해방되던 해에 한국에 와서 일본에서 배운 인쇄 기술을 가지고 열차 시간표를 찍어서 팔았습니다. 이 일이 번창하여 한국의 가요책도 전부 찍고, 잘 되니까 학원사를 만들어서 한국전쟁 후에 가난한 고아 두 아이를 먹이고 입히며 장학금도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게 되

었고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장래성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추천해서 그 중 20명씩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모든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는 작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0명에게 입학금,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켰답니다. 그 500명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이 한 분 계시고, 판 · 검사가 40명, 의사가 40여 명, 대학교수가 18명, 대기업체 중진들이 80명이 나왔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자 장학금 받아 공부한 국회의원, 판사, 검사, 의사, 대학교수, 회사 중진들이 모여 그 선생님의 뜻을 따라 자기네도 돈을 내서 장학 기금을 만들어 장학생을 기르자고 약속하여 '밀알 장학회'를 구성했습니다. 1년에 천만 원, 학원장학회 4천만 원, 주부장학회 2천만 원 해서 해마다 이렇게 7천만 원씩 장학금으로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3천만 원짜리 조그만 아파트 하나가 총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로스앤젤레스 문화서적 주인인 우리 교회 김인수 집사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김인수 집사님의 아버님이야말로 자기에게 주신 복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쓰지 않고 사명 감당을 위해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스더, 요셉, 느헤미야,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내 것으로만 알지 말고 이것이 나의 동족, 동포, 부모, 형제, 친척, 나의 조국, 이 지구촌의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일하라고 주신 복으로 재인식해서, 이 복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슬기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라

요한복음 17장 11절, 21~2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드시고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기 직전에 최후로 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의 장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이여 내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내용으로 11절에도 "하나가 되라." 21절에도 "하나가 되라." 22절에도 "하나가 되라." 하면서 하나 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부가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니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창 2 : 24). 하나라는 것은 촌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성공, 실패, 희로 애락을 같이 느끼는데, 오늘날 사회를 냉정히 보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 교포들 가운데도 부부지간이지만 헤어져 사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특히 1.5세들의 경우 이혼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뼈도 같고 피도 같고 말도 같은 단일 민족인 우리 조국이 오늘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정일이 막강한 무력을 증강하는 것을 보면 정말 햇볕 정책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도 하나,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고전 12 : 13), 하나님도 하나라고 했는데 마음 아프게도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들이 이민교회에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평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우수하나 단결심이 부족하다고 모두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느 일본 사람이 말하기를 "일본 사람 한 사람하고 한국 사람 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백 번 일본 사람이 진다. 그러나 일본 사람 한 사람하고 한국 사람 두 사람하고는 싸울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일본 사람 하나와 한국 사람 셋이면 일본 사람은 말하기를, "싸우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도 저희들끼리 싸워서 망한다."라고 말한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한국 가정이 하나 들어갔더니 유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망했구나." 했답니다. 유대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상은 한국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은 "너 죽고 나 살자!"가 그들의 철학이지만, 한국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며칠 후에 한국 가정이 하나 더 들어오니까 "이제는 살았다!"라고 했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일반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는 우수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도 개인경기에서는 금메달을 따지만 단체경기는

금메달을 많이 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나라가 단결하지 못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단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이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역사가들은 다섯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은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로키산맥만 넘어서면 워싱턴D.C., 메인 주까지 산 하나 없는 평야입니다. 캐나다도 로키산맥만 빼고는 모두가 평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산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서로 친교가 없고 대화가 없어서 단합이 되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으로 갈라져서 350년 이상을 싸웠습니다. 지금 북쪽의 김정일이나 남쪽의 전라도와 부산, 대구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역감정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조선 5백년 동안 문인은 아주 높이 대우해 주었던 반면, 무인에 대한 대우는 아주 형편 없었습니다. 군인은 그 당시에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일본 사람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청나라 사람이 쳐들어와서 병자호란을 겪었습니다. 나라에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젠 국력을 길러야 하겠다 해서 무력을 기르는 방법의 하나가 동네 패싸움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의 동네 청년들과 이웃 동네 청년들이 같이 맞붙어서 싸워 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 패싸움을 시킨 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넷째로 조선 5백년 동안 씨족 관념, 문벌 관념이 너무 강했습니다.

전주 이씨, 경주 김씨, 밀양 박씨, 안동 권씨 등 씨족 관념이 너무 강해서 또 싸웠습니다. 그저 박씨와 김씨가 만나서 악수할 때는 한두 번만 흔들 것을, 김씨끼리 만나면 너덧 번 흔들어 보는 씨족 관념이 오늘의 한국을 이렇게 갈라 놓았습니다.

다섯째로 가난해서 싸웁니다. 동물 영화를 보면 짐승들도 배 부른 놈은 다른 짐승이 잡아서 먹는 것을 보고도 좇아가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씩씩대고 졸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나 사자도 배가 고프면 좇아가서 서로 싸워 살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은 덜 배고프지만, 그 전에는 배가 너무 고파 싸웠습니다.

33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어느 선교사 집에서 유숙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그들이 휴가를 가면서 저에게 뒤뜰에 있는 두 마리 개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깡통을 따서 먹이를 주고 물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때 뒤뜰에서 사람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옆집 사는 할아버지가 통닭 하나 삶은 것을 그대로 개에게 던져 주는 것입니다. 왜 던졌냐고 하니까 너무 삶아서 질기고 딱딱해져 이가 없어 못 먹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개 두 마리는 서로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한 마리가 다 먹고 물러설 때까지 다른 한 마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눈물이 난 것은, 제가 미국에 오기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3년 전에 한국은 그다지 잘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집에 네 자녀가 있는데 밥상에 꽁치 세 마리를 구워 놓으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더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한국 아이들은 개만도 못한가?'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정당이 갈라졌다가 또 합치고, 국회의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왜 그러는 줄 압니까? 정책이나 철학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붙

어야 더 이익이 될까 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둘째,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째로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 2 : 20~21).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사기그릇, 질그릇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지역 사람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인종이 합해서 형성된 합중국입니다. 교회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서에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이사야 52장 11절, 로마서 9장 21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그릇이 크다, 못생겼다, 작다, 쓸모없다고 그릇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서 적절하게 귀한 그릇, 천한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알 때 교회 안에도 큰 그릇, 작은 그릇, 값비싼 재료로 만든 그릇, 값 싼 재료로 만든 그릇 등 여러 그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밥상 하나를 놓고 보아도 밥그릇이 다르고, 국그릇이 다르고, 콩나물 담은 그릇이 다르고, 간장 담은 그릇이 다르고, 생선회 올려놓

은 그릇이 다르듯이 그릇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볼 때 가정에서도 부모, 형제, 자매의 그릇이 각각입니다. 교회도 그릇이 각각이라는 것, 즉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지체의 원리를 알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사람의 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다. 몸은 하나다. 그러나 지체는 많다."(고전 12 : 12~20).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도 있고 목도 있고 손도 있고 손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는 형태와 위치가 다르고 용도도 다릅니다. 눈이 뒤통수에 붙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이 뒤에 붙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지체마다 형태와 위치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지체도 몸의 한 부분입니다.

또 몸의 지체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다 손이면 어떻게 합니까? 다 눈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체의 배열과 위치는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몸 중에 덜 귀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잘 입혔습니다. 아름답지 못하고 부끄러운 곳은 옷으로 가리게 했습니다. 각 지체는 분리되지 않고 서로 관계를 가지며 고락을 같이합니다. 이것을 한 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지체의 다양성, 다양한 의무성, 긴밀한 연결성, 공통된 중요성, 감정의 공통성, 다양함 중에 통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체입니다.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만약 이 꽃이 전부 연분홍색으로만 되었다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

질 것입니다. 연분홍 꽃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는 하얀 것도 있고, 푸른 것도 있기 때문에 보기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도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의 일곱 가지 색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또 배만 한 바구니 가득 담긴 것보다는 과일 바구니 속에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등이 있으면 더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였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좀 없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자기 집을 못 가진 사람도 있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도 있고 조금 좋지 못한 차를 타는 사람도 있고, 믿은 지 오래 된 사람도 있고 갓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찬송가를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좀 못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설교할 때 눈을 뜨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있고,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직 믿음이 약해서 십일조 못 내는 사람도 있고, 끝날 무렵에 와서,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가서 도넛과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경기도 사람끼리만 모이거나 자기 친척끼리만 모였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역 모임이고, 친척 모임입니다. 많은 지체가 모여 하나의 몸이 된 것처럼,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면 비위가 상해. 저 사람 보기도 싫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체의 원리를 알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뱃속에서 몇 분 차이로 먼저 나온 사람이 형 에서이고, 나중에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각각 다릅니다. 야곱은 그저 보통인데 에서는 얼굴빛이 시뻘겋다고 했습니다(창 25 : 24~26). 한 부모님의 피를 받아 태어난 형제도 얼굴이 각각이고, 성격이나 취미, 신앙도 각각이고, 직업도 각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알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구촌에는 인구가 약 6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손금이 다르고 지문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민국이나 어디서 지문을 찍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교양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신앙 체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입장도 다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 말엽에 일본 사람들이 서울에서 젊은 청년들을 징집해서 남양군도에 보내서 비행장을 닦게 했는데, 이 가운데 예수 잘 믿는 한 청년도 끼여 있었습니다. 원주민들과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괭이를 빌리기 위해서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또 1903년 인천 부두에 살던 사람이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일하러 왔다가 계란을 사러 조그만 가게에 가서 "Would you give me an egg?" 하면 되는 것을 그 말을 모르니까 "꼬꼬 꼬꼬댁!" 하면서 알 낳는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쇠고기를 사려면 "우~ 샥!" 하고 소 울음소리를 내면서 고기 써는 시늉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사인 랭귀지(Sign Language)' 라고 합니다.

남양군도에 갔던 사람이 해방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동대문 밖 창신동의 아주 높은 고개에 사는 어른들이 가을 달밤에 심심하니까 같은 동네에 사는 이 청년과 동대문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애꾸가 사인 랭귀지를 잘한다고 해서 시합을 시켰습니다. 청년이 손가락 하나를 척 내니까 상대방은 손가락 둘을 내며 화를 냅니다. 이번에는 그 청년이 손가락 셋을 내니까 상대방이 주먹을 내며 또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졌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영문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졌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분보고 유일신 하나님 한 분 아냐고 했더니, 저 사람이 나는 성자까지 안다고 해서, 그러면 성령까지 세 분 아냐고 했더니 세 분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다,라고 하여 제가 졌습니다."

그러자 이 생선장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오! 나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오! 저 놈이 나를 보고 당신은 눈이 하나로구나,라고 해서 내가 내 눈은 하나지만 네 눈 둘보다 더 잘 본다,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아무리 잘 본다고 하지만 짝짝이다라고 해서 이 자식 맞아봐야 알겠니,라고 한 것이오."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며 입장이 다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서 한 친구가 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친구 목사 아무개가 왔는데 저녁을 우리 집에서 대접합시다." 했더니, 아내가 바느질하러 다니느라 몸도 피곤하니까 "여보, 식당에 가서 대접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보, 식당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대접하는 것이 더 성의가 있지 않겠소?"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저에게 부침개를 부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이 얼

마나 많이 튀었는지 그 다음부터 다시는 집에서 손님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대접하자는 의견은 같았고, 다만 장소에 대해서만 의견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입장이 다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 둘과 딸 둘 모두 4남매를 주셨는데, 그 4남매의 얼굴이 다 다릅니다. 발도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손도 손금이 다 다릅니다. 식당에 가면 넷이 전부 각각 다른 것을 주문해서 먹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 20)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 : 23)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정말 믿으면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점잖고 바깥에 나가서는 나쁜 짓 하고, 예배당에 와서는 착한 척 하지만 저 바닷가에 가서, 저 시장에 나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녹은 3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요셉도, 다니엘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

나님이 나와 함께 앉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성격이 다 각각입니다. 시몬은 국수주의자입니다. 마태는 사대주의자입니다. 베드로는 과격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단순합니다. 도마는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릎 앞에서는 저들이 조용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있다." 하는 신앙을 가지면 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군 대부도 대농가에서 8남매 중에 여섯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수님은 저에게 종종 "도련님, 어렸을 때 몹시도 싸움을 잘했어요."라고 말하고, 여동생은 "오빠, 너무 때리고 나에게 나쁘게 했지요?"라고 하며, 저의 큰누나는 "야, 동선아! 날 보고 왜 시집 안 가느냐고 자꾸 약올렸지?"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있으면 저는 큰 소리를 못합니다. 아주 못됐다고 합니다. 욕심 많고 고집 있고 그저 싸우기를 좋아하고…… 오죽하면 아버지가 저를 죽으라고 망태기에 넣어서 집 밖에 있는 감나무에 매달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 때도 할아버지 앞에서는 꼼짝 못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그 면, 군에서 으뜸가는 한학자셨고, 수염이 하얀데도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싸우다가도 할아버지 기침 소리만 나면 숨어서 마치 매에게 쫓기는 꿩처럼 숨도 못 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엄격했습니다. 그때는 속으로 할아버지가 얼른 돌아가시기를 바랐지만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것도 그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진 밑에 할아버지 사진을 걸어놓고 항상 아침저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대개 압니다마는 훈련소에 들어간 신병

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불침번을 서라고 하니까 편치 못합니다. 그 시간은 기상 시간도 아니고, 조반 시간도 아니고, 오전 학과 시간도 아닙니다. 오후 훈련 시간도 아니고, 저녁 식사 시간도 아니고, 바로 내무반에 들어가서 점호받기 전 한 시간이 자유 시간입니다.

그때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눕고 싶으면 눕기도 하고, 팔씨름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런데 예고없이 주번 사관이나 어떤 장교가 들어오면 먼저 본 사람이 "차렷!" 하고 구령을 합니다. 그러면 누운 사람은 일어나 앉고, 선 사람은 선 채로 꼼짝을 못합니다. 만일 눈동자라도 움직이면, 군인정신 위반이라고 단체 기합을 받습니다. 마주 보라고 하고서 서로 따귀를 때리라고 합니다. 전우니까 살짝 때리면 더 세게 때리라고 하면서 장교가 시범으로 세게 때립니다.

군대라는 것은 계급장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 앞에서 복종을 해야 합니다. 군대를 하루 먼저 들어와서 밥 세 그릇을 더 먹었어도 그 사람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군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의 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단체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기를 배양하기 위해서,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제가 예정에 없이 어떤 집을 심방 하려는데 그 안에서 싸움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릇이 나뒹구는데, 그때 들어가면 창피해서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에 안 올 것 같고, 안 들어가면 그렇게 싸우다가 머리라도 터지면 병원에 갈 것 같아 기도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자가 내다보더니 당황하면서 돌아서서 하는 말이 "됐다 싸우자! 됐다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싸우다가도 목사 한 사람이 들어가

면 휴전 협정을 맺어서 좀 있다가 나중에 싸우는데,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입니다.

가든그로브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 당회실에 의자가 쭉 있고, 목사 옆에는 항상 비어 있는 의자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누가 앉는 곳입니까?" 하고 물으면 "주님이 앉으시는 곳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당회는 가장 엄숙하고 질서 있게 잘 마친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저희가 모여 열흘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고 120문도가 완전히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항 제련소에 가서 보았는데 모든 광석을 가져다가 용광로에 넣으니 그 광석이 녹아서 죽같이 되었습니다. 포항 제철소에도 가 보았습니다. 쇠 있는 광석을 갖다 붓고 녹여서 찌꺼기는 다 걸러내고 죽과 같은 시뻘건 것을 부으니까 철판이 되고 철 각목도 됩니다. 뜨거운 불로 모든 돌이 다 녹아지고 찌꺼기는 다 없어지고 금은 금대로, 철은 철대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모난 것, 찌꺼기는 다 제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해에 가 보시면 동해와 다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서해는 물이 들어왔다가 싹 나가면 갯벌에 게가 기어다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오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다시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물 같은 성령이 차고 넘쳐서 그 추잡한 인간성과 못된 것이 다 떠내려가든가 없어지

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같이, 성령을 받으면 한 마음 한 뜻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자격을 일곱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일곱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 5 : 3~9).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사상이 건전해야 하고, 몇 해 살아야 하고, 영어도 좀 해야 하고, 또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그 몇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려면 일곱 가지 자격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을 차지하고, 애통하면 위로를 받고, 온유하면 땅을 차지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면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면 긍휼을 받고,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보고, 그러고 마지막 일곱째 와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 : 9)라고 해서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의 어떤 권사님은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안수기도 하면 병자가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를 무척 싫어합니다. 이것을 보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이는 좋은데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하고 인간관계도 잘 유지해야 그것이 십자가를 이루는 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아버지도 용서하고 용서치 않으

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마 6 : 14~15)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푼다고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 : 32).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어떤 집안에 동서 둘이 있는데 작은동서가 큰동서를 아주 미워합니다. 또 큰동서도 작은동서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서로 용서를 안 하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할 때는 살짝 뛰어 넘어서 그 다음 기도로 이어집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 : 1)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 : 12)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왕이며, 장군이며, 대장인 기드온이 모든 젊은이들에게 나라를 위해 싸우러 나오라고 모병을 했는데 삼만 이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 중에 고향 처자를 생각하고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 가라고 했더니 만 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만 명도 많다. 가서 이기면 저희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하지 하나님이 도와 주었다고 그러겠느냐? 흘러가는 강에 가서 물을 먹여라. 무릎 꿇고 얼굴을 물에 대고 먹는 사람과 개같이 물을 핥는 사람들을 구분하라.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삼백 명이 너희를 구원하리라."(삿 7 : 2~8)고 해서 그 삼백 명을 데리고 가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

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 : 15)고 했습니다.

장제스의 군대가 적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군인정신 부족해서 망했습니다. 옛말에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죽사발이 엎어지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조건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드온 삼백 용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는 오늘 이 기드온 삼백 용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육, 선교, 봉사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큰 집에는 그릇이 많고, 지체는 여러 가지이지만 다 함께 붙어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고, 성령 충만 받아 하나가 되어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선교, 교육, 봉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재인식

법궤를 메고 가는 두 암소(삼상 6 : 10~16)

한 번만 주신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유 1 : 1~4)

흩어진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약 4 : 13~14)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라(행 3 : 1~15)

법궤를 메고 가는 두 암소

사무엘상 6장 10~16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벧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벧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벧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벧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벧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은 가까이 살면서도 오랫동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한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갑자기 침범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비분강개했습니다. 반면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서 승전가를 부르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국민들은 승전의 기쁜 소식을 들어 기뻐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대상이 되는 법궤를 빼앗아 온 것에 대해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 나라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자기 나라가 섬기는 다곤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일으켜 놓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 다곤신의 목이 잘리고 두 팔이 잘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종의 재앙이 아스돗이라는 성에 퍼지게 되어 그곳에 큰 환난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도 독종이 번지고, 큰 환난이 그 성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또 에그론이라는 성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왜 이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 백성에게 고통을 겪게 하느냐?"면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급기야 블레셋 방백, 술객,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이 사태를 의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논한 결과,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암소 두 마리를 택하고 수레를 만들어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첫 동네 벧세메스로 보내고 나니 모든 재난이 그쳤습니다. 법궤를 잃어버린 지 일곱 달 만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두 암소는 사명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천지에 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두 소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땅 벧세메스로 가는, 지극히 거룩하고 분명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소들입니다. 소의 일생은 일하다가 죽든지, 도살장에 가서 잡혀 고기로 되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이 소들은 일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는 한 번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번은 누구든지 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일찍이 택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가라는 사명입니다. 법궤를 메고 가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선교와 교육과 봉사를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 15 : 16)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롬 8 : 29~30).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서 그 뜻은 끄집어냈다, 불러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의한 자리, 죄악의 자리,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자기 가정을 위한 사명, 자기 민족을 위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등이 있습니다. 사명 없이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사명을 자각할 때, 높은 수준, 깊은 차원, 심화된 단계로 자아와 인격이 발전됩니다.

교육가 칼 힐티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아는 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상과 목표와 꿈과 사명이 없으면 허무주의에 휩싸이기 쉽고, 생애에 대해 무의미를 느끼고 공허

감에 사로잡히고, 극단적으로는 살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용기와 의미를 주고 또한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은 이상과 목표와 꿈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이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행 7 : 23)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애굽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있을 때, 나이 사십이 되어 비로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민족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보다 나의 동족들과 잠시 동안 고생하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그는 현재 잠시 누리는 부와 그 영화를 버리고 노예의 생활로 굴러떨어지면서까지 마침내 그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보냈는가? 왜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왜 과거 한국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내 생명을 살리셨는가? 무엇 때문에 미국에 보내셨는가?" 하는 사명 의식입니다.

둘째, 두 암소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바로 행하여 갔습니다

"암소가 벧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12절).

이 소는 누가 끌고 가는 사람도 없고, 옆에서 때려 모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까닭에 뒤에 남겨 놓고 가는 어린 송아지에 대한 아픔과 슬픔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동물의 세계를 볼 때, 독사이지만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늑대이지만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사자와 호랑이처럼 무섭다고 하는 동물도 자기 새끼는 무척 사랑합니다. 인간이나 동물 모두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모정은 다름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찾는 아이는 별로 없고 어머니를 더 찾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정이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소도 새끼가 어미를 찾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앞으로만 갔습니다.

성경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딤후 2 : 4)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에 간 사람은 자기의 사사로운 일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 있는 사람, 일선에 나간 사람은 집에 가서 편안히 자고 싶다고 집에 갈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니 집에 가서 밥 좀 더 먹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입대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 이것이 군대입니다.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 9 : 24)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 문화를 잘 알고, 또 그리스에 가서도 살았기 때문에 마라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라톤이 어디에서 기인했습니까? 그리스와 이웃 나라가 싸울 때, 그리스 군사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후방에 있는 국민들이 초조,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리스군이 예상밖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쉬지 않고 머나먼 길을 달려와서, "승리는 우리에게!"라는 그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이 군인은 앞만 바라보고 달렸고 푯대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영국에서 여러 해 전에 세계 노인 남자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나이 많으신 마라톤 선수 한 분이 여기에 참가해서 잘 달렸습니다. 반환점을 돌아서 마지막 지점이 다 와가는데도 여전히 선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가까이 오는 숨소리가 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얼마나 가까이 오는가 보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져 아깝게 우승을 놓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눅 9 : 62).

존 버니언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바른 말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천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 책은 제2의 성경이라고 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는 책 중의 하나입니다.

기독도가 장망성에서 천성을 향해 갈 때, 무장을 했는데 앞에만 무장을 했습니다. 뒤는 무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자들은 앞만 바라보고 전진해야지 높은 산이 있다고, 원수가 있다고 돌아서면 뒤에는 무장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화살과 창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과거 회고주의가 아니라 미래 지향주의입니

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언했고, 신약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한국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발전이 느린 까닭은 아직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과거 회고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고생을 안 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미국에 와서 이 모양이 되었는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박사도 되고, 부자도 되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은 퇴보를 위한 과거 회고주의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과거의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앞만 바라보고, 좌우로 한눈 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두 암소는 협동하며 갔습니다

이 소들은 비록 미물인 짐승이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서로 발을 맞춰가면서 협동하며 끝까지 갔습니다. 옛말에 쌍두마차는 몰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마차는 하나인데 말머리가 둘이면 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능하면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친한 사이라도 의가 상할 수 있으니 그저 독립적으로 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작은 예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 들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자기의 것을 꺼내 먹는다고 다투

고, 서로 일을 미루다가 싸운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할 때는 한 몸이라고 하고는 곧 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수프를 끓여 먹거나 과일 하나를 먹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땀과 눈물, 피까지 흘린 결정체라는 걸 알고 먹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자고 일어나는 그 집을 일일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력해야만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건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서로'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고락을 같이하라, 서로 잘난 체하지 마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한마음과 한뜻을 품어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짐을 지라" 등입니다. 이처럼 서로 협력해야만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을 서로 잘 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대화와 이해, 연대 의식과 참여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다고 계획할 때 그 집이 누구를 위한 집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 짓는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군대가 전쟁의 목적 의식을 알 때는 가장 강한 군대요, 전쟁의 목적 의식을 모르면 가장 약한 군대라고 합니다.

성경에 협동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4 : 9~12).

협력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수하고 장점이 많지만 뭉치는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뭉친다면 아름다운 사회와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두 암소는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수레가 벧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14절).

즉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길은 멀고, 길바닥은 아스팔트가 아니기 때문에 울퉁불퉁 나오고, 푹 패이고, 길은 험하고, 그 수레는 무겁고, 또한 법궤도 컸습니다. 두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두 암소는 신성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여기에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충성이 있었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무슨 일이나 달성할 수 없고, 충성이 없어도 일을 성사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참고 끝까지 충성할 때만이 훌륭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북쪽의 승리로 끝나자, 리 장군은 북쪽의 그랜드 장군을 만나자마자 "당신은 용감한 군인입니다." 하고 칭찬했더니 "아닙니다. 저도 전쟁할 때 죽을까봐 여러 번 두려웠고, 불안했었고,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무던히 참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참는 것이 위대합니다.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전쟁은 최후의 5분 전까지 참는 쪽이 승리한다."라고 했

습니다.

어느 젊은 여자가 시집을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시집살이를 시켰지만 참고 참아 끝까지 참았더니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시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딸에게 몇 년 다녀 오시더니 달라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젊은 여자는 시누이가 아무리 괴롭혀도 참고 참았더니 시누이가 먼 곳으로 시집 가서 이제는 편안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딤전 6 : 11).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히 12 : 1).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약 1 : 4).

인내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찬송가 347장(겸손히 주를 섬길 때)을 혼자 불러봅니다. 잘 참아야 가정도 평안합니다. 교회도 서로 참을 때 평안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은 나의 정성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송곳이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것은 모든 힘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충성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배반자, 변절자, 매국노, 삯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정, 사업, 교회, 사회를 위해서 정성을 쏟고, 충성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먼저 너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진리에 대한 충성은 모든 충성에 앞선다."라고 말했습니다.

십 리 길을 가려는 사람은 생의 목표가 약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꿈이 작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동자에서는 희망이나 용기, 어떤 확신이나 그 광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리 길을 가려는 사람은, 인생 설계를 멀리 잡은 사람입

니다. 이 사람은 자기 당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의 문제까지 내다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정기가 있고, 먼 목표를 바라봅니다. 그 발걸음은 씩씩하고, 생명의 맥박이 뜁니다. 그 입술은 부동의 신념으로 굳게 닫혀 있고, 허리는 단단히 졸라매고, 신은 가뿐한 것을 신습니다. 이 사람은 결단코 뒤돌아보거나 도중 하차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끝까지 달려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뒤돌아보다가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과거 우리 역사는 개척정신, 보존정신, 모험정신이 퍽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극보다는 소극, 능동보다는 피동, 웅비보다는 고수, 보존보다는 현상 유지, 진취보다는 보수, 모험보다는 안일주의, 칭찬보다는 시기, 격려보다는 모함을 했던 것이 우리 나라의 서글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새 시대 사람입니다. 선각자, 선지자, 선구자이기 때문에 새 땅, 넓은 곳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소와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 내 후손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두 암소는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14절).

이 소 두 마리가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첫 동네 벧세

메스,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렀을 때, 그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7개월 동안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법궤를 내려놓은 다음에 수레를 부수어서 장작을 삼아 큰 돌을 올려놓고 소를 다 각을 떼서 올려놓고 불살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 가운데 소가 제일 희생을 많이 하는 동물입니다. 소는 살도 먹고, 창자도 먹고, 피도 선짓국으로 끓여 먹고, 뿔은 도장 새기고, 발은 족탕 해서 먹고, 똥은 거름으로 씁니다. 정말 소는 희생의 동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쫓겨나 골고다 길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희생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알래스카는 8, 9월이 되면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모두 올라옵니다. 연어는 알래스카의 개천가에 올라가서 알을 낳고 어미는 죽습니다. 자식을 위해 어미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거미도 새끼를 낳은 후 먹일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새끼들이 전부 뜯어먹게 하여 그 어미는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알프스의 개미떼는 집 속에 불타는 촛불을 켜놓으면 개미들이 서로 먼저 올라가 동료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먼저 태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부에서 나오는 불연성의 진액으로 그 불을 끈다고 합니다. 이 연어, 거미, 개미도 희생하여 자식과 이웃을 살립니다.

여러분에게 후손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희생의 각오가 있습니까? 초 하나가 그대로 있을 때는 어둔 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녹아져 없어질 때 비로소 방은 광명해집니다. 소금도 자체

가 녹아져 없어질 때 맛을 냅니다. 또한 비누도 물에 잘 풀어질 때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 두 마리는 사명의 소, 뒤돌아보지 않는 소, 협동하는 소, 끝까지 달려간 소, 재물이 된 소로 사명 감당을 다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블레셋에서는 재난이 그쳐 기쁨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다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 모두 사명 의식을 절감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협력해서 물심양면으로 희생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계획하고, 숙원하고 있는 우리의 후손을 위한 교육관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주신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유다서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저는 오광찬 장로님과 지난 6월 27일 로스앤젤레스를 떠나서 약 3주 동안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의 우리 지교회 연합회에 소속한 자매 교회와 함께 집회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미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 이번 집회보다 기뻤던 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미에 있는 리우, 상파울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의 교회들이 많이 성장했고, 또 특별히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우리 동양선교교회에 가서 보니 그 교회 자체에서 동포 교회와 브라질 원주민 교회를 일곱 개나 개척해서 이 교회들이 모두 브라질 동네의 이름과 함께 동양선교교회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파라과이에 가니 우리 교회가 그 동안 헌금을 보내서 세운 원주민 교회가 여덟 교회이고, 교회 안에 초등학교 세 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기술학교, 신학교 등 일곱 개 학교가 현대식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파라과이에 중 · 고등학교가 30여 개가 된다는데 규모로나 실력 면으로 독일 사람이 세운 학교 다음으로 이 학교가 좋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사 50여 명이 모두 신자들입니다.

먼 장래를 생각하며 큰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열매가 맺혀진 것으로 알고, 앞으로 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질 것을 기도합니다.

주후 약 60년에서 80년 사이에 썼다고 알려진 이 유다서 편지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이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 당시 좋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바로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진한 신자들이 그 말에 꾐을 받아 신앙이 왜곡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구원의 도에 대한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변경할 필요를 느껴서 단번에 주신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단번에 주신 도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장소입니다. 유다는 그때 신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따라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변경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잘 하라는 권면의 편지

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 옛적부터 정죄를 받기로 기록된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은혜를 색욕으로 바꾸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분명히 이단자이고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4절).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순진한 신자들에게 이방 종교의 성적 타락을 가르쳤고, 교회 지도자에게 대항하는 것, 물질에 대한 탐심, 신비의 체험을 강조해서 교회를 소란케 하고 교회를 분리하는 일을 조장했습니다. 이에 유다는 강력히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단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십자가는 용서의 종교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다 해도 그것 가지고는 멸망을 받지 않는다."라고 비성경적으로 잘못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회개하고 나가서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또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벧후 2 : 22)라고 한 것과 같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를 짓고 하는 사람들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웅덩이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믿으려면 바로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요일 5 : 16)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분명히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하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하여는 내가 구하라 하지 못하겠다. 이미 멸망받기로 정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신자들에게서 "오늘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제삿날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추도식을 거행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을 때 입장이 곤란합니다. 가서 그분이 천국에 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옥에 갔다고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믿지 않다가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할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혀 안 믿고 우상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여 천국에 간다는 성경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죄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행 12 : 23).

둘째로 십자가의 도를 짓밟은 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히 10 : 26~27).

셋째로 성령을 훼방한 죄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

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행 5 : 3~5).

헤롯 왕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여서 충이 먹어 즉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은 30냥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는 영영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는데,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고 물었더니 재산의 일부를 감추어 두고는 전부라고 거짓을 말하여 성령을 속인 죄값으로 결국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서 받을 수 있는 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딤전 1 : 13).

바울 사도는 스데반을 죽인 공모자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용서받은 것은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알았지만 약해서 지은 죄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마 26 : 74).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는 알았지만 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죄는 그대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깨달아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고백해야 하고, 보상을 해야 참 회개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모두 나타나야 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을 보면 깨닫지도 못하고, 애통하지도 않고, 고백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하고, 그냥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에 베드로가 ……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마 26 : 75)는 말씀과 같이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고……." 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했기 때문입니다.

전해오는 전기에 보면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도로 갖다 던졌지만, 왜 지옥을 갔느냐 하면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살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시 6 : 6)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더불어 부정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자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일선에서 데려다가 아내와 더불어 동침하도록 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자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일선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지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용서받은 것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기에 눈물로 인해 침상이 뜨고, 요가 젖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받았고, 첫 번 죄의 결과로 낳았던 아들은 죽었지만 회개의 열매로 솔로몬이라는 평화의 왕을 얻었습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었다는 것을 아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이

민생활에 무슨 교훈을 주느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의미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보고 또다시 그런 과오를 범치 말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유다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 구원이 없으니 믿으려면 잘 믿어라." 하며 말만 가지고는 안 되므로 유다서 5절에서 19절까지 역사적인 기록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구약적 기억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5절).

여기서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라는 말은, 유대 나라 백성들은 도시나 시골이나,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자녀가 5세만 되면 모두 율법과 역사를 가르치므로, "너희들이 다섯 살부터 다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는 말은 "너희들이 성경을 배웠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구약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적 기억은 세 가지 과거의 기억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믿다가 망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1) 출애굽한 주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참감람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열 가지 재앙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았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건너갔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따라 길을 가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는데도 그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 남자들만 60만 3천5백5십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만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난 2세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히 3 : 18~19).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히 4 : 11).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불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과 '끝까지 믿는 것' 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히 13 : 17).

지도자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결단코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목회생활을 하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 자손들까지 잘 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선민이지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지만 순종치 않고, 끝까지 믿지 않다가 결국 멸망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학생은 선생에게 순종해야 하고, 군인은 상관에게 순종해야 하고, 양은 목자에게 순종해야 하고, 신

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 천사들이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생각할 때에 깨끗하고, 신령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천사는 성도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지만 이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제자리를 떠나고 처소를 떠나므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한 천사가 교만하여 자기도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서 가만히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 천사가 바로 루시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 천사는 보좌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음부로, 음부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내려오고,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무덤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 올려 보좌 우편에 앉혀 만물의 경배를 받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사 14 : 12~15)는 말씀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천사의 타락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지킬 자리가 있습니

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오빠, 누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며칠씩 돌아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군, 회사, 나라도 자기 자리가 있는 법입니다.

교회도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리를 떠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와 권사, 목사 등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사단은 결국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가 떨어진 천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 1 : 7).

(3)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두 가지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곧 간음, 다른 색을 따라간 죄입니다. 간음은 부부 사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더불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색이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지어 주셨는데, 남자가 남자하고 살고, 여자가 여자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곧 동성연애입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에 보면 로마 당시에도 동성연애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창 18 : 20)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그곳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던지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소금 바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해입니다. 지금도 그 속에서 옛날의 그릇 조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은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간음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음죄를 지어 하루에 2만 3천 명씩 멸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로마의 폼페이라는 도시는 너무나 죄가 많아 화산이 터져서 유황으로 덮여 멸망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어떤 집에 들어가면 과거에 못된 짓을 하던 모습이 담긴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훼방하는도다"(유 1 : 8).

세상과 짝하는 것은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천사들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꿈꾸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꿈에 배 고파서 먹었지만 깨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꿈에 목말라 마셨지만 깨면 여전히 목이 마르다고 했습니다(사 29 : 8). 이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 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육체가 있으므로 우리가 일하고, 예배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으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잘못 쓰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에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는 자들입니다.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이러다가 그 사람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것만 가지고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개인적 기억을 또 예로 들었습니다. 세 명이 망한 예를 들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유 1 : 11).

가인은 종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까지 한 이 가인은 제사 지내는 종교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망했느냐 하면 그가 자기 의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창 4 : 3). 아벨은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나는 죄인이고 나의 의가 없으니 양의 피를 받으십시오." 했지만 가인은 자기 곡식만 가지고 드렸습니다. 피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동생이 은혜를 받았으면 형이 기뻐해야 할 텐데 그는 시기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바쳤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니?"

"나는 양을 바쳤어요."

"그러면 너 나에게 양을 한 마리 줘라. 나도 그렇게 하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그는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파묻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시기하고, 살인해서 망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만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탐냈습니다. 즉 발락이라는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명목으로 다섯 번 물질을 받았는데, 그것이 실패하자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했습니다. 이방 여자들과 죄를 짓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멸망받았습니다(민 31 : 16). 발람은 탐욕을 위해 모략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략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은 남을 모략하려다가 자기가 올무에 걸려 죽었습니다. 하만도 모르드개를 죽이려다가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절대로 남을 모략하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여서 쑥덕공론하고 남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고 했습니다(마 7 : 3).

고라는 레위 지파 자손으로 열두 지파 가운데서 선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군인도 장사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제사장이 될 줄 알았는데 모세가 자기를 빼놓고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시키니 여기서 그만 반감이 생겨서 당을 조직했습니다.

이 당이 모세에게 대항하자 모세는 "하나님, 고라당이 저를 대적합니다. 모두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저들을 죽여 주십시오. 보통의 방법으로 죽으면 누가 자연스럽게 죽었다고 하지 벌받아 죽었다고 하겠습니까?"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고라당 250명을 산 채로 다 지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산 채로 천국에 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이고, 산 채로 지옥 간 사람은 고라와 그 당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많아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할 때 "교

회에서 씨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다르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전 3 : 6~7)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서로 속삭이며 당을 만들고 세력을 규합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서 속히 떠나십시오. 그곳에 같이 있다가는 같이 망할 것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유 1 : 12~13).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은 자들을 애찬의 암초라고 했습니다. 애찬의 암초가 무엇입니까? 바다에 배가 가는데 물 위에 시커먼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배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 가다가 부딪쳐서 깨져 파선됩니다. 물 같은데 물은 아니고 암초입니다. 집사 같은데 집사가 아니고, 장로 같은데 장로가 아닙니다. 목사 같은데 목사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몸만 챙기는 목자입니다. 자기만 알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돈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물 없는 구름입니다. 구름에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제 앞에 여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아주 검소한 옷차림에 곱게 화장을 한 모습으로 성경을 보고 앉아 있었고, 다른 한 여자는 껌을 씹으면서 이상한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나도 믿어요."

"세례 받았어요?"

"받았어요."

"교회 직분은 무엇이에요?"

"나도 집사예요."

그 두 여자는 똑같은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바르지 못한 집사나 권사, 장로, 목사가 많습니다. 이들은 물 없는 구름입니다. 은혜 없는 자들입니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가을에는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그 열매가 없습니다. 불평, 불만, 작당, 반역, 모략, 중상의 열매는 있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바다의 미친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잔잔해야 하는데 미친 물결이 되어 바다를 흔들어 놓습니다. 미꾸라지 같은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미친 물결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를 가는 유람 신자들입니다.

둘째, 신약적 기억입니다

사도들이 예언한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세가 되면 경건치 않은 자들이 나타나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며,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당을 짓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즉, 육은 있지만 성령이 없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항상 거짓말을 합니까? 항상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무슨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목사입니까? 이 교회 안에도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자들이 나타나니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셋째, 성도의 행할 일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믿음을 가지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스스로 지키라, 주의 긍휼을 기다리라."(유 1 : 20~21) 하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구별해서 사귀라고 합니다. "불에서 끄집어내라, 현재 죄를 짓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더럽힌 옷을 싫어하라, 부정한 것은 피하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유 1 : 22~23) 하고 말씀합니다. 곧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와 더불어 의논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같이(시 1 : 1), 우리는 앉는 자리와 서는 자리와 눕는 자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오라고 해서 다 가면 안 됩니다. 같이 쑥덕공론을 해서도 안 됩니다. 불의한 자리라면 떠나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까지 우리를 보호, 인도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영광 중에 세워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를 찬송의 내용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거룩과 같은 것들입니다. 언제까지 찬송을 합니까? 과거에도 찬송을 했고, 오늘도 찬송을 하고, 세세토록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구약의 속죄제와 같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의 제사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구속 사역으로 영원히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애독하고, 묵상하고, 성령을 받아서 단번에 주신 십자가의 도를 잘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흩어진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 13~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 후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웃 사방 다른 나라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언어, 문화, 풍속, 종교가 다른 남의 나라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차차 식어지고, 돈을 더 사랑하고, 또 이방 세계에서 그 이방 종교에 물들어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야고보가 들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큰동생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중 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경고와 위로와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 : 1~4).

여기에 보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핍박을 피해 동서 사방 나라로 흩어져 나간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잘 참으면 그것이 도리어 신앙을 온전케 한다고 경고도 하고, 위로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4장 13절과 14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초두에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고자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 정신을 가다듬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바로 깨달을 수 있어서 먼저 '들으라' 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은 귀에 할례를 베풀고 신령한 귀를 만들어서 신령한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군인들은 상관이 중요한 명령을 하달할 때는 모두 "집합!" 하고 모아 놓은 후에 "주목!" 하고 명령을 합니다. 상관과 눈을 맞추어서 정신 집중을 하고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어떤 장로님이 몸이 아파서 주일에 교회를 부득이 못 나가셨습니다. 아들이 교회에 갔다왔을 때 아버지가 누워서 묻습니다.

"너 오늘 교회 갔었니?"

"그럼요, 제가 다른 곳에 갔을까봐요?"
"목사님이 오늘 성경 본문 어디를 읽으셨니?"
"늦게 들어가서 못 들었어요."
"설교는 무엇이라고 하셨니?"
"조느라고 듣지 못했어요."
"광고는 무엇이라고 하셨니?"
"광고하기 전에 나왔어요."

그 사람은 교회에는 갔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나 은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민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마음은 '집에 도둑이 안 들어오나?' '동부에 간 아이가 잘 있나?' '이 예배 끝난 후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에서 만나 어떻게 이야기할까?' '내일의 사업은 어떻게 할까.' 라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먼저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첫째, "너희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느냐?"

"…… 오늘이나 내일이나……"(13절)의 뜻은 "너희들의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느냐?"라고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때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마 16 : 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감람산에 앉으셔서 불야성을 이룬 예루살렘을 내려

다보시면서 한없이 우셨습니다(눅 19 : 41~42). 그것은 70년 후가 되면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불을 질러서 돌도 하나 남지 않고 모두 잿더미가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재 먹고 마시고 춤추고 뒹굴 뿐이니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우신 것입니다.

이제 3년 후면 21세기가 됩니다. 이 21세기는 어떤 시대가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때는 불확실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21세기가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상가는 "공기가 매우 탁한 세대가 될 것이다." 역사가는 "인간의 역사는 해골의 역사가 될 것이다." 철학자는 "인류의 생사는 도마 위에 있는 생선과 같을 것이다." 정치가는 "인류는 화약고 위에 앉게 된다." 과학자는 "12시 1분 전이 되어 간다." 신학자는 "인간 역사는 종말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사람의 말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100%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 이것이 마지막 때라……"(요일 2 : 18),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벧전 4 : 7),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롬 13 : 11), "……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고전 7 : 29).

좀더 준비하고 경건하게 절제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저는 1953년 공군 군목으로 들어갔는데 대위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공군 본부가 대전으로 쫓겨왔습니다. 높은 분들이 저에게 허름한 옷을 입고 서울에 들어가서 인민군이 배치된 것을 조

사해 오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는 수원에서 평택으로 피난민들 틈에 끼여서 내려오는데 북한 비행기와 소련 비행기가 파장 공격을 했왔습니다. 먼저 내려와서 총을 쏘고 또다시 내려와서 총을 쏘니 논바닥으로 엎드린 사람과 하늘을 쳐다보고 누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으악할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총알이 제 옆에 떨어져 옆사람이 그 총알을 맞고 죽어서 핏방울이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이제는 다 죽게 되었구나' 라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개미 한 마리가 귀를 간지럽히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움직이면 살았다고 또 쏠까봐 가만히 있는데 이것이 또 콧구멍을 간지럽혔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때려죽였을 텐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태껏 부모에게 잘못하고 처자에게도 못했는데 마지막 가는 순간에 미물인 짐승이지만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하면서 죽이지 않고 콧바람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살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도 옛말에 "새도 죽을 때가 되면 노랫소리가 구슬프고 사람도 마지막 때가 되면 마음이 착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1989년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나서 하루 15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1983년 대한항공 비행기가 앵커리지에서 서울로 가다가 소련 전투기의 폭격을 맞고 296명이 바닷속에 떨어져 지금도 시체 하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5년 챌린저 13호가 처음으로 여자까지 태우고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가루가 되었습니다. 1995년 일본 고베에서 지진이 나서 5,100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언제 통일이 되겠느냐, 누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겠느냐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것만은 압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평등한 것이고, 극비이고, 선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는 과거야 어떠했던지 남은 여생을 좀더 값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벧전 4 : 2~3).

어떤 분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는 것도 많지만 언제 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범인이요, 잘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철인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잔칫집에 가는 사람보다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전 7 : 2).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어떻게 떠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죽어서 관에 못을 박을 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때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얼마나 앞으로 더 살지는 모르지만 죄악된 생활은 지난날로 족하니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의롭게, 참되게, 값있게, 또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너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 아무 도시에 가서……"(13절).

이 말은 "너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

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 인생은 순례자라고 했고,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는 "인생은 대양의 항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고 나면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걸을 때 맹목적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가족 부양을 하고, 자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고 나면 길을 걸어갑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분 이외에는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도 가고, 사업가도 가고, 군인도 갑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버스 정거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행장에 가면 대기실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항구에 가면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목적지가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지 며칠, 또는 일 년씩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대양에 뜬 배를 볼 때에도 그 배가 가고자 하는 항구가 있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내릴 공항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너희들이 가는 그곳이 참된 곳이냐? 값있는 곳이냐? 영원한 곳이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사상적인 갈림길, 세속주의, 인종차별주의, 과학만능주의, 유물주의, 실존주의,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허무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종교적으로는 유교, 불교, 힌두교, 회교, 조로아스터교, 자이나교, 라마교, 도교, 기독교 등 너무나 갈림길이 많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우리가 참 길을 가는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 크게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길은 두 길뿐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 30 : 19), "……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렘 21 : 8), 즉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저주의 길과 복의 길,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동물보다 나은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성, 기억, 언어, 웃음 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살아가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도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 선택을 잘 해서 복 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을 잘못해서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는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 백성과 같이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나은 줄로 알아 그 부귀 영화를 헌신짝같이 버리고 고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쓰고, 유일신 종교를 창설하고, 유대 민족을 해방시킨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하늘에서 많은 상급을 받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한 부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이방 모압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남편들이 죽었고 너희들은 젊었으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집을 가라." 했더니 큰며느리는 미안하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자인 작은며느리 룻은 "어머니께서 늙으셨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십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룻 1 : 16~17)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와서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 정성이 갸륵해서 하나

님은 베들레헴의 큰 부자 보아스와 룻을 결혼하게 하셔서 어린아이를 낳았는데, 그에게서 손자 다윗이 나왔고 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룻이라는 여자는 선택을 잘해서 성경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유대 나라의 사도 바울도 조상 적부터 내려오는 유대교를 과감하게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는 선택할 수 없지만 배우자 선택도 잘 해야 되고 친구, 스승 , 직업, 종교 선택 등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잘못해서 망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을 택하고 장자의 기업을 팔아먹었습니다(창 25 : 33). 또 롯은 화려하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푸른 풀밭을 보고 그쪽을 선택했다가 유황불이 떨어져 재산도 다 없어지고 아내도 잃었습니다(창 19 : 23~28). 그리고 르호보암이라는 유대 나라 왕은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선택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비운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까?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관한 큰 꿈을 꾸었습니다. 세계의 미래 역사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꿈 속에서 우상 하나가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팔은 은이고, 배는 구리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열 발가락이 반은 흙이고 반은 철이었습니다. 이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바벨론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기도한 후에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세계 운명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우상을 세계라고 하면 머리의 금은 황금 시대인 바벨론을 뜻합니다. 가슴과 팔이 은이라는 것은 메대, 바사에게 당신이 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리는 그리스인데 메대, 바사가 그리스에게 망

했고, 철은 로마인데 두 다리가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동로마와 서로마를 가리키는 것이며, 발가락이 반은 흙이라는 것은 물러빠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뜻하고, 철은 공산주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 돌 하나가 그 우상을 깨쳐버리고 흰 돌이 세계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 역사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왕국이 천 년 동안 건설될 것을 말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는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정치, 경제, 교육, 군사, 예술이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남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 서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땅바닥이나 들판으로 가면 기차가 전복되어서 못 가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악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길이며 이 길만이 온유, 겸손, 사랑, 봉사, 희생의 길이며, 개인, 가정, 나라, 인류를 화목하게 하는 귀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간다면 고난을 각오하고 가야 합니다. 이 모든 환난을 통과한 후에야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따라간다는 신자들 가운데 각오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부자가 되고, 출세한다는 그런 기복 신앙을 갖고 주님을 따르면 안됩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니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온유, 겸손, 사랑, 봉사, 희생,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고난을 각오하고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길이 좁아도 천국문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 보고 먼저 간 성도들도 만날 것입니다.

셋째, "너희의 계획은 무엇이냐?"

"……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13절).

장사를 할 때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자들의 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돈을 버는 데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장사를 잘하는 유대인들이 오면 그 나라에서는 그냥 시민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오면 무역이 잘 되고 도시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장사하여……" 라고 한 말씀은 무슨 계획을 세우며, 어떤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우선 순위가 있는데 무엇이 급한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32년을 살았습니다. 이곳의 안 믿는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 생의 우선 순위를 돈, 집, 자녀 교육, 출세, 여행, 운동 등으로 잡습니다. 미국에 먼저 와서 자리 잡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잘 안 다닙니다. 그런데 급한 상황에 몰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애리조나에 가서 부흥성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임병택 목사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목사님, 거기는 괜찮습니까? 지금 로스앤젤레스는 새벽 3시에 지진이 나서 그전에 새벽기도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오늘 새벽기도회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새벽마다 흔드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는 너무 많이 흔들어

서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시 저는 회개를 하고 "적당히 흔드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돈도 벌고 집도 한 채 사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들이 생의 우선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 : 33).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 16 : 9).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시 127 : 1).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7장을 보면 노아 당시에 너무나 죄가 많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아만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은 것을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 멸망시키고 제2의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120년 후에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갈 것이다. 방주를 짓고 너희 식구는 배 안으로 모두 들어가고, 동물들은 씨를 받기 위해서 쌍으로 다 집어넣어라." 하셨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옆에서 모두 비웃었습니다. 전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산까지 물이 찼다고 했습니다. 방주가 있는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닿았고 그 물이 마르는데 1년 10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히 11 : 7).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노아가 120년 동안을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성경에 보니 잣나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창을 내고 역청으로 안과 밖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칠했습니다.

우리는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깨끗이 벌어 써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집도 하나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운동도 좋고, 여행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불로 이 지구를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재목을 가지고 소망의 창문을 내고, 사랑으로 안과 밖을 칠한 신앙의 방주에 들어간 영혼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타지 않을 것이니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의 방주를 잘 지어서 마지막 날 우리들의 식구들이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불타면 집, 가구, 자동차가 모두 탈 것입니다. 신앙의 방주를 짓는 것이 생의 우선 순위입니다.

넷째, "너희는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13절).

이것은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행복을 측정합니다. 돈이 많이 남으면 기뻐하고, 돈을 못 벌거나 손해를 보면 아주 섭섭해하며 남을 원망합니다. 이에 야고보는 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침몰된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탄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생겼는가?"라고 했고, 독일 속담에는 "돈에는 우정도 없다." 한국 속담에는 "돈에는 부모도 없다." "돈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 미국 속담에 "백만장자치고 웃는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전 5 : 10).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잠 23 : 5).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잠 11 : 28).

한국의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다른 죄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지만 특히 돈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는 행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신 10 : 13).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시 1 : 1~3).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롬

4 : 9).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 11 : 1)라고 했습니다. 즉 종달새 알 속에서 종달새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옛날 비행기가 없었던 시절 영국의 한 대위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차 미국에 오는데 대서양 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대위가 곤히 잠을 자고 있자 아내가 "우리 모두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잠만 자면 어떻게 합니까?" 하며 남편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자 이 대위가 칼을 빼서 그 아내의 목을 치려고 하니 그 아내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웃었습니다. "안 무서워?" 하고 대위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칼을 드는 것이 뭐가 무서워요?"라고 대답하는 말에 그 대위가 "사랑하는 자에게 풍랑이 잡혔는데 뭐가 무서워?"라며 믿음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약한 인간이지만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것이 없는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을 나는 새도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새같이 일찍 일어나 보아라, 새같이 하루 종일 활동해 보아라, 새같이 욕심을 줄여 보아라, 왜 굶겠느냐, 백합꽃같이 아름답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향기로워 보아라, 세상의 미

스 유니버스나 미인들도 화장품이나 구두나 모든 것들을 공짜로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돈과 권력에서 찾지 말고, 또한 지식이나 가족에게서도 찾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 참된 행복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너희는 어떠한 인생관을 가졌느냐?"

"……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14절).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말입니다. 인생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는 철학적인 문제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윤리적인 문제요, 어디로 가느냐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세계 인구는 65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인생관이 각각 다릅니다. 이것을 요약한다면 몇 가지 인생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성을 절대시하는 그리스적 인생관, 철학을 절대시하는 자연주의 인생관, 육체를 병적으로 보는 허무주의 인생관, 생명을 중시하는 생철학적 인생관,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유물주의 인생관,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범신론적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창조, 타락, 구속의 인생관입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가 대신 죽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삶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독교 인생관을 다섯 가지로 말했습니

다. 믿기 전에는 죄악의 인생, 믿고 난 후에는 의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인생이 화평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노예의 인생이 자유 인생이 되었고, 고통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었고, 죽음의 인생이 영생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과거에는 죄악과 전쟁, 노예, 죽음,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화평을 얻고, 기쁨과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은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벧전 1 : 24~25).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풀은 봄이 되어 싹이 나면 야들야들하고 깨끗합니다.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노랗고, 겨울에는 쓰러지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풀이 쓰러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봄에 다시 싹이 납니다. 인간의 육신은 쓰러지지만 영혼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은 장막으로 옮겨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젠 나이가 드니 다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느낍니다. 죽음 후에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또 성경에서 사람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길을 떠난 이들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육신의 고향만 떠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안개는 아침에 있다가 해만 뜨면 없어집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8월 6일 유타 주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여기 수양회에 오다가 차가 전복되어서 장로님의 16세 된 따님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따님은 유타 주에서 유망주로 떠오르는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나머지 네 친구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많이 나아서 돌아갔습니다.

인생은 이슬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이 늙은 임동선 목사를 찾아보려고 해도 여기 없습니다. 무덤 속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안개와 초로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긍휼을 베푸십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개인, 가정, 나라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살았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여 살았고, 다윗이 회개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지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일본 사람들은 주일 아침에 진주만을 예고없이 공격했으나 그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기 전에 경고를 하십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서 경고했고,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우리 집에 같이 있었던 김준호 집사가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뉴멕시코 공군 기지에 공군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일본에 떨어뜨린 원자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해서 갔더니 그 박물관 안에 팔만한 원자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레는 한 팔 반쯤 되었습니다. 그것 하나 떨어지니 나가사키와 히로시마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광고판 위에 많은 선전물을 갖다 붙여 놓았는데, 그것을 읽어 보니 "아무 날, 몇 시에 여태껏 생각지 못한 가공할 만한 폭탄이 떨어질 텐데, 이것을 본 모든 비전투요원은 속히 멀리 떠나라. 그러면 산다."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들에게 미리 경고한 전단이었

습니다.

그것을 몇 달 전부터 많이 뿌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 보고 멀리 피신했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 가운데 군국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도 버티다가 다 죽었고, 살아 남은 자들은 결국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흩어진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남은 때가 얼마인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계획이 무엇인가, 어디서 행복을 찾는가, 어떤 인생관을 가졌는가 하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아 남은 여생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의롭게 살면 마지막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라

사도행전 3장 1~15절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작년에 우리 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세계복음선교연합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때 제1차 총회에서 남미 선교에 중점을 두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제2차 총회를 남미 파라과이에서 열었고 아울러 선교대회도 가졌습니다. 미국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는 대의원들이 모여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곧 이어서 제가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세 나라의 다섯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일행 가운데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목사와 주일학교 교사를 지도하는 전문 목사와 또 의사 두 분, 독창하는 분을 함께 대동해서 가고, 또 이단교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을 모셔 가서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집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떠날 때, 여러 성도들이 남미 선교를 위해서 정성껏 마련해 주신 헌금(목표보다 초과)을 파라과이 연합선교원에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지교회가 원주민 교회를 사서 수리하는 것을 도와 주었고,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지교회 교육관을 짓는 데도 건축비가 모자란다 해서 일부를 교회 이름으로 전달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앉은뱅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곧 앉은뱅이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으면 더욱 실감이 나고 은혜가 될 줄 압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바깥에 앉은 앉은뱅이를 만나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 앉은뱅이가 고침 받은 경로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에 몇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적을 행한 사람 –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은 사역하시되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요,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골육의 형제는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형제 이상으로 그 우정이 두터웠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정이 두터웠던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다윗과 요나단을 들 수 있고, 중국 역사에서는 관중과 포숙아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오전 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은뱅이를 고쳤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12시, 3시가 되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도 항상 기도하러 이 시간에 올라가는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볼 시간에 성경 보고, 식사할 때 식사하고, 잘 시간에 자는 규모 있는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절제는 인격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영국의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 사람은 시계와 같이 정확하고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둘째,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앉은뱅이를 일으킨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성전 미문 밖이라고 했

습니다. 즉, 성전 가까이에 앉은뱅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앉은뱅이가 성전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았다면, 일생 앉은뱅이로 비극적인 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 가까이 와서 미문 바깥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총을 입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성전의 하루가 바깥의 천 날보다 아름답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은 오전 9시, 즉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배후를 보면 기도하다가 기적이 나타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헌금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애를 볼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마지막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눅 21 : 36).

지난 금요일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심야기도회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해서 이 목자의 마음은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복 받고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시간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130년 만에 처음으로 가뭄 때문에 미시시피 강이 말라 땅이 갈라진다는 것은 죄값입니다. 청교도 정신을 저버리고,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이기주의, 향락주의, 현실주의, 찰나주의 등 죄

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두 시간 기도하는 것을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각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장과 기관의 임원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끌고 나가고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봉사입니다. 일입니다.

이처럼 앉은뱅이가 있었던 곳은 성전이었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치유받은 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을 원하고 있는데, 엄밀히 살펴볼 때 병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류의 병이 어디서 옵니까? 원인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과로에서 오는 것도 있고, 불경건한 생활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죄값으로, 전염병으로, 무절제로, 부주의로, 선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요 11 : 4)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앉은뱅이는 아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병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기 때문에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남에게 의존하고, 남의 힘을 빌려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으로 말하면 비생산적인 사람입니다. 사회 병리학적으로 말하면 기생충입니다. 스파르타의 군국주의 같은 나라였으면 쓸모없다고 벌써 죽였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를 사랑해서 그 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치유를 받은 자는 곧 남에게 구걸하는 거지였고, 부끄러운 인간이었습니다.

넷째, 치료의 방법

첫째로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신을 집중하고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상관이 주목을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눈을 맞추고 눈동자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존경과 정신 집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한푼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안타까운 눈빛, 간절한 눈빛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 좀 도와 주십시오." 하고 외칠 때 돕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사랑과 애정, 동정심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받으면 받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 뒤에 계신 능력의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돈과 먹을 것을 받기 위해 구걸한 것인데 느닷없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 기대에 어긋났다

고 속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떡이 아니고, 옷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근본 문제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안을 가진 사람의 통찰력입니다. 직관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기만 하면 자기가 활동해서 돈을 벌고, 입을 것도 입고, 집도 마련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는 등의 인간 구실을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앉은뱅이에게 돈 한푼 주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구제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6절) 해서 그가 일어났습니다.

셋째로 손을 뻗쳐 그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을 도울 때, 말과 마음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쳐서 도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남을 돕고 싶어도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직접 뻗쳐 도와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할 때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잘한다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또, 입으로만 그치면 참인격자가 못 됩니다. 몸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계 1 : 3)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행이 남미에 가서 선교현장을 다닐 때 참 힘들었

습니다. 때는 겨울이고, 또 남미는 문화적으로 미국보다 뒤떨어졌습니다. 잠자리도 편치 못합니다. 특히 어려운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에도 좋은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 저들의 빈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남미에 다녀온 분들은 비록 고생은 많이 했지만 손으로 봉사하고 왔기 때문에 가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기쁨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다섯째, 치료받은 앉은뱅이의 모습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치료를 받았습니까? 제일 먼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할 때 바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보기 원하신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엘리사는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아만이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순종하고 나서야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왕하 5 : 10~14). 하나님의 복과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열 명의 문둥이를 고쳐 주셨는데, 아홉 명은 다 집으로 돌아갔고, 단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앉은뱅이였던 사람도 병 고침을 받은 후 걷고 뛰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히 13 : 15).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시 63 : 3).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시 116 : 12).

여섯째, 기적을 본 주위 사람들의 반응

기적을 본 주위 사람들은 놀랐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랐다고 했습니다. 놀랐다는 것은 정신 차릴 수 없도록 놀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놀랐습니까?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사실로 나타난 것을 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친다,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면 다 모여듭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킬 때는 먼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경기도 여주 전도사로 부임해서 가자마자 막 기적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도할 때 남자 신자가 오천 명이 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하나 고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오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은뱅이가 누구입니까? 저도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앉은뱅이였습니다. 저도 반신불수였습니다. 자주

적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고침을 받아 앉은뱅이처럼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미국과 남미, 분단된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세계에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앉은뱅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앉은뱅이를 무엇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지식입니까? 과학입니까? 물질입니까? 무기입니까? 철학입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지금도 그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비로소 치료받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분단된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들도 말합니다. 대학생들도 말합니다. "통일! 통일!" 그러나 그 통일은 학생들의 시위나 순수한 애국 정신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치가들의 어떤 정략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무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온유, 겸손, 평화, 사랑, 봉사,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희생정신만이 조국 통일을 이루고, 앉은뱅이들을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 이 거룩하고 큰 사명이 오늘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함을 자각하고, 계속 뭉치고 물심양면으로 힘을 합해서 시대적인 앉은뱅이를 고치는 데 앞장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동선 목사

약력

• 서울신학대학 졸업/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미국 북침례교 신학 석사/미 공군군목학교 졸업/공군 군목(초대 군종감, 대령)/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LA동양선교교회 창립(1970. 7. 11)/아시아선교센터 이사장(1979)/남가주 한인교회협의회 이사장/한미수교 100주년 기념 세계선교대회 부회장/한인 세계선교대회 대회장(1980)/동양선교교회(초교파독립교회)담임목사 23년/현 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현 월드미션신학대학교 총장

저서

•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
• 심는 대로 거두리라
• 스스로 개척하라
• 절망의 극복
• 새 계명의 사랑(세 번째 설교집)
• 환난 날의 신앙(네 번째 설교집)

네 번째 설교집

환난 날의 신앙

•

1999년 12월 1일 인쇄
1999년 12월 10일 발행
지은이/임동선
발행인/이형규
발행처/쿰란출판사
서울 · 종로구 연지동1-1 여전도회관 1005호
TEL/745-1007, 745-1301~2
영업부/747-1004, FAX/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0502-756-1004
홈페이지 ; http : //www.qumran.co.kr
E-mail ; qumran@shinbiro.com
qumran@hitel.net
등록/제1-670호(1988. 2. 27)

•

값 12,000원

책임교열 : 김효원 · 이경숙

ISBN : 89-7434-485-8 93230